Life of Youth



청년생활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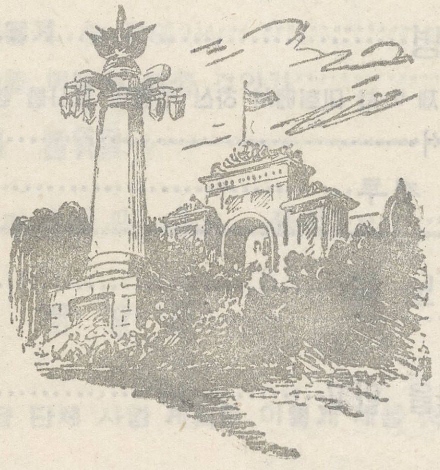
1964



(유화) 339 고지에 중앙 민청 모범 기'발을 휘날리는 용사들　　리 한조 작

조선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잡지

청 년 생 활



1964. 7



차 례



표지 1 면 (유화) 쪼꿩선 802 호 박 경희 작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원

젊은 승리자들의 대회, 민청 제5차 대회는 당의 령도 따라 민청이 걸어 온 18 년 간의 자랑찬 로정을 총화하고 우리 나라 혁명 발전의 현 단계에서 청년 동맹 앞에 제기된 전투적 과업을 토의하였다.

대회는 특히 청년들의 변천된 처지와 새로운 임무에 상응하게 민청을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으로 개조하는 력사적인 결정을 채택하였다.

민청의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에로의 개조, 이는 조선 청년 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올려 세운 력사적인 전환점으로 되며, 우리 당의 혁명적 군중 로선의 위대한 승리이다.

이는 전체 청년들에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대한 명확한 목표와 신심을 줄 것이며 그들을 당 주위에 더욱 튼튼히 결속시키고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 건설자로 교양 육성함에 있어서 획기적인 계기로 될 것이다.

이는 또한 우리의 성과를 항상 희망의 등대로 바라 보면서 반미 구국 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남반부 청년 학생들에게 커다란 고무적 힘으로 될 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동지는 대회에 친히 참석하시여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의 과업에 대하여》라는 강령적 교시를 주시였다. 교시는 새로운 발전 단계에 들어 선 우리 나라 청년 운동 앞에 나서는 새 임무는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대회는 민청이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으로 개조됨에 따라 새로운 규약을 채택하였다.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의 성격과 목적, 임무를 규정한 새 규약은 동맹을 더욱 조직 사상적으로 공고히 하고 동맹원들의 조직 생활을 한층 높은 수준에로 심화 발전시키며 동맹 앞에 제기된 혁명 임무의 성과적 실현을 보장함에 있어서 거대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 ○

우리의 전체 민청원들은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원이 되였다.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원! 이 얼마나 우리의 심장을 격동시키는 영예로운 칭호인가!

이 말은 조선 로동당의 전투적 후비대이며 공산주의 건설의 교대자라는 영예와 행복을 상징하는 고귀한 칭호이다.

이것은 또한 영광스러운 항일 무장 투쟁의 혁명 전통을 계승한 우리 나라 청년들의 공산주의적 대중 단체의 한 성원임을 의미하는 고상한 칭호이다.

우리가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원으로 된 것은 우리 나라 청년들의 더 없는 영예이며 자랑이다. 이것은 또한 우리 앞에 제기된 력사적 임무가 더욱 방대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금 전국의 청년들은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원의 영예로운 칭호를 받은 긍지와 자랑으로 하여 무한한 흥분과 감격 속에 휩싸여 있다.

청년들이여!

그대들이 추켜 든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의 기'발을 보라!

거기에는 항일 빨찌산의 피로써 물들인 혁명 전통을 계승하여 당의 기치 하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조선 청년들의 혁명적 기백과 열정이 약동하고 있다.

그대들의 높뛰는 심장 우에 단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원의 휘장을 보라!

거기에 아로 새겨진 기'발과 백두산, 마치와 낫, 붓들은 조선 로동당의 전투적 후비대로서 당의 령도 밑에 우리의 혁명 위업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고 있는 우리의 충성과 기백을 또 얼마나 생동하게 말해 주고 있는가!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의 새 기'발을 들고 새 휘장을 단 이 력사적 시각에 우리는 마땅히 생각하여야 한다.

어떻게 하면 당의 높은 신임과 기대에 훌륭히 보답하며 무엇으로 조국과 혁명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보탬을 줄 것인가?

민청원이란 이름을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원으로 바꾼 것은 단순히 그 이름이 좋아서가 아니다. 사회주의 로동 청년이라는 말에는 깊고도 높은 뜻이 담겨져 있다.

사회주의라는 말에는 우리의 리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조선 청년들의 일치한 사상과 신념의 뜻이 담겨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이것은 혁명 선렬들이 그것을 위하여 피 흘려 싸운 우리 인민의 리상이며 우리의 투쟁 목표이다.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원들은 항일 빨찌산의 혁명 위업을 계승하여 이 땅 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락원을 건설하기 위한 혁명 조직의 한 성원임을 가슴 깊이 명심하여야 한다.

위대한 리상도, 력사적 임무도 그것은 오직 영웅적 로동과 간고한 투쟁으로써만 실현할 수 있다.

로동이라는 말에는 우리의 신성하고 영웅적인 로동으로 부강한 조국과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할 데 대한 요구가 반영되여 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원이란 말은 곧 우리의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영웅적 로력 투쟁의 돌격대임을 의미하는 영예로운 칭호이다. 실로 우리 나라 청년들의 두 어깨 우에는 그 전보다 얼마나 더 무겁고 얼마나 더 방대한 과업이 지워지고 있는가!

○ ○

수령은 가르치시였다.

《우리는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을 로동당의 믿음직한 후비대로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위하여 싸우는 조선 청년들의 더욱 위력한 전투적 조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청년 동맹의 각급 단체들을 튼튼히 꾸리고 동맹 조직생활을 부단히 강화하며 전체 청년들 속에서 정치 사상 사업을 계속 강력히 전개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청년 동맹과 청년들의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한다.》

수령의 가르침, 이는 조선 청년 운동의 전투적 강령이며 당의 후비대,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의 앞길을 가리키는 등대이며 지침이다.

우리는 수령의 력사적인 연설의 구절 구절을 불타는 심장 깊이 아로 새기고 자기의 피와 살로 되게 하며 이것을 우리의 모든 행동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우리는 생활 체험을 통하여 당의 령도는 우

리의 모든 승리와 행복의 담보이며 우리의 훌륭한 미래도 오직 당의 령도 하에서 꽃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당의 후비대인 우리 동맹원들은 당의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실함으로써만 그의 위업을 계승하여 이 땅 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락원을 건설할 수 있다.

우리는 지난 시기에 그러하였던 것처럼 앞으로도 당의 령도에 무한히 충실하며 매 시기 당이 제시하는 혁명 과업을 제때에 철저히 집행할 것이다.

조국의 통일 독립을 실현하며 나아가서는 공산주의를 우리 나라에 건설하는 것은 우리 인민과 청년들의 최고의 리상이며 우리의 혁명 선렬들이 장기간 그것을 위하여 피어린 투쟁을 전개하여 온 투쟁 목적이다. 우리는 이러한 숭고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할 것이다.

오늘 우리 앞에 나서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자력 갱생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천리마 운동의 대고조를 계속 견지하여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을 촉진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더 잘, 더 빨리 건설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 서서 당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며 기술 혁신 운동을 대중적으로 전개하면서 공산주의적 로동의 모범을 창조할 것이며 사회주의 조국을 더욱 튼튼히 보위할 것이다.

조선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투사가 되기 위하여서는 조선 로동 계급과 근로자들의 선봉대이며 조선 혁명의 참모부인 조선 로동당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그의 령도에 무한히 충실하여야 한다. 또한 맑스-레닌주의 세계관과 선진 과학 기술을 소유하고 공산주의 도덕과 건전한 체력을 갖춘 전면적으로 발전된 새 형의 인간으로 준비되여야 한다.

우리는 당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옹호하고 그의 집행에 결사적으로 달라붙어 끝까지 관철하며 지, 덕, 체를 겸비한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 건설자로 되기 위하여 자체 수양을 계속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미제 침략자들을 남조선에서 몰아 내고 그의 주구를 청산하며 완전한 민족적 해방과 독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더욱 견결히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제국주의가 이 세상에 남아 있는 한 손에서 총을 놓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이며 제국주의에 아부 굴종하는 현대 수정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하여 더욱 견결히 투쟁할 것이다.

동맹 생활을 강화하는 것은 전 동맹을 조직 사상적으로 강화하며 그의 전투적 기능을 제고하는 기본으로 된다. 또한 동맹원들은 조직 생활을 통하여서만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실한 전면적으로 발전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될 수 있다.

우리는 동맹 생활에 적극 참가하여 조직 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고 비판과 자기 비판을 강화하며 자기의 실천적 모범을 통하여 소년단원들을 교양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살아도 당을 위하여 깨끗하게 살며 싸워도 당을 위하여 용감하게 싸우며 죽어도 당을 위하여 용감하게 죽을 줄 아는 로동당의 참된 전사가 될 것이다.

승리는 위대한 수령의 부름을 받들고 전군로 진군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있다.

모두다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수령의 부름 따라 힘차게 앞으로!



당에 대한 충실성

최 현

우리들은 조선 인민 혁명군
공산당 령도 받는 붉은 전투원
우리들의 투쟁 강령 정의로우니
강령을 관철시켜 힘껏 싸우자
(혁명 가요《조선 인민 혁명군》의 제 1 절)

우리는 지난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 이 노래를 즐겨 불렀다. 이 노래에는 공산당의 령도를 받는 다함 없는 긍지와 원쑤들을 쳐 부시고 민족을 해방하며 새 사회를 건설할 데 대한 높고 강렬한 지향이 반영되여 있었다. 이 노래를 부르면 우리의 피는 끓었고 가슴엔 새로운 용기와 신심이 솟아 오르군 하였다.

오늘 우리 나라의 청년들은 조선 로동당의 령도를 받는다. 이것은 우리 조선 청년들의 커다란 영예이며 행복이다.

당신들은 라침판 없는 항로에 대해서, 지도나 지남침 없는 안개 낀 밤의 행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또한 부모의 보살핌 없는 자식의 앞길에 대해서, 스승의 가르침이 없는 제자의 전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청년들이 누구의 령도를 받으며 누구의 가르침을 받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청년들에게 제 아무리 생기 발랄하고 용감하고 대담한 기질이 있다고 한들, 그들에게 제 아무리 강한 진취성과 끓는 정의감이 있다 한들 그들에게 참되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는 옳은 령도가 없을 때 그 기질이 빛을 뿌릴 수 있으며 그들의 재능이 꽃필 수 있겠는가.

당은 청년들을 옳바른 길로 향도하는 자애로운 어머니이며 스승이며 생활과 투쟁의 동대이다.

나는 멀리 이역의 땅에서 태여나 원수 일제에 대한 철천의 원한을 품고 원수를 반대하는 싸움에 나선 한 소년을 어엿한 혁명의 전사로 키워 준 당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아니 60 가까운 한 인간의 절실한 생활 체험을 통해서 당신들 청년들에게 말하고 싶다. 당의 령도에 무한히 충실하라고…

항일 무장 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을 계승하였으며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 로동당의 령도를 받는 것, 이는 얼마나 행복하며 긍지 높은 일인가!

우리 당의 장엄한 행군로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우리 당은 강도 일제를 쳐부시는 15 여 성상의 장구한 항일 무장 투쟁의 깊은 력사적 뿌리에서 태여 난 빛나는 혁명 전통을 가지고 있다.

우리 당은 강도 미제를 괴수로 한 16 개국 무력 침공자들을 반대하여 전 당, 전 인민이 피흘리며 싸우던 시기, 우리 인민을 승리에로 향도한 불패의 당이다.

또한 우리 당은 황량한 폐허 우에 짧은 력사적 기간에 강력한 자립 경제를 건설하고 오랜 세월 빛을 잃었던 조국을 동방의 강국으로 되게 했으며 이 땅 우에 만민이 살기 좋은 지상 락원을 펼쳐 놓은 지혜로운 당이다.

조선 로동당은 맑스-레닌주의 순결성을 눈'동

자처럼 고수하며 원쑤와의 투쟁에서 견결하고 국내외적으로 절대적인 권위와 위신을 가지고 있는 백전백승의 당이다.

이러한 당의 전사로, 후비대로 되는 것보다 더한 영예가 어디에 있으며 이러한 당의 령도를 받는 것보다 더한 행복이 어데 있겠는가!

청년들은 이러한 당의 령도에 충실함으로써만 우리 시대의 붉은 꽃으로 피여 날 수 있는 것이다.

× ×

당에 충실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김 일성 동지는 민청 제 5 차 대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당에 충실하다는 것은 당을 옹호하고 보위하며 당 주위에 굳게 단결하며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런 실천 투쟁도 없이 《만세》만 웨치는 것으로는 당에 충실할 수 없다.

나는 근 30여년 간에 걸친 지난 투쟁의 길에서 당과 혁명 위업에 충실한 참된 전사들을 무수히 보았다.

1930 년대의 공산주의자들은 언제나 당과 혁명의 리익에 무한히 충직하였다.

공산당원이라는 칭호는 말 그대로 불요불굴성과 견결성의 상징이였으며 혁명에 대한 충직성의 화신이였다. 살'점을 도려 내는 원쑤들의 야수적인 고문도, 캄캄한 감옥의 철창도 최후를 바치는 교수대도 결코 공산당원들의 투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 공산당원들은 그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그 어떤 위험한 때에도 개인의 일보다 당의 리익, 당의 혁명 위업을 먼저 생각하였다. 그들은 당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행복도, 희망도 기꺼이 바쳤다.

《천보산의 용사》로 알려진 김 충진 동무는 당의 혁명 위업에 무한히 충직한 동지였었다.

원쑤들의 소굴을 습격하고 돌아 오던 길에 《토벌대》 놈들의 추격을 받게 되였을 때 그는 자기가 공산당의 전사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를 깨달았다.

충진 동무는 전우들의 생명을 위하여, 혁명 위업의 최후 승리를 위하여, 원쑤들을 자신에게 유인하였다.

《이 놈들아! 빨찌산은 여기에 있다.》

그는 소리 높이 웨치고 스스로 원쑤들의 총탄 속에 뛰여 들었으며 단신으로 총탄이 떨어지고 몸에 부상을 입고도 바위'돌을 굴리며 끝까지 원쑤와 싸우다가 쓰러졌다.

사랑하는 한 빨찌산 소대장의 최후를 두고 그의 부대장이였던 나는 오늘도 잊을 수 없다. 언제나 당을 따르고 당의 혁명 위업에 충직한 사람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영생 불멸하는 것이다.

지난 조국 해방 전쟁 시기 나는 멀고 먼 조국의 남해 바다'가에서, 적후에서, 영웅적인 1,211 고지 등에서 싸웠다.

락동강'가의 불타는 전호 속에서도, 1,211 고지의 참호 속에서도 전사들은 언제나 당 중앙 위원회를 목숨으로 지킨다는 높은 자각성으로 하여 완강하고 견결하게 싸웠다.

추운 겨울 하복을 입고 싸우지 않으면 안 되였던 간고한 적후 투쟁 시기에도 전사들의 심장을 항시 불태운 것은 조국의 전반적 정세와 인민의 운명과 깊이 련결된 숭고한 책임감이였다.

《김 일성 장군 만세!》, 《조선 로동당 만세!》를 소리 높이 웨치며 602 고지에서 불 뿜는 원쑤의 화구를 가슴으로 막은 김 창걸 소대장과 김 옥근 분대장, 무명 고지에서 귀중한 청춘을 바친 리 수복 영웅, 그들의 심장은 언제나 당에 대한 충실성으로 뜨겁게 불탔다.

어떤 전사들은 자기의 청춘과 고별하는 마지막 순간에 《나를 로동당원이라고 불러 달라》고 말했고 어떤 전사들은 조선 로동당의 입당을 열렬히 희망하면서 전호 속에서 쓴 입당 청원서를 가슴에 품은 채 숨을 거두었다.

나는 가렬한 1,211 고지 전투에서 중상 당한 한 전사가 손칼로 전호 안'벽에 새긴 다음과 같은 글을 기억하고 있다.

《입당시켜 줄 것을 청원합니다.
로동당원으로서 싸우고 싶습니다.
당에 내 마음도 몸도 다 바칩니다.
받아 주십시오.》

그 아무런 과장과 수식도 없는 이 전사의 소박한 몇 마디의 말에는 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의 정신이 얼마나 힘차게 고동치는가!

청년들은 당의 부름 따라 사회주의 건설에서 언제나 돌격대의 역할을 빛나게 수행하였다.

인민의 행복과 고향 마을의 번영을 위하여 19 세의 청춘을 바친 성천군 향풍 협동 농장 리 병모 동무가 자기 동무들에게 한 말을 생각해 보라!

《당의 지시는 법이요, 당 앞에서는 오직 <네>라는 대답이 있을 뿐이며 뼈가 부서져도 즉시적인 실천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로 조국을 사랑하며 인민의 리익을 위하는 길이요.》

어찌 이것이 리 병모 동무 혼자만의 생각이겠는가! 이것은 조국의 이르는 곳마다에 기념비를 세우고 행복의 려정을 닦는 우리 시대의 모든 사람, 모든 청년들의 공통된 심정일 것이다.

바로 이러한 사람, 이러한 세대들의 어깨에 떠받들리여 우리 조국은 번영의 일로로 힘차게 전진하는 것이며 우리 인민의 미래는 더욱 아름답게 꽃피여 나는 것이다.

× ×

청년 동무들!

우리들의 가슴은 당에 더욱 충실하려는 열망으로 끓고 있으며 불타고 있다.

그러면 문제는 이렇게 제기된다. 우리가 당에 무한히 충실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우리는 자신의 당'적 사상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당의 력사와 혁명 전통을 깊이 연구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철저히 체득하는 것은 당'적 사상 체계로 무장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전제 조건으로 된다.

(당이 숨 쉬는 대로 숨 쉬며 당이 사고하는 대로 사고하며 당이 행동하는 대로 행동하라! 당 정책을 끝까지 관철하며 당 중앙을 목숨으로 지키는 붉은 전사가 되라!)

이것은 수십년 간에 걸친 나의 당 생활에서 하나의 신념으로, 불변의 신조로 되여 왔다. 나는 나의 생활 체험을 통하여 이러한 각오가 철저히 설 때 그는 어떤 바람이 휘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어떤 간고한 속에서도 당의 부름에 더욱 충실한 참된 전사가 된다는 것을 깊이 체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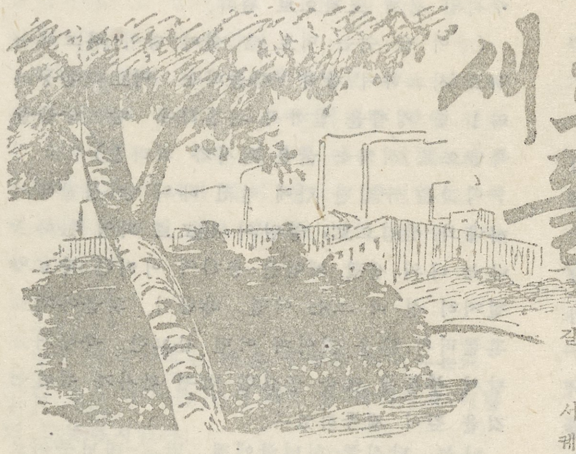
나는 당신들-청년들에게 맑스-레닌주의로 자신을 무장하며 우리 당의 사상 의지로 무장하라고 간곡히 말하고 싶다.

맑스-레닌주의를 깊이 소유하고 그의 혁명적 원칙을 견결히 수호하며 부단히 혁명적 수양에 힘쓰는 청년들에게는 그 어떠한 부르죠아 사상의 영향도, 수정주의의 독소도 미칠 수 없다.

특히 청년들은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함으로써만이 조선 혁명의 전략 전술을 잘 알 수 있으며 어떠한 복잡한 환경에서도 혁명적 립장을 고수하고 혁명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언제 어느 때나 제국주의를 비롯한 지주, 자본가 제도를 반대하여 결사적으로 투쟁할 각오로 충만되여 있어야 하며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 내고 《민생고》에 신음하는 2천만 동포들을 해방할 사상적 결의에 충만되여야 한다. 이러한 숭고한 계급적, 민족적 자각이 없을 때, 그리고 자기 시대의 력사적 사명에 대한 높은 자각이 없을 때 결코 당에 충실할 수 없다.

또한 청년들이 우리 나라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할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으로 자신의 심장을 뜨겁게 불태울 때에, 미래를 사랑하고 공산주의 승리를 확신하면서 항상 랑만으로 들끓으며 힘차게 전진할 때에, 그리고 안일과 부화를 배격하고 혁명적으로 살며 일할 때에 그는 당의 혁명 위업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돌격전에서...

민청 제 5 차 대회에 참가했던 대표 동무의 귀환 보고가 있은 날 밤…

흥분된 가슴을 안고 집으로 돌아 가던 로루 직장의 사로청 위원장 송 만수 동무는 구내에 있는 한 그루의 백양나무 밑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정전 직후 수상 동지께서 몸소 찾아 오시여 제강소를 복구할 데 대한 교시를 주시던 뜻 깊은 력사의 나무였다. 그 나무를 우러러 보는 송 만수 동무의 가슴은 한없이 부풀어 올랐다.

전후 강선의 젊은 강철 전사들은 위대한 수령의 교시로 심장을 불태우면서 불과 40 일만에 파괴된 2 호 청년로를 복구하고 선참으로 쇠'물을 뽑았다.

당이 《증산과 절약》에로 전체 인민을 부르던 어려운 시기 이 곳 강선의 로동자들은 보수와 침체, 소극과 신비주의를 불사르면서 천리마 운동의 첫 봉화를 높이 추켜 들었다.

(혁신의 상징, 천리마의 고향으로 된 강선, 우리는 언제나 당과 수령의 부름에 충실하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송 만수 동무의 얼굴엔 커다란 행복과 긍지가 물'결치였다. 그는 백양나무를 우러러 보며 다시 한 번 마음의 맹세를 굳게 다졌다.

《수상 동지! 수상 동지는 우리를 사회주의 건설의 돌격대가 되라고 뜨겁게 불렀습니다. 우리는 수상 동지의 교시를 받들고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의 과업을 실천하는 영예로운 길에서도 언제나 앞장에 서겠습니다.》

이 날 밤 송 만수 동무는 기술 혁신 운동에서 청년들이 앞장 서기 위하여 우선 전자석 궤도 기중기와 금형 선반기를 청년들의 힘으로 제작할 것을 결심하였다.

원래 이 곳 로루 직장에서는 종전까지 구내 렬차로 실어 온 원료를 용선로까지 손으로 운반하고 있었다. 이것은 힘들고 어려운 로동이였다. 때문에 로동자들은 전자석 궤도 기중기를 만들어 이를 기계화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일은 뜻 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 또한 금형 선반기만 하여도 이 직장의 기본 제품인 압연 로루의 질을 제고함에 있어서 하루 속히 만들어야 할 그런 중요한 기계였다.

다음날 송 만수 동무는 직장 사로청 위원회 확대 위원회를 열었다. 그는 여기에서 사로청원들에게 이렇게 호소하였다.

《이 번 대회에서 수상 동지께서는 기술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 데서 선두에 서야 할 사람은 새것에 민감하고 진취성이 강한 청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수상 동지의 이 높은 신임과 기대에 보답하기 위하여 우선 당면하게 직장에서 걸린 문제인 전자석 궤도 기중기와 금형 선반기부터 완성하여야 하겠습니다.》

청년들은 열렬히 이에 호응하였다. 그들은 앞을 다투어 토론에 참가했으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은 자기에게 맡겨 달라고 제기하였다. 그들은 국가에서 하나의 자재도 받지 않고 그것을 만들기로 결심하였다.

불'덩이처럼 달아 오른 그들 속에서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무수히 꽃펴 났다.

한 번은 전자석에 쓰려고 구해 온 구리줄 릉구리가 통땅 없어진 일이 있었다. 이 일로 해서 동무들 속에서는 《소동》이 일었다. 그런데 이 때 기중기 운전공인 김 부원 동무가 땀을 철철 흘리며 그 없어진 구리줄 릉구리를 메고서 쪽에서 나타나지 않는가! 그는 영문을 몰라 자기를 둘러 싼 동무들에게 싱긋이 웃으며 《…미안하게 됐네, 글쎄 나야 기중기 운전공이니 직접 그걸 만드는 데야 참가 못 할 망정 이런 일쯤이야 왜 못 하겠나?》하고는 스적스적 기중기 우로 올라 가는 것이였다. 알고 보니 그는 동무들이 이미 수집해 온 구리줄들이 규격에 맞지 않아 애타하는 것을 보고 밤새 남몰래 그것을 연신 직장에 가지고 가서 가늘게 뽑아 왔던 것이다.

이 얼마나 기특하고 아름다운 행동인가!

금형 선반기 제작반에 속한 신 인엽 동무는 일부 부속품들이 없어서 애타하고 있었다. 그것을 본 선반공인 그의 안해는 어느 휴일날 이렇게 생각하였다.

(집에서 그냥 쉬면 무엇하랴! 직장에 가서 그 부속을 깎아 오자. 집'일이야 좀 밀려도 되지만 그 일이야 어떻게 잠시인들 미루겠는가!)

그는 온 종일 직장에 나가서 남편이 애타하던 여러 가지의 부속품을 가지고 돌아 왔다.

자기의 휴가 기일을 미루어 가며 일하러 나오는 동무들도 있었고 직장 휴계실에서 침식을 해 가며 일하는 동무들도 있었다.

바로 이러한 청년들의 불타는 열성이 있는 한 그 무엇인들 못 해 내겠는가!

그 때로부터 단 달도 못 되는 어간에 일부 사람들이 못 만든다던 전자석 궤도 기중기도 완성되였고 얼마 후에는 금형 선반기도 훌륭히 제작되였다. 전자석 궤도 기중기가 무거운 짐을 척척 물어 나르고 금형 선반기가 30 톤이나 되는 육중한 쇠를 씽씽 깎아 내던날 청년들은 너무도 감격해서 서로 부둥켜 안고 만세를 웨쳤다.

이리하여 로루 직장의 청년들은 수상 동지의 강령적 교시를 받들고 짧은 기간 내에 년 45만여 원의 리익을 국가에 줄 수 있는 커다란 기술 혁신을 일으키였다.

자기들이 만든 기대의 시운전이 있은 날 저녁 송 만수 동무는 퇴근하던 길에 다시 그 백양나무 밑에 머물러 섰다.

《수상 동지! 우리는 수상 동지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전자석 궤도 기중기 〈사회주의 로동 청년호〉와 금형 선반기를 완성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날에도 그러했듯이 앞으로도 영원히 수상 동지의 부름에 충실하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백양나무를 우러러 보며 마음의 보고를 올렸다.

본사 기자 한 희담

생활의 거울

알뜰한 살림'군

교대가 끝난 지도 퍽그나 되여 이미 밤도 이슥했는데 한 청년이 직장 한쪽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회전 쎈타를 달아 놓고 부지런히 손질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쉬임 없이 땀'방울이 흘러 내리고 있었다.

《그만 풀어 가라구!》

다른 교대 동무들이 자꾸 권해도 그는 자리에서 일어 나지 않는다.

과연 이렇듯 자기 기계를 극진히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다름 아닌 락원 기계 공장 청년 직장 2중 천리마 작업반의 하 응렬 동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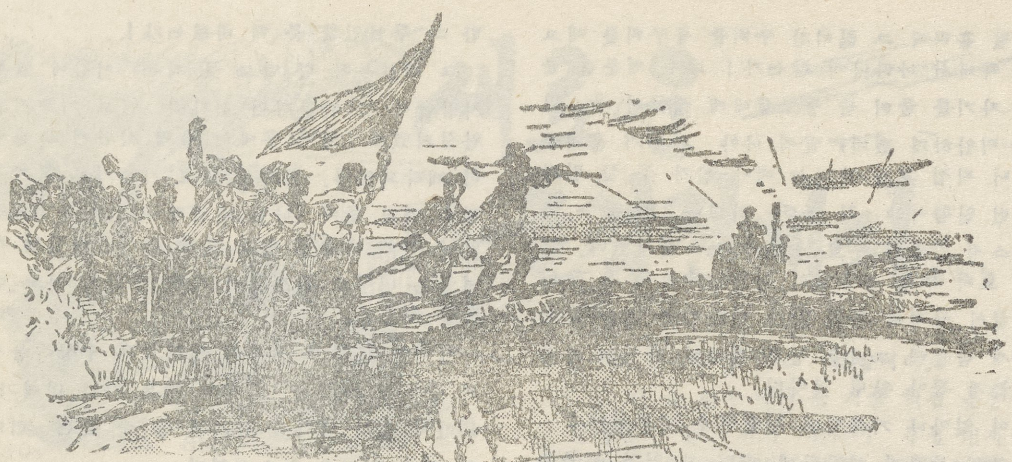
국가 재산을 자기 눈'동자와 같이 아끼고 알뜰히 다루는 그는 언제나 고장이 날세라 자기 기대를 갓난 아기를 보살피듯 알뜰히 손질하군 했다. 그러기에 그가 다루고 있는 선반기의 회전 쎈타 하나만도 무려 6 년간이나 무사고로 써 왔었다. 그런데 그만 아까 작업 중에 고장이 났던 것이다. 하긴 이 쎈타를 새로 바꿀 수도 있었다. 동무들도 그렇게 권고했다. 하지만 응렬 동무는 그럴 수가 없었다. 아직도 잘 손질만 하면 오래 쓸 수 있는 것을 왜 버리겠는가! 그에게는 오직 이것을 빨리 고쳐서 래일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겠다는 생각만이 앞섰다.

그는 이날 밤 기능이 높은 동무들의 조언을 받아 가며 애써 부속품을 새로 깎아 맞추어 가며 고장난 쎈타를 끝내 고쳐 내고야 말았다.

이것을 보는 동무들은 자기의 기대—국가 재산에 대해 그처럼 알뜰한 응렬 동무의 갸륵한 마음씨에 크게 감동되였다.

이 뿐만 아니라 응렬 동무는 지난 9 년간 한 건의 오작도 내지 않고 일함으로써 동무들의 깊은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다.

통신원 한 창수



긴등벌에서의 새 전투

황주군 석정리 9월 협동 농장으로 가는 길은 높고 낮은 등판을 에돌아 꾀그나 멀었다.

《한 번 가 보셨던 일이 있더래도 몰라 보기 쉬울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얼마 동안에 군내 산천을 몰라 보게 변모시켜 놓았으니까요.》

군 사로청 위원회 동무가 일러 주던 것을 생각하며 우리는 몇 해 전 기억으로 긴등'벌의 오늘의 모습을 더듬으며 했었다. 그러나 그것은 허사였다.

한 등성이에 올라 서니 우리의 눈앞에는 등마루의 뙈기밭이 있던 곳까지 층층이 다락논으로 변한 등판들이 한눈에 안겨 왔다. 그것은 마치 등고선을 표시해 놓은 모형 사판을 방불케 하였다. 우리가 서 있는 발 아래로는 보'물이 조잘대며 흐르고 논판의 싱싱한 벼포기 속에서는 뜸부기가 《뜸-뜸-》하고 울었다. 실로 천지개벽이였다. 이것이 얼마 전까지도 키 높은 옥수수만이 자라던 등판이였으며, 지난날 길 가던 손님에게 밥 한 그릇은 대접해도 물 한 그릇은 대접 못 했다는 그 긴등'벌의 새 모습인 것이다.

동구 앞에서 오전 일을 끝내고 돌아 오는 청년들의 씩씩한 노래 소리가 《천리마》호 뜨락또르의 발동 소리와 어울려 들려 온다.

우리는 그들 속에 섞여 있던 리 사로청 위원장 림 정모 동무를 만났다.

《네, 이것이 새로 푼 다락논입니다. 이런 변화들은 지난날 우리 청년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맡아서 해 치운 데서 빨리 앞당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청 제 5 차 대회에서 하신 수상 동지의 강령적 교시를 받은 후부터 청년들의 기세는 그 때에 비할 수 없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림 정모 동무는 이렇게 허두를 떼고 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였다.

…마을에서 한참 모내기 전투가 벌어지고 있을 때였다. 민청 제 5 차 대회에 대표로 참가했던 뜨락또르 운전수 유 현상 동무가 돌아왔다. 청년들은 그가 마을에 들어 서기도 전에 그를 에워 쌌다.

그 날 그에게서 수상 동지의 교시를 전달 받은 사로청원들은 자기들이 사회주의 농촌 건설의 영예로운 직접적 담당자라는 긍지로 하여 기세가 부쩍부쩍 높아졌다.

청년들은 수상 동지께서 밝혀 주신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원의 과업을 조목조목 가슴에 새기면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일으킬 것을 굳게 다짐하였다.

모내기 전투가 한참 치렬해지면서 일'손은 이만저만 딸리는 것이 아니였다. 더구나 지난해 가을 그들이 새로 350 정보나 되는 논을 더 풀었기 때문에 써레질과 논'둑 짓는 일이 많이 밀렸다.

이럴 때 5 초급 단체 사로청원 장 서영 동무는 초급 단체 위원장 림 명길 동무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 가슴 속에는 수상 동지께서 주신 새 전투 임무가 간직되여 있습니다. 나에게 논'둑 짓는 일을 맡겨 주십시오.》

청년들로 써레질과 논'둑 짓는 돌격대가 조직되였다. 가래'장부를 잡은 장 서영 동무의 무쇠 같은 팔뚝에서는 무서운 힘이 솟구쳤다. 어떻게도 세차게 해 내였던지 그의 조에서는 하루에 500%, 600%까지 밀고 나갔다. 작업반에서 밀렸던 대목이 탁 틔워졌다.

《어데서 그런 장수가 나왔는지 모를 일이군.》

그들의 걸싸게 해제끼는 일 솜씨에 농장원들은 혀를 내둘렀다. 그 때부터 장 서영 동무에게는 《500% 가래 장군》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던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였다. 한참 논'벌에 물을 보내야 할 바쁜 시각에 저수지 수문 고리에 끼웠던 축이 빠져 달아 나서 물을 보낼 수 없게 되였다. 사람들은 미처 손을 쓰지 못 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어느새 이 것을 알았는지 장 서영 동무가 달려 왔다. 그는 미처 누가 말릴 사이도 없이 두 길이 넘는 좁은 홈타기 사이로 자맥질하여 들어 갔다. 사람들이 손에 땀을 쥐고 지켜 보고 있을 때 그는 물 속에서 축을 찾아 내여 수문 고리에 끼워 놓았다. 생명수는 지체 없이 논'벌로 흘러 들었다.

새로운 열의는 모를 꽂는 청년들 속에서도 타 올랐다. 당 중앙 위원회 1958년 9월 전원 회의가 있은 뒤부터 자기들의 땀으로 벌방 부럽지 않게 많은 논을 풀어 협동 농장의 이름까지도 《9월》로 되게 한 그들은 모내는 솜씨까지도 오랜 논고장 사람들에게 뒤져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경쟁을 뭇고 솜씨를 익혀 나갔다.

신동의 김 정자, 강구지의 박 순규 동무들은 먼동이 트기 전부터 서둘러 논판으로 나갔고 밤에는 모판에 달려 들어 이튿날 쓸 모를 뜨군 하였다. 그리하여 하루 1천 평 수준을 오르내리는 《모내기 명수》로 이름을 떨쳤던 것이다. 사로청원들의 열의는 오늘 김매기와 풀베기에서도 수그러질 줄 모르고 높아만 가고 있는 것이다…

이 때 우리 앞으로 뜨락또르가 풀'단을 산'더미처럼 실은 련결차를 끌고 지나 갔다. 운전'대에 앉은 애티 있는 청년이 우리에게 빙그레 웃으며 눈인사를 보낸다.

《…우리 농산반 동무랍니다. 아마 점심참에 운전'대를 빌린 모양입니다.》

뜨락또르가 멀어지자 림 정모 동무는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 주는 것이였다. 우리는 그때에야 그 애티 있는 청년이 웬 일인지 뽐내듯 빙그레 웃음 짓던 까닭을 알 수 있었다. 리 사로청 위원장 동무의 말에 의하면 그 전부터도 뜨락또르 운전이며 여러 가지 기술 학습을 해오기는 하였지만 민청 제 5 차 대회의 결정을 접한 지금처럼 이렇게 활발하기는 처음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이제는 벌써 리내 80%의 청년들이 뜨락또르 기술을 습득했는데 그 중에는 녀동무들도 40여 명이나 된다는 것이다. 방금 지나 간 뜨락또르 운전수도 역시 그렇게 자란 동무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사, 기수 검정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청년들의 열성도 곱으로 높아졌다는 것이다.

벼가 아지를 치면서 푸르러 가던 어느날, 잠이 없는 마을의 한 로인이 밤이 깊어서 새로 푼 다락논에 논물을 보려고 나갔을 때였다. 로인이 막 등성이 우로 올라 가느라니 무엇인지 저만치 앞에서 허연 것이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는 것이 보였다. 로인은 《에헴》하고 인기척을 내여 보았다. 그러나 여전히 같은 동작을 반복하고 있었다. 순간 로인은 머리끝이 하늘로 곤두서는 바람에 슬그머니 돌아 섰다가 다시 돌아 와 봤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는 아무 것도 없고 누군가 방금 삽으로 흙을 떠서 논'두렁이 터진 것을 막아 놓은 흔적만 보였다. 그러나 그것이 누군지는 아직 알아 내지 못 했다.

《허, 내 나이에 이런 일은 처음이야, 그 때 다그쳐 가서 알아 볼 걸…》

하고 로인은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군 하였다.

아무리 힘겨운 일을 하고도 삽을 메고는 하루에 한 번씩 논판을 돌아 보고야 집으로 가는 청년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니 어떻게 그가 누군지 알아 내겠는가…

대회가 있은 후 오늘의 긴등'벌 청년들은 이렇게 들끓고 있다.

본사 기자

단편 소설

붉은 노을



김 원 종

(1)

지방 공작을 나갔던 정치 지도원 황 태훈이가 밀영으로 돌아 온 저녁에 중대는 먼 행군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먼지 털 새두 없게 됐소!》

중대장은 그를 만나자 빙그레 웃으며 손이 아프도록 꽉 잡았다. 알고 본즉 자기 중대에도 광활한 지역에로의 진출 명령이 내렸으며 그리하여 중대는 밀림 울창한 이 도하의 근거지를 떠나 벌판 지대인 보천현 일대로 가게 되였다는 것이다. 태훈이는 다리쉼도 못 하고 곧 행군 준비에 착수하게 되였다.

그는 우선 700여 리의 먼 행군을 앞둔 지금 대원들의 이런저런 준비 정형들을 알고 싶었다. 로대원, 신입 대원, 그리고 녀대원과 애어린 동무들…그는 늘 자기를 이 크나큰 가정의 어머니로 여겨 왔으므로 매개 대원들을 그렇듯 세심하게 보살펴 왔다. 이 또한 그의 긍지이며 행복이였으나 혁명에 몸 바친 대원들을 열렬한 투사로 키워 내라고 당이 자기에게 그들을 맡기지 않았는가.

《창덕이는 어디 있습니까?》

그는 서둘러 지휘부 초막을 나서면서 중대장에게 물었다.

《저 마감 불무지에서 보초를 설 겁니다.》

태훈이는 나어린 대원인 창덕이를 보고 싶었으나 막상 만날 생각을 하니 반가움에 앞서 근심이 더해지는 것이였다. 오늘 아침 다탄류에서 떠나 이 곳까지 백여 리 험산을 지나 오면서도 그는 창덕이를 두고 줄창 마음이 무거웠다.

엊저녁 그가 창덕이네 마을인 다탄류 반일회장의 집에 들렸을 때 회장 로인이 말하기를 약 한 주일 전에 일제 놈들의 《토벌대》들이 이 부락에 달려 들어 인민들을 《통비 분자》라는 리유로 무참하게 학살하였는 데 그 때 지주'집 부엌데기로 있던 창덕이 어머니도 반 년 전에 아들이 유격대에 간 것을 돈'벌이 갔다고 속이고 있었다 하여 무참히 죽였다는 것이다.

그 말을 들었을 때 태훈이는 이가 너무 갈려서 한참 동안 말을 못 하였었다. 창덕이를 그렇게 극진히 사랑하던 그 어머니, 오직 아들을 참된 사람으로 만들려고 유격대에 보내고 자기는 어떤 욕되고 어려운 고생도 참고 견뎌 내던 그 어머니! 그 어머니가 학살 당한 것을 알게 되면 창덕이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적에 대한 증오심으로 가슴을 칠 것이다. 그러나 아직 나이가 어린 그는 너무 상심하여 기운을 잃을는지도 모른다.

사실 원수들은 창덕이에게서 가장 귀중한 것을 앗아 가지 않았는가! 자나 깨나 훌륭한 혁명 투사가 되여 어머니를 기쁘게 해 드리겠다던 그가 아니였던가.

태훈이는 치솟는 격분과 창덕이에 대한 애처로운 생각으로 미여지는 가슴을 안고 백여 리 산'길을 잠시도 쉬임 없이 하루에 다우쳐 왔었다.

태훈이는 행군 준비에 바쁜 여러 개의 불무지들을 지나 마지막 불무지로 다가 갔다. 혼자서 불무지 보초를 서는 창덕이는 총을 껴안은 채 불'가에 쪼그리고 앉아서 무엇엔가 열중해 있었다. 태훈이는 발'소리를 죽여 가며 그의 곁에 조용히 가 섰다. 창덕이는 봇나무 껍질로 두껑을 만들어서 혁명 가요를 베껴 가지고 다니던 손'바닥 만한 수첩에다가 고지라진 연필 몽다리로 무슨 글을 박아 쓰고 있었다. 그는 태훈이를 알아 보자 꽤안길듯 반가와 하였다.

《언제 오셨습니까?》

《앉으라구, 뭘 그렇게 열심히 쓰는가 응?》

이제 겨우 열 일곱 살을 먹은 창덕이는 잠시 애된 얼굴을 붉히더니 솔직한 제 성미 그 대로 접었던 수첩을 펼쳐 보이며 대답하는 것이였다.

《어머님께 드리는 편지를 한 번 써 봤습니다.》

《하, 이런 탁연한 친구 좀 보게, 배달부가 있어야지?》

《그저 한 번 련습을 해 봤지요. 유격대에 들어 와서 글 쓰는 법을 다 배우고 나니 편지 쓸 생각이 나서요.》

태훈이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가 늘 가슴에 지니고 다니던 수첩에다가 《그리운 어머님, 이 장한 아들은……》하고 시작한 서투른 주먹 글씨를 보자 그만 참다 못 해 눈'굽이가 저절로 뜨거워지는 것을 억제할 수 없었다.

(창덕이는 이 순간에도 고생 많은 주름도 많으신 어머니의 얼굴을 눈앞에 방불히 그려 보고 있겠지? 그 참혹하고 눈물겨운 사실은 꿈에도 모르고…)

그는 한참이나 애절한 눈'길로 창덕이의 동실한 얼굴을 바라 보았다. 그러다가 귀밑에 생긴 버들'잎만한 흉'터에 눈이 갔다.

그는 창덕이를 측은히 바라 보던 나머지 얼굴에서 흠'집을 보자 언젠가 입대 초에 그가 하던 말이 문득 생각 났다. 지주'집 부엌데기의 아들로 태여난 창덕이는 철도 들기 전부터 잇다아 그 집 머슴'군으로 일하게 되였는데 그 때가 아홉 살 적이였다 한다.

어느 날 저녁에 지주의 녀편네가 다리미질을 하는데 창덕이더러 치마 한 끝을 잡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해종일 고역에 지쳤던 그는 그만 깜박 졸아서 잡았던 치마 끝을 놓쳐 버렸다. 그러자 녀편네는 버럭 화를 내였다.

《뒈질 녀석, 정신을 챙겨 앉라니?》하고 녀편네는 놋그릇 깨지는 소리를 지르며 벌겋게 단 인두로 면상을 문대질러는 게 빗나가서 귀밑을 지져 놓았던 것이다.

창덕이는 자기 상처의 아픔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었으나 어머니가 자기를 껴안고 할새 서럽게 흐느끼시는 것은 차마 볼 수가 없었다. 그의 어머니는 그 후에도 그의 흠'집을 볼 때마다 두고 두고 천대 받는 신세를 저주하며 이 놈의 세상이 어서 뒤집혀지기를 바랬다는 것이다. ……

이런 회상을 하던 태훈이는 그 때의 창덕이의 그 말에서 다시 깊은 뜻을 느꼈으며 정치 지도원으로 자기는 이 순간 그를 위하여 무슨 말을 해 주어야 할 것인가 곰곰히 생각하였다.

《창덕이, 지금 우리는 집에 갈 수도 없고 편지를 보낼 수도 없네, 그 때문에 안타깝지? 허나 편지 뿐만 아니라 어머님께서 광명한 세월에 행복을 누리시게 해 드리려면 모든 걸 참아내야 해. 행군이 끝나면 창덕이가 바라던 전투가 벌어질 게야. 일제놈들을 본때 있게 때려 부시게 될 걸세. 일제놈들을 쳐부시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모 동생들에게 행복한 세상을 가져다 주는 일이니까… 그렇지 않는가?》

《정말 저도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그저 일제놈들을 하루 속히 때려 없애는 거라구…》

《옳게 생각했군! 모든 것이 그 놈들 탓이구 나라를 빼앗긴 때문이니까… 자, 행군 준비는 다 됐나? 길이 험하니까 단단히 차릴 대야 되네.》

《걱정 마세요. 자신이 있어요.》

창덕이는 힘 있게 대답하였다.

태훈이는 아무 것도 모르는 창덕이의 명랑한 눈과 마주칠가 저어하며 먼길 떠나는 아들을 차려 주는 어버이의 심정으로 신끈에서 내의 단추에 이르기까지 차근스레 보살펴 주고 헤여졌다.

그는 중대장의 초막에 들어 와 누웠으나 끝내 편한 잠을 이루지 못 하였다.

(창덕이가 연약한 몸으로 고된 행군을 능히 이겨 나갈가? 어느 때 가서 내 입으로 그에게 그리운 어머니가 원수들에게 무참히 학살 당한 사실을 말할 수 있을 것인가?)

(2)

간고한 행군의 과정에는 별의별 일이 다 많았다. 해종일 가도 가도 지긋지긋한 진창이요, 수렁과 혼돌레판이였다.

해로 무렵이여서 겉만 녹았을 뿐이지 바닥

에는 룹날 세운듯한 살얼음이 뿌죽뿌죽 솟아 있어서 대원들의 발과 다리는 찔리고 핡키우고 하여 피가 터졌다. 게다가 물은 얼음 그대로 차서 무릎까지는 절맥이 되였다. 그러다가 혼불떼판을 디디고 올라 서면 배를 탄 것처럼 앞뒤가 태산 같이 일어 서고 자칫 잘못하여 헛다리를 짚는 날에는 죽음이 아가리를 벌린듯한 깊이 모를 수렁에 영영 빠져 들어 가게 되는 것이였다.

대오에는 이미 식량이 바닥 났고 환자들이 하나 둘 늘어 갔다. 그러나 한 덩어리로 뭉친 백여 명의 대원들은 원수를 쳐부시는 기세로 이 난관을 억척스레 뚫고 나갔다. 비상한 동지애와 바위처럼 드팀 없는 신념이 그들로 하여금 만난을 물리치고 앞으로 나가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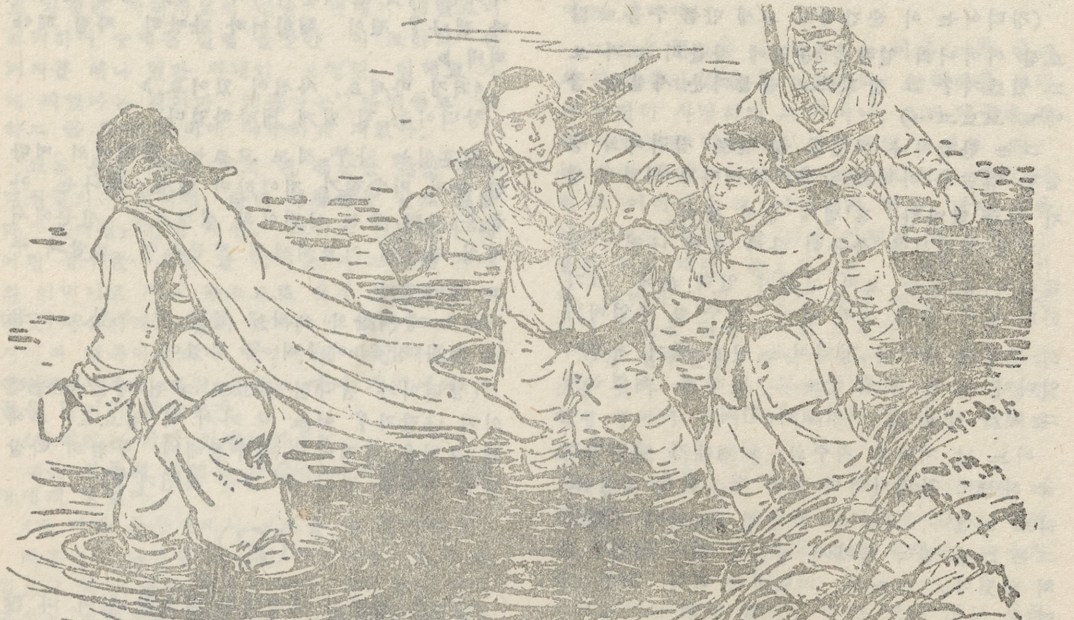
태훈이는 길다란 중대의 선두에서 뒤끝까지 오고 가며 지친 대원들을 이끌어 주었다. 모두들 묵묵히 걸었으나 그만은 쉴 줄 모르는 정력을 가지고 재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대원들은 그의 이야기가 모르는 사이에 자기들로 하여금 피로와 고통을 잊어 버리게 하기 위함인 줄은 몰랐다. 그러면서도 대원들은 항상 지칠 줄 모르는 태훈이에게서 무한한 인간의 힘과 의지를 보며 그것을 본받으려고 애쓰게 되는 것이였다.

이러하여 어느 날 저녁 그들은 만리 창해 속의 섬과도 같은 작은 모래톱 우에 올랐다. 이 곳에서 행군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당회의가 열렸다. 10여 명의 공산당원들이 모여 앉아 다가 오는 난관과 수림을 이기고 돌파하기 위하여 홰'불처럼 앞장에 설 것을 결의하였다.

그런데 회의가 끝난 후 밤이 이슥하여 태훈이에게로 창덕이의 분대장인 김 반장이 찾아 왔다. 원체 마음이 어질고 용한 사람인 그는 태훈이의 곁에 다가 앉더니 한동안 머뭇거리며 아무 말도 꺼내지 못 하는 것이였다. 그래서 태훈이는 김 반장이 찾아 온 까닭을 자기 속으로 짐작해 보았다.

(중대장의 토론이 너무 야속했던가 보지. 실상 그가 좀 과격했어. 류 동무가 뒤따라 오다가 헛다리를 짚어 수렁에 빠져서 행군 대렬에 혼란을 일으키고 시간을 지체시킨 것을 중대장만은 참지 못 해서 분대장이 제 구실을 못 한다고 화풀이를 하고 말았으니…김 반장이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닌데…중대장에게 조용히 충고를 해야겠다.)

그래서 태훈이는 《지도원 동지!》하고 불러 놓고도 입을 떼지 못 하는 김 반장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중대장을 오해해서는 못 쓰네. 그는 지금 독립 임무를 수행하는 우리 중대를 지휘하고 있는 장관이 아닌가! 그럴수록 중대장을 받들고 그의 심정을 잘 리해해 드려야 하지 않겠소?》

그러자 김 반장은 놀라듯 태훈이의 무릎을 그러쥐며 황급히 말하였다.

《지도원 동지, 저는 그런 말을 하려 온 게 아닙니다. 류 동무가 빠진 것은 제 잘못입니다. 저는 그보다 더한 비판을 받아도 마땅합니다. 저는 그의 상관이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소?》

《저…창덕 동무가 기운을 쓰지 못 합니다. 그러면서도 동무들이 도와 주면 화를 내고 뿌리칩니다.》

《그래 꾸지람을 했소?》

《아닙니다. 동지애를 그렇게 대해선 안 된다고 타일렀습니다. 그리구 불을 피워서 신도 말려 주고 언 발도 녹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창덕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김 반장의 손을 찬찬히 살펴보니 그 손은 온통 피투성이가 되고 말았다. 그는 불 피울 나무가 없어서 마른 꼬지깨(가시 돋힌 야생초) 등거리를 뜯어 내느라고 손이 터지고 모지라진 모양이다.

태훈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자기 배낭 뒤'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토끼털 토시를 내주었다.

《이걸 가져다가 삶아 주오. 창덕이는 배탈이 있어서 시장'기가 심하면 속이 쓰려서 참기 어려울 게요. 그리고 절대루 꾸지람해서는 안 되오. 타이르고 고무해 주어야지…어린 사람이 그 만큼 이기는 것도 용치 않소!》

《알았습니다. 그런데 토시는 넣어 두십시오. 이런 건 제게두 있습니다. 그리구 방금 중대장 동지께서 도래기신을 벗어 놓고 가셨습니다. 가죽을 뜯어서 삶으면 먹을 수 있다고요…》

《중대장이 도래기신을?》

태훈이는 놀란 어조로 되물었다.

《안 되오. 신 없이 맨발로 어떻게 가겠소. 이걸 가지고 가오. 그리고 신발은 꼭 돌려 드려야 하오.》

때로 과격한 성미이기는 하나 진심으로 대원들을 사랑하는 중대장의 그 어버이다운 마음씨에 태훈이는 다시금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이였다. 그러면서 그는 대원들의 사정에 더 밝고 그들을 더 잘 보살펴 주어야 할 정치 지도원인 자기가 그러지 못 한 것이 몹시 가슴 아프게 느껴졌다.

김 반장은 토시를 받아 가지고 돌아 갔다.

태훈이는 그를 돌려 보내 놓고도 기운을 못 쓰는 창덕이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이 무거웠다.

(그에게 어머니의 이야기를 벌써 해 주었어야 하지 않았을가? 아니다. 아직은 그를 추세워 줄 수 있다. 지금에 와서는 실지로 나 자신이 그의 어머니가 되여야 하지 않는가!)

한편 창덕이는 모래톱 우에 배를 움켜 쥔 채 새우 모양으로 누워 있다가 분대장이 흔드는 바람에 정신을 가다듬었다.

《창덕이, 이걸 좀 먹어 보게. 기막힌 고기'국일세!》

창덕이는 권고에 못'이겨 일어 나 앉았다.

김 반장은 미리부터 창덕이가 혼자 먹지는 않으리란 것을 알고 제가 먼저 본보기로 국물을 한 술 떠서 꿀떡 넘기였다. 창덕이는 허기'증이 지나친 뒤라 구수한 냄새를 맡자 그만 배 안이 푸들푸들 뛰는 것 같았다. 그는 다가 앉아 밥통을 들여다 보았다.

《이건 뭡니까?》

《토끼 고길세.》

《어디서 생겼나요?》

《그런 건 묻지 않는 법이야…》

《동지들이 모두 굶었는데 왜 저만 자꾸 먹이는 겁니까?》

《별 쓸 데 없는 걱정을 다 하는군. 어서 먹어 보라니!》

그러나 밥통 안에서 부풀어 똘똘 말린 가죽 우에 작은 빈침이 그 대로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창덕이는 깜짝 놀라서 입을 다문 채 돌아 앉고 말았다.

(지도원 동지의 가죽 토시! 내가 저걸 어떻게 받아 먹을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오히려 분대장이 원망스러웠다. 엄동설한 행군할 때에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어도 팔목만은 모르는 사이에 가락지처럼 뺑 둘러 동상을 입는 것이였다. 그래서 지도원이 집을 떠날 때 늙으신 어머니가 정성 들여 만들어 주셨다는 토끼털 토시! 그것이 인제는 낡고 털이 빠졌다고 녀대원들이 새것을 만들어 주어도 바꾸지 않고 끝내 애지중지 간직해 오지 않았던가!

그리고 또 바로 저 토시가 몇 번이나 겨울 밤 잠든 사이 나의 언 손과 발을 감싸 주고 덥혀 주었던가!

《배 아픈 사람이 손발을 차게 굴어서 쓰나?》

거절하는 것을 이렇게 딸막던 그 때의 그 나직한 목소리가 아직도 귀'가를 울리는듯 하였다. 창덕이는 이 이상 무기력한 자신을 용서하거나 그냥 둘 수 없었다. 더는 동지들과 지휘관들의 마음을 쓰리게 하고 싶지 않았으며 죽는 한이 있드라도 그것만은 받지 않으려라고 속다짐하였다. 이것이 그에게는 발의 상처나 창자의 아픔보다 몇 곱절 더 고통스러웠던 것이다.

(3)

낮게 뭉개치는 구름 밑으로 진눈까비가 내렸다. 그 때문에 찰진득 같은 혼들떼판은 발을 옮겨 딛기도 힘들게 뒤범벅이 되고 미끄러워졌다.

창덕이는 혼들떼판에 올라 선 다음에도 정갱이까지만이 제 살이고 그 아래는 몽둥이라도 매 달린듯한 느낌 뿐, 전연 감각을 잃었다. 그는 한 걸음 옮겨 디딜 때마다 젖 먹은 힘까지 짜내려고 이를 악물었으나 진펄판은 그 발'길을 휘감아 잡고 허질기게 놓아 주지 않았다. 그에게는 오직 보이느니 내려 드리운 비'발이요, 검은 구름 뿐이였다. 그것은 마치도 자기의 무거운 중압으로 창덕이의 머리를 지지누르면서 죽음의 수렁 속에 박아 넣고 말려는듯 하였다. 그는 온 몸의 힘을 짜내여 간신히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옮겨 놓았다.

어느 경기 사수가 그 무거운 기관총을 어깨에 메고도 그의 한 팔을 이끌어 주었다. 그러나 창덕이는 그의 손목을 뿌리치고 노여운 눈초리를 보내며 중얼거렸다.

《사수가 앞서 가진 않구…》

그러자 사수는 입술을 감물며니 진창을 튕기면서 씨근거리고 앞으로 나갔다. 아마도 그는 어린 대원의 뜻밖의 울리뭔잔이 가슴에 맺히면서도, 뛰나는 어려움 속에서도 굴할 줄 모르는 그 강기가 몹시 대견했던 모양이다.

창덕이는 남은 기운을 다 짜내여 발을 옮기였으나 한 걸음 한 걸음 점점 떠질 뿐이였다.

조금 후 이번에는 정치 지도원이 다가 오며니 등으로 그의 앞을 가로 막고 서서 말하였다.

《업히게!》

그러나 창덕이는 입을 다문 채 기를 쓰고 고를 한옆으로 밀쳐 버렸다. 지도원은 몇 걸음 비츨비츨 밀려 나가더니 현기'증으로 하여 눈앞이 핑그르 돌아 가는듯 이상스럽게 얼굴을 감싸쥐고 그만 말뚝처럼 서 버리고 말았다.

이 때 지도원의 등을 떠미는 바람에 비틀거리며 미끄러지던 창덕이는 갑자기 발목, 종'다리, 무릎으로 진창이 스며 드는 것을 느꼈다. 수렁에 빠진 것이였다.

그는 혼들떼판이 문득 가슴에 닿았을 때 자기가 심연 속으로 빠져 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비로소 정신이 확 들어 거기에서 빠져 나오려고 모대기를 쳤다. 그러나 애를 쓰면 쓸수록 한 치 한 치 더 깊이 빠져 들어 갈 뿐이였다.

마침내 그는 맥을 잃고 말았다.

그는 다른 동지들의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 못 견디게 미안하여 대번에 누구를 불러서 구원을 청하고 싶은 본능적인 욕망을 억누르고 아래'입술을 피 터지게 깨물었다. 그리고 소용돌이치는 괴로움을 잊어 보려고 눈을 조용히 감아 버렸다.

좀 멀리 떨어져 뒤따르던 김 반장이 창덕이를 보자 엎어지고 딩굴면서 달려 오다가 바쁜 소리를 질렀다.

《지도원 동지!》

태훈이는 소스라쳐 놀라면서 홱 돌아 쳤다. 몽 뒤 두어 걸음 밖에서 혼들떼판이 벌어지는 틈새기로 창덕이가 눈을 감고 빠져 들어 가지 않는가! 그는 번개 같이 달려 들어 창덕이의 멀미를 그러잡았다. 그리고 모로 번디디고 재쳐지면서 잡아 당겼다. 뒤미처 온 김 반장이 질겁한 뒤라 모두숨을 내쉬더니 파랗게 질린 얼굴로 창덕이의 등을 가볍게 쥐여 질렀다.

《고집쟁이 같으니라구…》

그리고는 성한 사람처럼 창덕이를 손쉽게 둘쳐 업었다.

창덕이는 김 반장의 아귀 센 손에 두 팔목을 잡힌 채 얼마 동안을 업혀 갔다. 그리하여 저녁 무렵 또 하나의 작은 모래톱에 나서자 휴식이 선포되였다.

태훈이는 대원들의 배낭과 주머니를 뒤져 내여 도토리 다섯 알을 얻었다.

《창덕이, 이걸 깨물어 봐. 그리고 정신을 차려야지!》

그러나 창덕이는 안'간힘을 쓰고 일어 나 앉으며 태훈이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 보았다. 구리로 부은듯한 지도원의 모난 얼굴은 진창 바람에 찌들어 갈라 터지고 주림을 이겨 내느라고 분 입술에는 피'자국이 맥맥하였다. 그러면서도 힘을 내여 일어 나 앉는 자기를 바라볼 때 그의 얼굴엔 얼마나 행복스러운 미소가 물'결치며 피여 나는가!

《창덕이, 왜 아까 진작 소릴 지르지 않았나?》

《전 정말이지 동지들을 괴롭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구김'살 없는 마음을 가진 창덕이는 메마른 목소리로 비롱하게 부르짖었다.

《그래서 남 몰래 눈을 감고 들어 갔단 말이지?》

순간 태훈이는 코'마루가 찡하였다. 한참 후 지도원은 생각하였다.

(고난을 박차며 꽉꽉 짓밟고 나가지 못 하고 그 시련에 눌려서 못 일어 나다니! 나는 대원들을 이렇게 밖에는 교양하지 못 했단 말인가? 공산당원이며 정치 일'군인 내가…)

그는 통절함에 가슴을 쥐여 뜯고 싶었다.

그러나 그 어떤 일이 있다 해도 승리의 신념을 잃어 본 일 없는 자기가, 공산주의자며 정치 일'군인 자기가 바로 이와 같이 귀중한 대원을 이렇게 잃어 버릴 번 했다고는 하늘이 무너진대도 믿고 싶지 않았다.

(그로 하여금 알게 하자. 어머니가 처참하게 학살 당하시면서 무엇을 바랐던가를! 그리고 그의 가슴에 힘을 안겨 주고 더 큰 불'길이 타 오르게 하자!)

그리하여 태훈이는 창덕이의 두 어깨를 억세게 잡아 흔들며 속삭이듯 말하였다.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넘어져서는 안 된다. 너는 어머니가 어떻게 돌아 가신 줄 알고 그러느냐?》

태훈이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던 창덕이는 소스라치며 얼굴을 번쩍 들고 지도원을 뚫어지게 바라 보며 웨쳤다.

《아니,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되셨게요?》

《용서해 다우. 난 여태 널 속여 왔다. 네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걸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었겠느냐 말이다! 그러나 이젠 이야길 해야겠다.…》

태훈이는 창덕이의 눈'길을 피하여 먼 하늘을 바라 보며 다만툰의 사건을 자세히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태훈이의 호흡은 어느덧 무거워지고 두 눈은 적개심으로 이글거리기 시작하였다.

《너의 어머니는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이렇게 웨치셨단다.



〈창덕아, 이 에미 원수를 꼭 갚아 다오!〉》

태훈이의 말은 끊어졌다. 두 뺨에 눈물을 흘리며 이를 뿌드득거리며 듣고 있던 창덕이는 마침내 얼굴을 감싸쥐고 비통하게 웨쳤다.

《어머니!》

그의 어깨는 세차게 들먹거렸다. 태훈이가 투툼한 손'바닥으로 창덕이의 등을 어루만지며 목멘 소리로 타이르기 시작하였다.

《울어선 안 된다. 원수들을 모조리 때려 없애는 날까지 눈물을 흘려선 안 돼!

넌 넘어져서도 안 된다. 싸워 이겨서 편지에 쓴 것처럼 참으로 장한 아들이 되여야 한다. 원수를 갚고 어머니의 원을 풀어 드려야 하지 않느냐! 우리가 만약 여기서 쓰러진다면 일제놈들은 수 많은 조선의 어머니들을 또 참혹하게 죽일 것이다. 혁명을 위해서 나선 우리는 제 마음 대로 죽을 권리가 없다.

오직 원수들을 무찌르고 조선 혁명이 승리하는 그 날까지 모든 어려움을 이겨 내고 싸우고 또 싸워 이겨야 한다.

가슴 속에 태양을 지녀야 한다. 어떠한 먹장 구름도 가리지 못 하는 붉은 공산주의 태양을 말이다. 그 태양을 가슴 속에 지닌 혁명가들은 어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으며

락심할 줄 모르는 법이라고 사령관 동지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량 손에 얼굴을 묻고 묵묵히 들으며 점차 마음을 가라앉힌 창덕이는 마침내 고개를 번쩍 들고 태훈이의 어깨 너머 먼 곳을 번쩍이는 눈으로 바라 보기 시작하였다. 태훈이는 창덕이의 두 어깨를 꽉 움켜 잡고 더욱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창덕아, 비록 어머니는 돌아 가셨지만 우리들이 있지 않니?》

《아닙니다. 우리 어머닌 돌아 가시지 않았습니다.…》

창덕이는 알릴듯 말듯 도리질을 하였다. 그러다가 불'길이 타 오르기 시작한 두 눈으로 태훈이를 마주 바라 보며 끝내 웨치고 말았다.

《살아 계십니다. 어머닌 지금 내 어깨를 잡고 마주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는 성벽 같이 드팀 없고 넓은 태훈이의 가슴에 열 오른 얼굴을 와락 파묻었다.

이윽하여 창덕이는 진흙 묻은 주먹으로 눈물을 딱 씻고 먹장 구름이 처들린 서편 하늘 밑으로 불 타기 시작한 진분홍색 저녁 노을을 바라 보았다. 태훈이도 그 쪽으로 눈을 돌리다가 문득 지평선 우에 나타난 거무스레 보이는 구릉 지대를 발견하였다.

《저기 보인다!》

태훈이가 이렇게 웨치는 순간 중대장 이하 전체 대원들과 함께 창덕이도 격랑처럼 일어나는 흥분을 안고 벌떡 일어 섰다. 그리고는 마음 속으로 그 웨침을 되받았다.

(저 노을 속에 태일의 빛나는 승리가 보인다. 진창도 이젠 끝날 것이다. 노을이 지고 이 밤이 또 밝으면 붉은 태양이 솟아 오를 것이다!)

창덕이는 언제까지나 그 쪽을 바라 보며 가슴을 울렁이였다. 그의 어깨를 껴안고 역시 붉은 노을을 황홀히 바라 보고 있던 태훈이는 더욱 힘 있게 창덕이를 끌어 안으며 말하였다.

《창덕아, 저 앞에서 김 장군이 웃으시며 우릴 손'짓하여 부르시는 것 같구나!》

《지도원 동지, 저도 바로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늘 끝까지라도 한달음에 달려 갈듯 억세여진 마음으로 창덕이는 힘 있게 말하였다.

생활의 거울

처녀 운전수의 아름다움

평양시 제 4 화물 자동차 사업소의 처녀 운전수 김 연옥 동무가 운전하는 《승리》형 화물 자동차는 3년 간이나 한 건의 사고도 없이 15만 키로 메터를 달렸다.

1961년에 자동차 운전수 양성소를 나오고 첫 조형간을 잡은 때 지나지 않은 그가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15만 키로를 달렸다는 것은 실로 경탄할만한 일이다.

《비결》은 어데 있는가?

그것은 연옥 동무가 남달리 차를 사랑하고 잘 관리하기 때문이였다.

어느 비 오는 날이였다. 그는 이 날도 100여 리나 되는 먼 곳에 가서 도시 미화에 쓸 잔디를 세 번이나 운반해 오고 밤 늦게야 사업소에 돌아 왔다. 밤은 자정을 훨씬 넘었건만 그는 잠'자리에 들지 않고 진탕길을 달려온 차를 계속 물로 깨끗이 씻고 있었다. 그와 함께 일하는 동무들이 말했다.

《연옥 동무, 자동차는 래일 아침 씻을 셈하고 어서 세수나 하고 좀 눈을 붙이자구.》

이 때 연옥 동무는 생긋이 웃으며 대답하였다.

《제 얼굴은 어지럽다고 세수를 하면서 자동차는 어떻게 그냥 두겠어요.》

그의 말에 가슴이 찔려서 세면장으로 가던 동무들까지 슬그머니 돌아 서서 차를 다 씻고야 말았다.

그는 자동차의 운전실이나 후렌다에 오를 적에는 언제나 흰 눈처럼 새하얗게 씻은 걸레에 깐깐히 신발을 문지르고 오르군 하였다. 그러면서 자기보다 더 어린 운전수들에게는 이렇게 타이르군 하였다.

《흙이나 모래 묻은 발로 차에 그냥 오르면 자동차에 칠한 락카가 벗겨질 수 있어요. 만일 우리 얼굴에 조그마한 상처라도 나 보세요. 얼마나 쓰리고 아프겠어요.》

그는 어느 건설장이나 주택 구역을 달리다가 조그마한 나사못 하나를 보아도 주어서 정침히 닦아서 건사하군 하였다. 그래서 그의 커다란 공구함에는 작업반 동무들의 표현 대로 말하면 고양이뿔을 내놓고는 다 있었으며 어떤 부속품은 근 반년 분씩 앞세워 가지고 다니군 하였다.

생산 문화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처녀는 운전실 안에 카텐을 둘러 치고 철 따라 색색 꽃을 꺾어다 장식했으며 차체는 날이 갈수록 《새 차》로 변해져 갔다.

그의 사상을 알려거든 그의 제품이나 기대를 보라는 말이 있다. 남달리 차를 사랑하고 사업을 사랑하는 연옥 동무는 금년 상반년 계획도 지난 5월 20일에 빛나게 완수하였다.

(본사 기자)

전투 실화

불타는 적개심을 안고

공화국 영웅 조 현 구



1950년 7월 5일

우리 근위 제 18 보병 련대는 패주하는 적들에게 숨 쉴 틈을 주지 않기 위해 오산 방향으로 강행군을 하고 있었다.

행군 도중에 우리가 본 모든 처절한 광경들은 원쑤에 대한 우리의 증오심을 한 없이 불타게 하였다.

적들이 패주하면서 불 질러 놓은 마을들과 집들, 폭격에 뒤집힌 야산들과 논밭들, 놈들의 총탄에 쓰러진 부모 형제들, 이 모든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조국에 대한 한 없이 커다란 병사의 책임감을 불러 일으키였다. 우리는 한 시 바삐 더 많은 원쑤들을 격멸 소탕하기 위하여 걸음을 다그치였다. 우리는 밤새 100여 리 길을 강행군 해 왔건만 누구 하나 피곤해 하는 기색이 없었다.

우리가 오산에서 얼마 멀지 않은 한 지점에 이르렀을 때였다. 나는 중대장으로부터 척후 분대의 임무를 수행하라는 새로운 명령을 받았다. 중대장은 엄숙하고도 부드럽게 말했다.

《이제부터는 개활 지대요. 그런 것 만큼 경각성을 높여야 하오. 만일 개활 지대에서 적들과 불의에 맞다 들게 되면 지형 상 우리에게는 매우 불리하오. 그러니 동무네 분대는 척후 분대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적들과 조우하는 경우에 중대가 재빨리 전투를 할 수 있게 놈들을 견제해야 하겠소…》

지휘관이 주는 명령—그것은 곧 조국의 명령이다. 나는 새롭고 영예로운 전투 임무를 받은 것으로 하여 가슴이 높이 뛰였다. 나는 중대장 동무에게 대답하였다.

《알았습니다.》

…이윽하여 우리 분대는 만단의 전투 준비를 갖추고 행군을 시작하였다.

우리가 오산에서 약 5 리 가량 못 미쳤을 때였다. 갑자기 요란한 총성이 들려 왔다.

우리는 급히 땅에 엎드려 전방을 예리한 눈초리로 살폈다. 우리 앞에는 나지막한 고지가 있고 그 곳까지의 거리는 약 500 메터 가량 되였는데 그 어간은 개활 지대였다.

나는 그 고지가 지도에 표시된 112 고지라는 것과 갑자기 들려 온 총성은 바로 그 고지에서 놈들이 우리를 향해 쏜 것이라는 것을 대뜸 짐작하였다. 정황은 긴급하고 불리하였다.

나는 분대원들에게 신속히 개활 지대를 돌파할 것을 명령하였다. 우리는 논'뚝을 리용하면서 약진해 나갔다. 적들의 총탄은 쉴새 없이 우리의 귀밑을 스쳤다. 그러나 우리는 날쌔게 맞은편 산 밑에 다가 붙었다.

우리는 이 때 우리 앞에 있는 놈들이 바로 미제 양캐놈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였다.

이 때 우리의 가슴 속에 끓어 오르는 증오심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으랴!

후에 안 일이지만 리 승만 괴뢰군이 총 붕괴되자 미군 제 24 사단을 비롯한 양깨놈들이 전신으로 나오다가 아군의 질풍 같은 공격에 겁을 먹고 여기에서 급속히 방어로 이전한 것이였다.

—우리 나라를 삼키려고 100 년 전부터 침략의 마수를 뻗쳐 온 야수들, 강도 일제를 비호하여 우리 조국을 강점케 한 놈들, 해방 후에는 남조선 땅에 기여 들어 우리 인민을 치욕과 모멸 속에 신음하게 한 야수들, 우리는 바로 이 놈들과 총칼을 맞대고 첫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총창은 분노로 하여 서리'발을 뿜었고 우리의 가슴은 증오로 하여 치를 떨었다. 침략자 놈들을 한 놈도 살려서 돌려 보내지 않으리라! 이런 생각이 가슴 속에서 소용돌이 치기 시작하였다.

우리가 적들의 고지 밑에 엎드리고 있을 때 중대는 벌써 전투 서렬을 전개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때 적들의 중기 화점에서 맹렬한 불'줄기가 쏟아져 나왔다. 나는 중대의 공격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 중기 화점을 까부실 것을 결심하였다.

부분대장 김 용남 동무에게 엄호 사격을 하게 한 다음 나는 한 치 한 치 적 중기에로 접근하였다. 약 20 메터 거리까지 접근한 나는 그 놈의 가증스러운 중기를 겨누고 수류탄을 힘껏 뿌렸다.

《꽝!》

요란한 폭음과 함께 중기관총 옆에 있던 한 놈의 양깨는 나자빠지고 다른 한 놈의 양깨는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쓰러졌던 놈이 악을 쓰며 일어 나더니 중기관총 총구를 나에게로 돌리지 않는가!

(내가 만일 저 놈을 먼저 죽이지 않으면 저 놈이 나를 먼저 죽일 것이다!)

나는 번개처럼 달려 들어 그 놈의 가슴팍을 힘껏 찔렀다. 키가 구척 같은 양깨놈은 괴상한 짐승 소리를 지르며 허공을 허비면서 쓰러지였다. 련'이어 나는 옆으로 도망치려는 놈도 뒤 따라 가 죽쳐 버렸다.

남의 나라를 침략하려고 기여 든 침략자들은 제 아무리 힘과 《기술적 우세》와 《강대성》을 떠벌리여도 정의로운 싸움에 일떠선 조선 청년들의 총창을 결코 막아 내지 못할 것이며 그 앞에 복수의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나는 이런 신념으로 원쑤들과 싸웠다.

나는 계속 고지의 릉선에 있는 적들을 소멸하기 위하여 다복솔 사이를 빠져 은밀히 놈들에게 접근하였다. 그리고는 아군의 많은 력량이 고지에 접근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네 개의 수류탄을 연거퍼 이 곳 저 곳에 뿌렸다. 불의에 수류탄 벼락을 맞은 놈들 속에서는 련'이어 비명이 들렸고 큰 혼란이 일어 났다. 그야말로 육박 전투로 적을 소멸하기에는 절호의 기회였었다.

나는 다시 전호에 뛰여 들어 키꺽다리 양깨놈들을 찌르고 또 찔렀다. 그 중에는 양깨의 소대장 놈도 있었다. 나의 뒤를 따라 온 다른 분대원들도 종횡 무진으로 놈들을 찔러 눕히고 있었다. 모두가 일당백의 기세로 놈들과 싸웠다. 심지어 중대에 갓 편입된 나어린 김 익현 전사조차 자기보다 훨씬 큰 양깨놈들을 날쌔게 찔러 눕히고 있었다.

그야말로 112 고지는 미제 고용병들과의 가렬한 결전장으로 변하였다. 조국 땅에 기여 든 오만한 침략자의 노예로 되느냐, 싸워서 승리하여 영원한 이 땅의 주인이 되느냐 하는 판가리 싸움에서 우리들은 초인간적인 힘을 발휘하였다.

우리의 뒤에는 장대한 조국의 땅이 있으며 우리의 앞에는 원쑤들의 학정과 만행 속에서 신음하는 미해방 지구의 인민이 있다. 어찌 신성한 조국 땅을 한 치인들 야수들에게 짓밟히울 수 있으며 날마다 피흘리며 쓰러지는 수많은 남녘 땅 형제들을 한 시인들 그냥 둘 수 있을 것인가!

적아 간의 총창은 공중에서 부딪쳐 날카로운 불꽃을 튕쳤고 《악악》하는 함성은 고지를 진감하였다. 우리의 날카로운 총창은 한 번도 목표물에서 빗나가지 않았고 우리가 딛고 선 조국 땅도 우리와 함께 힘을 쓰는 것만 같았다. 우리는 순식간에 양깨 20 놈을 찔러 눕혔다.

그러나 싸움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릉선보다 더 높은 릉선에는 아직도 약 한 개 소대 가량 되는 적들이 발악하고 있었다. 놈들을 마저 소탕하여야만 하였다.

나는 부분대장 김 용남 동무로 하여금 대원 2 명과 함께 고지의 익측으로 공격케 한 다음 김 익현 동무 외 몇 동무를 데리고 적의 정면으로 감쪽같이 접근하였다. 그리고는 수류탄을 뿌리며 적 전호 속에 뛰여 들었다.

순간 나는 머리에 강한 충격을 받고 넘어졌다. 적탄에 부상을 당했던 것이다. (양깨놈들을 다 소멸하지 못 하고 쓰러지다니…원 안 될 말이다. 죽어도 놈들을 모조리 격멸한 후에 죽어야 한다.)

나는 이를 악물고 가까스로 몸을 일으키였다. 그런데 이 일을 어찌하랴! 총가목이 부러져 있지 않는가! 순간 나의 가슴은 분한 생각으로 터지는 것만 같았다.

(총이 없으면 주먹으로, 수류탄으로라도 양깨놈을 죽쳐야 한다.)

나는 마지막으로 남은 오직 하나의 수류탄을 뿌려 앞에 있는 양깨 세 놈을 단꺼번에 하늘로 날려 보낸 후 전호 바닥에 널려 있는 적들의 엠원총 한 자루를 집어 들고 원쑤놈들을 맞받아 나갔다.

이 때 부분대장 김 용남 동무가 인솔하는 대원들이 만세를 부르며 적들의 배후로 달려 들었다. 때문에 적들은 아군의 많은 력량이 우회하여 공격해 오는 줄로만 알고 일제히 그 쪽으로 총구를 돌렸다. 나는 때를 놓치지 않고 김 익현 동무와 함께 양깨놈들의 뒤통수를 후려 갈겼다.

앞뒤에서 공격을 받게 된 양깨놈들은 제 놈들끼리 뒤어라고 아우성치며 연거퍼 쓰러졌다. 우리는 전호에서 전호로 뛰여 넘으며 놈들을 찌르고 또 찔렀다.

육박전이 있은 지 수십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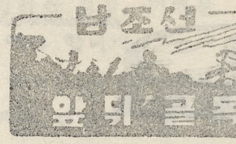
중대는 112 고지를 단숨에 점령하고 만세를 높이 웨쳤다. 우리 분대는 이 전투에서 60 여 명의 미제 양깨놈을 살상 포로했으며 나는 총창으로만도 열 일곱 놈의 양깨를 찔러 죽였다.

고지에는 놈들의 더러운 시체가 너저분히 널려 있었다. 그것은 오만한 침략자들의 응당한 말로이기도 하였다.

우리는 미제 양깨놈들과의 첫 싸움에서 승리한 기세로 놈이 련'이어 오산을 해방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부대는 미군 24 사단의 선견 대대와 105 밀리 포 대대를 거의 소멸하는 빛나는 전과를 거두었다.

이것은 그대로 펜타곤의 살인 장군들이 《상승 사단》이라고 호언 장담하던 미 24 사단의 궤멸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우리는 바로 이렇게 원쑤 미제 침략자들을 쓰러눕혔다.



죽어 가는 자의 발버둥질

서울 시내 대학생들이 문리과 대학 교정에서 박 정희의 이른바 정치 강령인 《민족적 민주주의》의 《장례식》을 치른 다음 날 《사건 진상을 보고하라》는 야당파의 성화에 못'이겨 국회에 불려 간 국방 장관은 하도 기가 막혔던지 하라는 증언은 못 하고 《교서에도 없는 장례식을 지냈으니 학생들이 도대체 우리를 어데로 끌고 갈 작정인지 모르겠소.》라고 푸념만 늘어 놓았다.

청년 학생들이 진행한 장례식이 박 정희 도당에게 정치적 사형 선고를 내리고 그들을 무덤으로 끌고 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쯤은 구태여 론리학의 원리를 풀지 않아도 누구에게나 명백한 사리여서 새삼스럽게 그것을 반문하는 것부터가 우선 어리석다고 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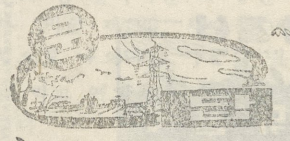
그런데 박 정희도 뜬 눈으로 《매장》 당한 것이 어지간히 비위에 거슬렸던지 다음 날 청년 학생들의 대렬 내에 박아 넣은 자기들의 앞잡이들을 시켜 이른바 《민족적 민주주의 부활제》라는 행사를 꾸미려던 사실이 후에 드러났다.

이러한 괴이한 책동은 격분에 찬 청년 학생들의 반격을 받고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지만 설사 이 가소로운 광대놀음이 진행되였다고 해도 그것으로 저들의 가련한 신세를 구원하기에는 너무나도 때가 늦었다.

왜냐 하면 그들은 이미 정치적 송장이 되여 버림을 받았는데 되살아 나 보려고 발버둥질을 쳐도 그것은 부질 없는 노릇이요, 오히려 썩은 냄새만 더 풍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리 승만—날찌도 사나우니 미리 내려 오는 것이 어때?



농촌에서의 사상 혁명

문: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김 일성 동지는 사회주의적 협동화가 완성된 후에도 사상 혁명, 기술 혁명, 문화 혁명을 강력히 추진시킬 데 대한 과업을 제기하시였습니다. 농촌에서 사상 혁명이란 무엇입니까?

답: 그것은 농민들 속에 아직 남아 있는 온갖 낡은 사상 잔재를 없애고 그들을 선진적인 로동 계급의 사상으로,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문: 우리는 테제를 학습하면서 농촌에서 사상 혁명, 기술 혁명, 문화 혁명이 병행해서 진행되여야 한다는 것을 배웠으며 그 중에서도 사상 혁명이 먼저 수행되여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왜 그럴까요?

답: 그것은 첫째로 협동화 이후에도 농촌에서 계급 투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협동화 이후에도 농촌에서는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적대 분자들과 이미 전복된 잔여 분자들을 반대하는 계급 투쟁은 계속됩니다. 농민들의 의식 속에 남아 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청산하고 그들의 계급적 각성을 높여 주고 그들 모두가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될 때에만 사회주의 제도를 공고히 할 수 있으며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사회주의 전취물을 끝까지 수호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농민들의 자각적인 열의를 높이기 위해서도 그것은 필요합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하여서는 강력한 물질 기술적 토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아다싶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 사람들의 열의가 높으면 높을수록 공산주의 건설은 더 빨리 더 성과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세째로는 농민들 속에 남아 있는 낡은 사상 잔재가 뿌리 깊다는 사정과 관련됩니다.

사회주의의 물질 기술적 토대가 마련되였다고 하여, 또한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날로 향상된다고 하여 그들의 의식이 스스로 개변되거나 공산주의 사상이 저절로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농민들의 머리 속에는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낡은 사상 잔재, 특히 소소유자적 근성이 깊이 박혀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매개 나라들은 례외없이 농민들의 사상 의식을 개변하며 모든 사업에 그것을 선행시키는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여야 합니다.

김 일성 동지는 테제에서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에만 치우치고 사상 혁명을 소홀히 하는 것은 엄중한 착오로 된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만일 사상 혁명을 등한히 하고 기술 혁명, 문화 혁명 일면에만 치우치게 된다면 농민들 속에서 개인 리기주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제도가 좋고 훌륭한 기계와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농사가 잘 될 수 없으며 사회주의 농업 제도의 우월성을 발양시킬 수 없습니다.

문: 그러면 농촌에서의 사상 혁명은 어떻게 수행하여야 합니까?

답: 우선 농민들 속에서 계급 교양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계급 교양을 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계급적 원쑤들에 대한 증오심을 가질 수 없으며 원쑤들과의 판가리 싸움에서 용감성과 견결성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확고한 계급적 관점을 가지지 않는다면 국내외 정세를 옳게 볼 수 없고 당 정책의 본질을 체득할 수 없으며 우리 제도의 우월성과 자본주의 제도의 반동성, 자기가 투쟁하는 목적과 의의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농민들 속에서 계급 교양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맑스-레닌주의 원리 교양과 밀접히 결합시켜 그것이 과학적 세계관을 확립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농민들 속에서 개인 리기주의와 소소유자적 근성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개인 리기주의는 농민들의 사회 경제적 처지와 관련하여 뿌리가 깊고 집요하며 사업과 생활에 미치는 범위와 후과가 큽니다. 개인 리기주의를 그냥 두고서는 농민들 속에서 계급 교양, 집단주의 교양, 로동에 대한 교양을 비롯한 공산주의 교양을 성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농민들의 낡은 사상 잔재를 없애기 위한 투쟁에서 개인 리기주의를 가장 중요한 투쟁 대상으로 인정하고 이를 반대하는 교양과 투쟁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또한 농민들 속에서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교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동은 인간 생활에 필요한 모든 재부를 만드는 담보이며 우리의 종국적 목적인 공산주의 사회도 역시 로동에 의해서만 건설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체 농민들이 로동에서 자각적인 열성과 헌신성을 발휘하도록 하며 로동에 더욱 성실하게 참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농민들 속에서 낡은 것을 반대하고 새 것을 지향하는 정신, 미래를 사랑하는 정신을 배양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직도 농민들 속에 남아 있는 씨족 관념과 문벌주의를 반대하며,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미래에 대한 희망과 승리에 대한 신심을 가지고 계속 전진, 계속 혁신을 일으키도록 하여야 합니다.

문: 김 일성 동지는 청년들이 농촌에서의 사상 혁명 수행에 앞장 서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답: 우선 청년들은 자신의 혁명적 수양을 강화하여 사상 혁명 수행에서 농장원들의 모범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청년들은 꾸준히 학습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보람찬 로동 속에서 자신을 부단히 단련하며 동맹 조직 생활에 적극 참가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전체 농촌 청년들이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실한 견결한 공산주의 혁명 전사로 자신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농촌 청년들은 농장원들 속에서 공산주의 교양을 강화하며 모든 사람들을 교양하고 개조하는 사업에 적극 참가하여야 합니다. 특히 청년들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 적극 참가하며 이 운동을 더욱 심화 발전시켜야 합니다.

끝으로 농촌에서의 사상 혁명을 강력히 전개하기 위하여서는 로동 계급의 적극적인 지원과 방조가 있어야 합니다.

로동 청년, 지식 청년들은 농민들 속에 일상적으로 들어가 그들에게 아직 남아 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극복하도록 도와 주며 그들을 당의 사상으로, 로동 계급의 선진 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특히 일상적으로 농민들과 같이 일하며 생활하는 농기계 작업소 내 청년들은 생산 현장에서 자신의 모범을 통하여 농민들을 로동 계급의 사상으로 교양하여야 합니다.



생활과 습관

박 충 배

습관에는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이 있다. 우리는 마땅히 좋은 습관을 조장 발전시켜야 하며 나쁜 습관을 버려야 할 것이다.

좋은 습관은 우선 생활에서 질서와 규률성을 가지게 한다.

일상 생활의 절도와 질서는 많은 경우 좋은 습관의 산물인 것이다.

주위 사물을 정돈하는 습관은 필요한 것을 어느 때나 손 쉽게 찾아 낼 수 있게 하며 생활을 질서 정연하게 만든다.

또한 약속과 규률에 대한 준수도 많은 경우에 습관 여하에 크게 달려 있다. 출근 시간이나 등교 시간 같은 간단한 것도 습관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극히 주의하지 않고서는 지각을 하기가 일수일 것이다.

습관은 로동과 학습에 대한 건전한 태도를 형성시키는 기초로 된다. 높은 숙련이 필요한 로동은 일련의 동작들을 습관적으로 수행할 것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로동 자체에 습관이 안 될 때에는 그것이 고통스러운 것으로 되며 결국은 로동에 대한 옳은 태도를 가질 수 없게 한다.

사소한 토막 시간까지도 유효하게 리용하여 학습하는 데 습관된 사람은 공부하지 않고 그냥 지나 가는 시간처럼 고통스러운 때가 없을 것이지만 반대로 학습에 습관되지 않은 사람은 학습하는 것이 매우 힘든 부담으로 될 것이다.

좋은 습관은 생활의 문화성을 높이고 고상한 도덕 품성을 가지게 한다.

청소와 정돈 같은 가장 초보적인 것도 습관이 되지 않으면 어지럽게 널어 놓기가 일수일 것이고 웃사람이나 동료들끼리 례의 범절을 지키는 것이 일상적인 습관으로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부담으로 될 것이며 실수하기 쉬운 것이다.

우리가 보통 인사성이 밝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례절을 지키는 것이 습관으로 되여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하는 말이다.

좋은 습관은 또한 사람들을 육체적으로 진전하게 한다.

걸음걸이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극히 간단한 것이지만 사람들의 신체 발육과 건강 상태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다. 하물며 규칙적으로 체조를 하고 체육을 하는 습관이 육체를 발전시킨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난치의 병에 걸린 사람이 규칙적인 생활 습성을 키움으로써 그 병을 고친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있다.

확실히 건전하고, 근면하고, 깨끗하고, 질서 있는 생활 습성과 고상한 언행들에 습관이 된 사람들의 생활은 항상 유쾌하고 즐겁다.

× ×

우리 생활에는 아직도 《나쁜 버릇》이라고 하는 시급히 버려야 할 그런 습관도 있다.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버릇, 나쁜 말 버릇 등은 다 생활을 거칠게 하고 무질서하게 하는 좋지 못한 습관들이다.

이러한 나쁜 습관들은 사실에 있어서 사회 생활에 많은 지장을 주게 되는 것이다.

그릇된 습관은 또한 생활에 비문화성, 비도덕성을 가져 온다. 라태한 생활 습관은 로동과 학습에 가장 큰 장애물로 되고 있다.

그릇된 습관은 또한 사람들의 건강을 파괴하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사람들의 건전한 발전을 장애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활에서 온갖 낡은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가지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며 투쟁하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버릇이니까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만 버릇이 돼서 그랬다.》고 자기 비판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나쁜 《습관》에 대한 용화이며 타협이다.

예로부터 《버릇은 붙이기 탓》이라는 말이 있다. 습관은 결코 선천적으로 타고 나는 것이 아니다. 습관이란 없다가도 생기는 것이고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 사람들에게 이러저러한 습관을 가지게 하는가?

× ×

습관은 무엇보다도 먼저 사람들의 사회적 생활 제 조건에 의하여 결정된다.

례를 들면 근로하는 사람에게는 로동이 하나의 습관으로 된다. 따라서 근면성은 근로 인민의 고유한 품성으로 되고 있다. 그러나 착취 계급에게는 라태하고 기생적인 생활이 고유한 습성으로 되고 있다. 바로 우리들의 생활 속에 아직 남아 있는 이러저러한 그릇된 습관들은 낡은 사회에서 물려 받은 저주로운 잔재인 것이다. 공부하기 싫어 하는 습관도 바로 착취 계급들이 우리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온갖 가능성을 빼앗고 무지 몽매하게 만든 낡은 사회의 저주로운 잔재이며, 비문화적이고 불결한 생활 습성도 바로 착취 계급들의 가혹한 착취 때문에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었던 데서 생긴 유습이다.

이런 낡은 습관들을 청산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며 그것은 심각한 사상 투쟁의 한 부분으로 된다.

천리마의 속도로 전진하는 우리의 현실은 매일 매 시각 이미 형성된 생활 습관과 생활 양식을 부단히 새로운 생활 습성으로 교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버릇이란 붙이기 탓이다. 문제는 우리가 자기의 매일 매일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나쁜 버릇을 결단성 있게 청산하고 쉬임 없이 좋은 버릇을 조장 발전시키는가 하는데 달려 있다.

우리는 좋은 버릇을 붙이기에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습관이란 사람의 사상, 감정, 생활에 대한 신념의 표현이다. 그러니 새 사회의 새 역군으로 자기를 수양하는 우리 청년들이 일체 낡은 습관을 쓸어 버리고 새롭고 좋은 습관을 보다 많이 소유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은 얼마나 당연한 일인가!



공기도 물에 녹는가?

물에 사탕이나 소금이 녹아 버리듯이 공기도 물에 녹는다.

일반적으로 물에 공기가 용해되는 정도는 물의 온도와 대기의 압력에 관계된다.

고체는 흔히 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녹는 량이 많아지지만 공기는 반대로 물의 온도가 높으면 그 용해량이 감소된다.

실험에 의하면 1 기압 하에서 섭씨 0°의 물 1ℓ에는 29.18 cm^3의 공기가 용해될 수 있는데 섭씨 20°에서는 18.68 cm^3 밖에 용해되지 않는다.

물 속에 사는 어류나 기타 동물들은 바로 이와 같이 공기가 물에 용해되여 있는 것 중에서 산소를 취하면서 살아 가는 것이다.

녀성 청년들의 언어 례절

박 수 영

조선 녀성들은 예로부터 그 성품이 아름답고 인사성이 밝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씨 또한 그지없이 맑고 아름다왔다.

이런 전통이 우리 시대 녀성 청년들 속에 훌륭히 이어지고 있음은 참말로 좋은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랑스러운 전통을 그저 자랑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우리의 생활 속에 문화의 해'빛이 찬란해지면 질수록 우리 시대 녀성들은 다른 모든 생활에서와 마찬가지로 언어 생활에서도 새 사회, 새 현실에 맞게 우리 나라 본래의 그것을 더 아름답게 더 잘 개화시키는 것이 마땅한 일일 것이다.

그러면 녀성 청년들이 언어 생활에서 지켜야 할 점들은 어떠한 것들인가?

우선 존경어를 잘 골라 써야 한다.

그가 어른이든, 아이이든, 그가 한집안 식구이든, 이웃이든 또 그가 그 어떤 낯 모를 사람이든 그들을 정숙히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면서 맑고 부드럽고 존경에 넘친 말을 쓰는 것은 조선 녀성들의 아름다움에 얼마나 빛을 뿌려 주고 있는가!

녀성들이 흔히 쓰는 말은 《좋아요》와 같은 것이다. 이런 말투는 퍽 친절한 맛을 안겨 주며 듣기에도 한결 부드럽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을 일률적으로 써서는 안 된다.

사회적 지위로 보나 나이로 보나 높이 존경해야 할 분들에게는 반드시 《좋습니다.》라는 말을 써야 한다. 때로 이런 분들과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주고 받을 때에는 《오겠어요》와 같은 말투를 쓸 수 있으나 될수록 《오겠습니다》, 《좋겠습니다》라는 말투를 쓰는 것이 좋다.

상대편이 조금 웃사람이거나 자기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보통 《좋아요》라는 말투를 쓴다.

녀성 청년들은 자기 아래'사람에게도 이런 높이는 말투를 쓰는것이 좋다. 아래'사람에게도 친절한 높임말을 쓰는 것은 예로부터 내려 오는 조선 녀성들의 좋은 전통이다.

그런데 일부 녀성 청년들은

《여기 오십시오》, 《여기 오세요》라고 말할 대신에 《여기 오라요》라고 흔히 말한다.

이것은 높이는 말을 잘못 쓴 례이다. 《오라요》는 상대편을 충분히 높이는 말이 아니라 녀동무들이 어린이들에게 쓸 수 있는 말이다.

또 일부 녀성 청년들은

《춘자 언니! 평양에 계시는 오빠한테 갔다가 언제 완?》 하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언어 례절의 측면에서 잘못된 말이다. 언니라고 부른 바에는 반말을 쓰지 말든지, 반말을 쓰려면 《언니》라고 부르지 말든지 둘 가운데서 한 가지를 택해야 할 것이다. 원칙은 웃사람에게는 높이는 말을 깍듯이 써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꼭 이야기해야 할 것은 녀성 청년들이 자기 부모들에게 특히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다. 어떤 동무들은 어머니와는 반말을 해야 더 가깝고 정다와진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부모에게 특히 어머니에게 존경어를 쓰는 것은 자식된 도리이다.

혹시 녀성 청년들이

《엄마 밥 했?》

《밥 먹었소?》

《오만 어디 갔댄?》 하고 말한다면 얼마나 속되고 듣기에 거북한 것인가. 여기에 무슨 다정함이 있고 친근감이 있는가.

녀성 청년들은 될수록 점잖고 고상한 말을 쓰며 속된 말을 버려야 한다.

속된 말을 쓴다면 결국 아름다운 우리 녀성들의 인격을 손상시키게 된다.

같은 말을 하면서도 《밥 다 먹었어요?》라고 하기보다 《밥 잡수셨어요?》 혹은 《진지 잡수셨어요?》와 같이 말한다면 더욱 겸손하고 친밀한 감을 안겨 준다.

녀성 청년들은 웃사람과 말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자기의 의견을 내놓는다든가 이러저러한 요구를 제기할 때에도 말을 항상 조심하여야 한다.

이 때에도 자기의 생각을 직접 내놓거나 남의 의견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보다 자기의 생각을 상대편에게 묻는 형식으로 표현한다면 한결 듣기 좋고 자연스러울 것이다.

가령

《김 동무는 오늘 꽃밭을 가꾸시오.》

《원국 동무, 11시까지 직물 공장에 갔다 오세요.》라고 말하기보다

《오늘 날씨도 좋은데 꽃밭을 가꾸는 것이 어떻겠어요?》

《원국 동무! 열 한시까지 직물 공장에 갔다 오실 수 없겠어요.》하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이다.

물론 동무들 사이에서는 꼭 이런 식으로 말하라고 틀을 만들어 놓을 필요는 없으나 웃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렇게 말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

녀성 청년들은 이렇게 될수록 더 친절하고 부드러운 말을 골라 쓰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녀성 청년들은 말을 할 때에 일반적으로 장소와 때를 가려서 조용조용히 말을 주고 받는 것이 좋다.

뻐스나 렬차 안 그리고 영화관과 같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이것은 특히 중요하다. 말'소리를 높여 떠들거나 크게 웃거나 하는 것은 큰 실례로 된다.

또한 녀성들은 말을 주고 받을 때 몸가짐을 단정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웃어른 앞에서 이것은 특히 필요하다.

인사를 하거나 받을 때에는 허리를 정중히 굽혀야 하며 말을 하거나 들을 때에 손짓이나 고개짓을 함부로 하지 말며 손장난이나 발장난을 하지 말아야 한다.

물론 이 밖에도 녀성 청년들이 지켜야 할 점들은 많다.

언어—그것은 자기의 사상 감정을 남에게 전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자기의 도덕적 풍모를 검열 받는 기준이기도 하다. 우리 녀성 청년들이 어찌 이에 세심하지 않을 수 있으랴!

청년 생활 소사전

인체의 전기 저항은 얼마나 되는가?

우리들은 일상 생활과 생산 활동에서 많은 전기 기구 및 설비들을 다루게 되는데 이 때에 잘못하여 절연이 잘 되지 않은 전선 부분에 손을 대면 몸으로 전기가 통하는 것을 감각하게 된다.

사람의 몸으로 보통 0.005 암페아 이상의 전류가 흐를 때 그를 느낄 수 있으며 0.05 암페아 이상 흐르면 생명에 위험하게 된다.

인체의 전기 저항은 사람들의 체질과 그가 위치한 장소, 조건에 따라 각이하다. 례하면 술에 취한 사람의 전기 저항은 술을 마시지 않았을 때보다 적어지며 혈기가 왕성한 사람의 전기 저항은 보통 사람보다 현저히 크다. 또한 남자는 녀자보다 전기 저항이 크며 땀을 많이 흘리거나 습기찬 곳에 있을 때보다 건조한 곳에 있을 경우에 인체의 전기 저항은 퍽 커진다.

주위가 건조한 보통 조건에서 인체의 전기 저항은 약 4,000~10,000 옴 정도인데 갱 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습기와 땀에 의하여 몸이 젖었을 경우에는 인체의 전기 저항이 800 옴까지 급격히 낮아진다. 인체에 위험한 전류의 값이 대략 0.1 암페아라고 할 때 이런 조건에서는 전압이 80 볼트나 지어 50 볼트만 되여도 생명에 위험할 수 있다. 그러나 건조한 지상에서 위험한 전압은 500 볼트 이상까지도 될 수 있다.



공산당원의 심장의 기록

효성을 다하리라!

권 영 벽

나를 낳아 준 조국은 어머니이고 혁명 전선에서 나를 가르쳐 주고 길러 준 사장 동지는 나의 스승이며 어버이시다.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그는 불효자이며 용납 못 할 죄인이다. 나는 둘도 없는 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효성을 다하리라!

※ ※

…나는 인제 몇 시간 밖에 생명이 남아 있지 않을 것이요. 그러나 나의 마음에는 아무 꺼리낌도 없소. 나처럼 자유를 구속 당하지 않고 오늘도 계속 사업하고 래일도 계속 싸울 동무들이 있다는 것과 멀지 않은 앞날에 반드시 우리의 혁명이 승리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떳떳하게 사형장으로 나가려 하오.

죽음은 두렵지 않으나 혁명을 위하여 자유로운 몸으로 더 살고 싶었소.

금옥 동무! 내 수명까지 더 살고 내 몫까지 더 많은 일을 하시오. 죽음 앞에 굴하지 말고 일시 괴롭다고 주저앉지 마오. 항상 대중 속에서 사시오. 대중은 우리 혁명의 기본이며 생명이요. 부디 몸 건강하오.

(사형 당하기 직전에 안 금옥 동지에게 쓴 편지 중에서)

조국과 인민의 미래를 위하여 끝까지 싸워야 하오.

리 제 순

…수 많은 애국 렬사들과 나 자신의 생명을 빼앗아 간 암흑의 세월은 종말을 고하고 3천리 방방곡곡에는 서광이 비쳐 올 것이요. 나는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나의 두 아이의 미래를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였으며 힘껏 싸웠다는 것을 자각하면서 죽는 바이요. 이것은 당신이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 버리는 그 순간에 뿐만 아니라 그 훨씬 이후에도 내내 위안이될 수 있을 거요.

과거에도 그러한 바와 같이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굳세게 살아 가시오. 특히 두 아이를 부탁하오. 모름지기 그들에게는 그들의 아버지인 내가 받은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을 거요.

종이는 아직 몇 줄 더 쓸 여백이 있으나 연필 꼬투리는 이제는 더는 쓸 수가 없도록 닳아 빠졌소. 붓을 놓는 이 순간에 당신과 아이들에 대한 나의 모든 생각은 조국 광복에 대한 숭고한 리상을 향하여 힘차게 힘차게 때하처럼 달리고 있소. 그럼 안녕히…

(감방에서 안해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

오직 투쟁만이 생활에서 가장 의의 있는 것!

에른스트 텔만

…정치 활동가의 규준은 그가 무엇을 달성하였는가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그가 무엇을 달성하려고 하였는가에 의해서도 그를 판단할 때 옹당하게 평가할 수 있다.

운명을 지배하며 자기 시대에 새로운 길을 열어 주며 자기 인민을 보다 훌륭한 미래에로 인도하려는 사람은, 자기 속에 사명을 느끼고 자기 정신의 불'길로써 다른 사람들을 불태우는 과업을 자기 앞에 제기하는 사람은 자기가 리해할 수 없고 또 부정하는 세계에 대하여, 적대적인 세계에 대하여 도전하는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오직 투쟁만이 생활에서 의의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생활의 력사는 준엄하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 전체를 전'적으로 요구한다. 너와 나 그리고 우리의 위업을 위한 투쟁에서의 모든 전우들은, 우리 모두는 힘 있고 강의하고 전투적이고 미래를 확신하는 사람으로 되여야 한다.

왜 그러냐 하면 혁명의 전사로 된다는 것은 사업에 대한 확고한 충실성, 생활과 죽음에 의해서 검열되는 그러한 충실성을 간직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며 무조건적인 헌신성, 확신, 투쟁에 대한 의지, 그리고 온갖 국면에서의 정력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심장들을 비쳐 주고 있고 우리의 정신을 충만하고 있는 불'길은 밝은 홰'불과 같이 우리 생활의 전투 마당을 따라 우리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그 성격에 있어서 견고하고 믿음직하며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써만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전환시키고 우리에게 부과되여 있는 그 위대한 력사적 사명에서의 우리의 혁명적 의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진정한 사회주의의 종국적 승리를 달성할 수 있다.

나는 이 사상에 헌신하노라

생은 헛되이 지나 가지 않았으니
이 땅 우의 지혜가 내린 궁극의—결론을
나는 똑똑히 보노라
매일 같이 삶과 자유 위해 전투에로 나가는
그 사람만이 삶과 자유를 얻을 자격이
있다 함을!

(괴테 《파우스트》 중에서)

혁명의 인사를 드리며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의 너의 믿음직한 전우이며 운명을 같이 하는 강의한 동지.

(바우첸의 옥중의 동무가 보낸 편지들에 대한 대답 중에서)

※ 에른스트 텔만은 독일 로동 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며 독일 공산당의 수령으로서 히틀러 파쑈 독재를 반대하여 용감히 투쟁하다가 체포되여 옥중에서 학살되였다.

감방에서 항거한다.

엽 정

신성한 출입문 철쇄로 잠겨지고
굴욕의 개구멍만 휑하니 허쳐 있어
야수는 발악하며 웨치거니
《기여 나오라, 자유를 줄께다.》라고
내 비록 자유는 갈망하나
비렬하게 네 놈들께 구걸하지 않는다.
—사람이면 어찌 개구멍을
기여 나갈 수 있단 말이냐!—
나는 미래의 그 어느 날
지하에 타 오르는 열화 속에
이 생지옥과 더불어 다 없어지리라.
이것은 나의 최대의 념원
나는 기어이 열화와 피끓는 속에서
영생하리라!

※ 엽 정은 중국 신사군 사단장이였다. 1941년 완남 사변 당시 국민당 반동파들에게 체포되여 학살되였다. 이 시는 그가 감옥에서 희생되기 직전에 쓴 것인데 해방 이후에 감옥의 벽에서 얻어 내였다.

사람들이여! 나는 당신들을 사랑했노라!

율리우스 푸치크

1934년 6월 9일.

내 감방 문 밖 복도에는 허리띠가 걸려 있다. 내 허리띠다. 내가 압송된다는 것을 의미

한다.

밤에 나를 《독일 제국》으로 끌어다가 재판하고 …처리할 것이다. 시간은 내 일생의 한 토막에서 마지막 토막을 탐욕스럽게 물어 뜯고 있다.

사백 열 하루가 반끄라쯔에서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빨리 사라져 버렸다.

며칠이 더 남았는지? 어디서… 어떻게 보내겠는지?

이제는 더 내가 글을 쓸 가능성이 없는가 보다.

나는 내 마지막 진술을 쓰고 있다. 력사의 한 페지에 대한 마지막 산 증인이 아마 나인가 보다…

우리는 항상 죽음의 위협을 각오하고 있었다.

우리가 게스따뽀의 수중에 걸리면 살아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적당히 행동하였다.

나의 놀음도 마감에 가까왔다.

나는 끝을 마저 쓰지 못 하였다.

그것을 아직 나는 모른다.

이것은 벌써 놀음이 아니다. 이것은 생활이다.

생활에는 관중이 없다.

막이 오른다.

사람들이여! 나는 당신들을 사랑했노라! 경각성을 높이라!

1943년 6월 9일

(《교형수의 수기》 중에서)

※ 울리우스 푸치크는 체코슬로바키야의 공산당원이며 평론가 이며 정치 활동가였다. 그는 자기 조국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싸우다가 독일 강점자들에게 체포되어 1943년에 학살되였다.

용사의 죽음에는 눈물이 아니라 노래를 보내야 한다.

코스타스 짜코스

친애하는 동지들!

우리들이 함께 산 것은 두 해에 지나지 않으나 나는 그대들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싶다.

나는 나의 감정을 충분히 잘 표현할 수 없다.

서러워 하지 말라. 동지들이여! 나의 죽음에 대하여서는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말라. 용사의 죽음에는 눈물이 아니라 노래를 보내야 한다.

나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인민의 투쟁의 전렬에 서서 죽는다.

자유롭고 민주주의적인 생명은 영예롭게 죽을 의무를 지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죽음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돌연히 나를 엄습한 것은 아니였다. 나는 명절놀이에 가는듯한 감정으로써 죽음을 맞이하여 나아간다.

나는 인민의 투사와 군관으로서의 임무를 조국 앞에서 끝까지 완수한 것을 자랑으로 생각한다. 나는 승리는 가깝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대들을 떠나 간다. 승리는 우리에게서 한 발'자국 거리에 있는 것이다. 아테네의 반역자들은 전복되고야 말 것이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태양은 피에 젖은 우리 땅을 비칠 것이다.

동무들, 우리 부대의 영광스러운 전투적 전통을 따르라! 견결하라! 우리의 최후의 전투에 영웅적 희생을 마치라!

원쑤들은 우리를 두려워 하고 있다.

이제조차도, 그들이 우리를 사형장에 끌고 가는 이 순간에조차도 그들은 몸을 떨고 있으나 우리는 웃고 있다.

털끝 만치도 약점을 보이지 말라!

우리들보다도 먼저 죽어 간 무수한 영웅들이 죽음을 멸시한 것과 꼭 같이 죽음을 멸시하라! 대렬을 더욱 굳게 다지라! 감옥에서의 압박과 고문에 성과적으로 항거하기 위하여 모든 력량을 집중하라. 죽은 동지들의 추억과 조국과 우리 인민을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저주가 있으라.

나는 우리의 원쑤들과의 최후의 투쟁에로—죽음에로 나아간다. 나는 승리자로 될 것이다. 그것은 이 전투에서는 다만 우리만이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힘을 우리의 부대에 바치였다. 투쟁에로의 부름에 대하여 나는 언제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 코스타스 짜코스는 희랍 인민 해방군 한 부대의 지휘관이였으며 희랍 공산당원이였다. 1948년 5월 반동적 파쑈 정부에 의하여 학살되였다.

실화

한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가정—이는 우리 사회의 한 세포이다. 그 하나 하나의 가정이 합치고 합쳐 우리의 대가정을 이루며 그 한 가정들에서의 행복이 사회 대가정의 행복을 이룬다.

몸 한 구석이 아플 때 온 몸이 아프듯 우리 제도에서는 바로 한 가정의 불행을 두고 온 집단이, 온 사회가 아파하며 그를 도와 나선다.

다음의 이야기는 귀국 동포 리 홍숙 아주머니네 한 가정이 우리 시대의 이 대가정 속에서 어떻게 행복을 체험하고 있는가를 보여 준다.

그들의 가정을 놓고…

모든 집에서 잠이 든 자정 무렵. 선교 구역 대신동에 있는 한 아빠트 창문에서만은 아직도 불'빛이 비치고 있었다. 그 집에서는 간간이 환자의 신음 소리가 새여 나왔다. 지금 이 집에서는 리 홍숙 아주머니가 남편 조 진관 동무에게 부축되여 병원으로 떠날 차비를 하고 있었다.

홍숙 아주머니는 이국살이의 모진 고초 끝에 병을 만났다. 조국에 돌아 와 좀 나아졌던 병증세는 그가 또 하나의 옥동자를 낳은 후에 다시 도졌다. 그때 병이 위독하게 된 홍숙 아주머니는 입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였다.

…홍숙 아주머니네가 일본에 있을 때의 일이다. 아주머니의 친척벌 되는 사람의 안해가 중병에 걸려 입원한 일이 있었다.

입원비가 없어서 막바지 판자'집까지 팔아 가지고 간신히 입원은 했으나 그만한 푼'돈으로는 병치료에 어림도 없었다. 결국 병도 고치지 못한 채 병원에서 쫓겨 난 환자와 그를 일가는 한 간 집조차 없어서 거리를 헤매는 거지로 되고 말았다. 때문에 홍숙 아주머니는 일본에서 심하게 앓으면서도 입원이란 꿈도 못 꾸었던 것이다…

그런데 오늘은 어떤가? 의사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집에까지 찾아 와 진찰을 하였으며 오늘은 입원을 위하여 자동차까지 보내여 왔다.

그러나 한편 홍숙 아주머니는 집에 남겨 둘 아이들을 생각할 때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세 살짜리 평호는 주일 탁아소에 맡긴다쳐도 남은 세 아이는 누가 돌봐 주겠는가.

그렇다고 가뜩 일이 바쁜 이웃이나 직장의 신세만 질 수도 없다. 그들은 차후에 대책을 세우기로 하고 올망졸망 누워 자는 아이들을

남긴 채 자동차에 몸을 실었다.

동대원 피복 공장 재봉 직장에서…

줄지어 늘어 선 재봉기는 가벼운 소리를 내며 돌아 가고 재빠른 일'손들이 남에게 뒤질세라 옷'감들을 누벼 나갔다. 그러나 하나의 재봉기만은 선 채로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은 홍숙 아주머니의 기대였다.

아까부터 이 기대를 눈여겨 보던 전 부윤 동무는 혼자 생각했다.

(웬 일일가? 혹시 홍숙 아주머니가 앓지는 않나? 그래도 태일이야 나오겠지…)

오전 일을 끝내자 청년들이 부윤 동무 곁으로 다가 왔다. 부윤 동무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 나오지 못 한 홍숙 아주머니의 몫을 우리 분조원들이 하자는 것을 분조 회의에 제기합니다.》

홍숙 아주머니의 몫까지 해서 그 날 일을 전부 끝낸 부윤 동무는 공장문을 나섰다. 그는 몸이 약한 홍숙 아주머니를 도와 줄 것을 생각하면서 야간 학교로 종종걸음을 쳤다.

한편 이 날 저녁, 《조선—꾸바 친선》 평양 방직 기계 공장에서는 퇴근'길에 오른 로동자들의 대렬 속에서 슬그머니 공장 쪽으로 되돌아 서는 한 청년이 있었다. 조립 직장의 김 영모 동무였다.

그 역시 오늘 안해의 입원 때문에 직장에 나오지 못 한 조 진관 아바이의 몫까지 일하려는 것이다. 직장 안에서는 밤 늦게까지 그가 돌리는 기대 소리가 울려 퍼졌다.

바로 이 날 낮에 있은 일이다.

홍숙 아주머니네 집에서 아이 울음'소리와 쿵쾅쿵쾅하는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달려 온 인민반장 강 순련 아주머니는 그 자리에 못 박힌 채 눈이 휘둥그래졌다.

여섯 살짜리 대호는 한 구석에서 울고, 맏이인 아홉 살짜리 영호와 그 아래 여덟 살짜리 승호는 아이들을 한방 데리고 들어 와 말타기를 하느라 야단 법석을 치고 있었다.

《영호는 왜 학교에 안 갔니? 그리구 너 승호와 대호는 왜 유치원에 안 가구…》

강 순련 아주머니의 물음에 영호가

《어머니랑 아버지랑 기차 타구 먼데 있는 병원에 가신다구 했어요.》

하고 대답했다.

《뭐, 말도 안 하고 너희들만 두고?》

《아버지가 밥이랑 많이 해 놓구 갔어요. 세 밤 자구 오신다구요.》

《웬만큼 앓는 줄 알았더니 입원하구 말았구나. 원 별'일도 다 있다. 아무리 급해도 이웃에 다 간다는 말이야 못 하겠니… 어린 너희들이 걱정이구나…이제 장난일랑 그만 두고 너 영호는 학교에 가거라. 그리고 승호와 대호는 우리 집에 가자…》

강 순련 아주머니는 이렇게 아이들의 첫 보호자로 나섰다.



이 사람들 속에서

그 이튿날 오후.

청년 거리 교차점, 복잡한 길 가운데로 여섯 살쯤 된 아이가 건너편만 보며 뛰여 들었다. 갑자기 호각 소리가 길게 울리고 네 거리에서 달려 오던 자동차들이 급정거를 했다.

이 아슬아슬한 순간에 방금 교대를 마치고 들어 가던 교통 안전원 리 성진 동무가 날쌔게 뛰여 들어 그 아이를 안고 보도로 나왔다. 이어 지휘봉이 가로 세로 움직이고 아무 일도 없었던듯이 자동차들은 다시 오갔다.

아이를 달래며 초소로 온 리 성진 동무는 우선 우는 아이를 달래고 깨끗이 씻겨 준 후 사탕 봉지와 그림책을 가져다 주었다. 그는 아이와 곧 친했고 그가 귀국 동포의 아이라는 것도 알았다.

그로부터 얼마 뒤 한 아빠트의 현관 앞에는 아이의 손을 잡은 한 교통 안전원과 중년 부인이 마주 서 있었다. 리 성진 동무와 인민반장 아주머니였다.

《아주머니네 아입니까. 잘 돌봐야 하겠습니다.》

《네, 그래야 할 걸, 어머니도 없이 있는 아이들을 잘 돌보지 못 하였군요!》

《네? 그럼 이 댁에 무슨 일이라도 생겼습니까?》

《애 어머니가 입원했어요.》

그 말을 들은 리 성진 동무는 그 때에야 모인 사람들을 둘러 보며 저으기 민망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그는 그냥 되돌아 설 수도 없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런데 모여 선 사람들은 무엇인가 옥신각신하고 있지 않는가?

이 날 홍숙 아주머니네 집에 모여 온 사람들은 동대원 피복 공장 사로청 위원장 황 익수 동무, 사로청원들인 전 부윤, 문 영자, 박 금선 동무들, 《조선—꾸바 친선》 평양 방직 기계 공장 조립 직장의 사로청원들인 남 완우, 김 영모, 김 은옥, 한 상신 동무들, 그리고 인민반장 강 순련 아주머니와 김 고분녀 어머니들이였다.

먼저 부윤 동무가 곁에 선 영자 동무와 금선 동무까지 가리켜 보이며 말했다.

《…글쎄 생각을 해 보세요. 홍숙 아주머니네 집'일을 맡는 것은 우리 피복 공장 청년들이 응당히 할 일입니다. 우리 동맹 조직이 우리를 여기에 보냈습니다.》

《옛날부터 이웃 사촌이라 했다우. 공장 일에 바쁜 동무들이 그게 될 말이요. 그러니 아예 이 집 걱정은 말고 홍숙 아주머니 몫으로 공장 일이나 많이 해 주셔요…》

인민반장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다. 그의 말이 끝나자 이 번엔 《조선—꾸바 친선》 평양 방직 기계 공장의 김 영모 동무가 이 집'일은 자기들이 도와야 한다고 나섰다.

그들의 아름다운 승강이는 어느 때나 끝날른지 몰랐다.

그런데 이 때 누가 먼저 팔을 부르걷고 집 안을 덜어 내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은 승강이질을 그만 두고 우— 일에 달라붙었다. 회'가루를 퍼다가 바르는 사람, 밥을 짓는 사람…손'달구지에 석탄을 날라 오는 사람, 빨래 함지를 안고 달려 나가는 사람, '아이들만이 무슨 영문인지 몰라 그들의 거동을 보고 있었다.

그로부터 이틀 후…

멀리 선천 병원에 안해를 입원시키고 돌아온 조 진관 동무는 깜짝 놀랐다.

방 안에는 자기가 그렇게도 걱정했던 아이들이 얼굴을 말끔히 씻고 자고 있지 않는가. 부엌에 들어 가니 알른알른하게 닦은 부뚜막에는 뚜껑을 씌운 밥그릇까지 놓여 있는 것이였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조 진관 동무는 선 자리에 못 박힌 채 있었다. 이 때 인민반장 강 순련 아주머니가 세 살짜리 명호를 안고 들어 왔다. 주일 탁아소에 맡겼던 명호도 인민반원들의 주장으로 아예 데려다 기르자고 해서 찾아 왔던 것이다.

《왜 이웃 간에 말도 안 하고 가셨어요?》

그의 말에는 저으기 서운해 하는 기색까지 어려 있었다. 그 간에 있었던 일의 자초지종을 들은 조 진관 동무는 치미는 격정 때문에 목이 메였다.

참으로 이 복되고 자랑스런 제도는 그가 살아 온 저 세상과는 얼마나 대조적인가!

…젊은 시절 그는 한 번 들어 가면 살아서는 못 나온다는 이름 모를 섬의 군사 기지 공사장으로 끌려 갔었다. 고향 땅과 삶이 그리운 그는 죽음의 섬에서 두 번만에야 겨우 탈주하였다.

그 후 일제가 망하여 죽음은 면하였으나 그에게 차례진 것은 굶주림과 멸시 뿐이였다. 한생이 저물도록 그는 서로 속이고, 뜯어 먹고, 남이 허기에 쓰러져도 낯을 찡그리고 돌아 서는 그러한 세상에서만 살아 왔다. 안해도 그러한 세상에서 골병이 든 것이 아닌가… 남의 일이라면 오뉴월에도 손끝이 시리다는 말은 그 사회에서 나온 것이였다.

2 년을 하루 같이

그로부터 2 년이 지나 갔다.

독자들이여! 이제부터 우리 함께 홍숙 아주머니네 가정을 도와 나선 사람들의 생활을 살펴 보기로 하자!

어느 마가을 날 깊은 밤, 교외에 있는 한 마을에서 있은 일이다.

《이젠 교외 뻐스도 안 다닐 텐데 어떻게 40 리 길을 간다구 그래요. 하루'밤 쉬여 가세요. 자, 어서…》

녀인들 몇이 한 처녀의 옷깃을 부여 잡으며 권한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꼭 가야 할 사정이 있어요.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밤에 기어코 떠나려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이 곳 교외 가내 작업반 기술 지도를 맡은 동대원 피복 공장의 사로청원 부윤 동무였다.

2 년 전의 그 날 아름다운 승강이가 있은 때로부터 그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홍숙 아주머니네 집에 와서 집 살림을 보아 주었다. 허구한 날 새벽 세네시면 홍숙 아주머니네 집에 찾아 와 밥을 짓고 아이들을 씻겨 유치원과 탁아소에 데려다 주군 하였다. 저녁이면 또 아이들을 찾아다 씻기고 밥을 지어 먹이고야 집으로 돌아 갔다.

부윤 동무는 그것을 일과처럼 단 한 번도 어겨 본 적이 없었다. 이것을 위해 그는 야간 학교에 다니던 것도 통신으로 돌았다. 지어 그는 1 년 전에 약혼을 하고도 홍숙 아주머니가 퇴원해 올 때를 기다리며 결혼 날'자를 미루고 있다.

자기 일신의 행복보다 남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며 다른 사람의 행복을 더 귀중하게 여기는 처녀의 마음과 행동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청년 거리에서 사는 사람들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아침 저녁 출퇴근'길에 아이를 업고 지나는 한 외태머리 처녀를 만나게 된다. 2 년 전에 그의 등에 업혀 다니며 《엄마, 빵빵—》하고 겨우 말을 옮기던 아이가 지금은 못 하는 노래가 없다. 오동통하고 복스럽게 생긴 그 아이가 잠'결이나 기쁠 때마다 《엄마》 하고 부르는 애티 있는 외태머리 처녀는 그의 어머니도 누나도 아니다. 그 역시 바로 부윤이, 금선이와 함께 홍숙 아주머니의 집을 도와 나선 문 영자 동무이다.

영자 동무는 뻐스를 세 번씩이나 갈아 타고 통근하였지만 한 번도 빠짐 없이 아침 저녁 홍숙 아주머니네 집으로 왔다. 주일 탁아소에서 찾아 온 세 살짜리 평호는 자기가 맡아서 돌봐 주었다. 그는 아이들을 더 세심하게 교양하기 위해 거처를 처음에는 합숙으로 옮겼다가 그 뒤에는 부윤 동무, 금선 동무들과 함께 아예 홍숙 아주머니네 집 곁방으로 옮기고 살림살이까지 도맡아 하고 있었다…

또한 그들이 일하는 공장에는 《밤'대거리 처녀》라고 불리우는 처녀가 있다. 그가 바로 자기 집에서는 막내 딸로 부모들에게 온갖 귀염을 다 받고 자란 박 금선 동무이다. 그가 1 년을 두고 남이 고달파하는 밤교대만을 하겠다고 나선 데서 이런 악의 없는 《별명》이 붙은 것이다.

무엇 때문에 그는 밤교대만을 요구했는가. 밤교대가 좋아서인가? 아니다. 그는 동맹 조직 앞에서 홍숙 아주머니네 집을 돕겠다고 나선 뒤부터 부윤 동무와 영자 동무가 출근하는 낮 시간에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그렇게 한 것



이다. 그러나 그는 자기 일에서 사로청원의 긍지를 느끼기 때문에 피곤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홍숙 아주머니네 집에 석탄과 땔 나무'단을 실은 손'달구지를 끌고 들이 닥치는 사람들과 집 수리를 하겠다고 달려 드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보나마나 《조선—꾸바 친선》 평양 방직 기계 공장 동무들이다.

지금은 누구나 김 영모, 남 완우, 한 상진 동무들이 홍숙 아주머니네 집에 석탄이 있는지 땔 나무가 떨어지지 않았는지, 집 수리할 것이 없는지 하는 것을 《정찰》하기 위해 한 주일에도 몇 번씩 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

록음 짙은 아동 공원이다. 빙글빙글 가볍게 돌아 가는 회전 그네 우에서 아이들이

《아저씨—》

하고 손을 흔들고 있다.

그 회전 그네 아래서는 교통 안전원 한 동무가 싱글벙글 웃으며 군모를 벗어 흔들어 보인다.

그들은 우리가 잘 아는 홍숙 아주머니네 아이들과 틈만 있으면 아이들을 찾아 오는 텁석진 동무이다.

× ×

평양에서 400 리나 떨어진 여기 병원.

건강이 회복되어 가고 있던 어느 날 홍숙 아주머니는 편지 한 통을 받았다. 봉투 안에는 사진까지 한 장 들어 있었다. 그는 환한 얼굴을 한 남편이며 방긋이 웃음 띈 건강한 네 아이의 얼굴, 그리고 진 부윤, 문 영자 이렇게 알아 보았다. 어떤 얼굴은 전혀 처음 보는 얼굴이다.

《…당신을 떠나 보낸 후 우리 식구는 준 것이 아니라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많아졌소. 이 고마운 분들은 모두 당신을 대신해서 우리의 친척으로, 우리의 한식구로 되여 준 이들이요.

당신이 완쾌되여 간다는 소식은 지금 우리 모두를 얼마나 기쁘게 하고 있는지 모르오… 나도 힘이 부쩍부쩍 나서 하루에 135% 이상씩 해내고 있소. 자그마한 일이지만 자재와 로력을 절약케 하는 련마기도 창안하였소…》

홍숙 아주머니가 쥐고 있는 편지와 사진 우에는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졌다.

(이것이 정말 꿈이 아닌 현실이란 말인가! 그리구 이 사진에 있는 애들이 정말 어머니 없이 2 년 동안 자란 아이들이란 말인가!)

홍숙 아주머니가 흘리는 눈물은 얼마나 기쁜 눈물인가! 얼마나 복 받은 눈물인가!

흐느끼며 흐느끼는 그는 하루 빨리 직장에 나가 이 고마운 제도를 위해 마음껏 일해 볼 생각 뿐이였다.

우리 시대의 이 대가정은 얼마나 단란한가. 그 대가정 속에 사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기에 사람들은 온 세상에 소리 높이 이렇게 노래 부른다.

……………

우리의 아버진 김 일성 원수님
우리의 집은 당의 품
우리는 모두다 친형제
세상에 부럼 없어라!

본사기자 한 현준
김 영길

아름다운 것과 고상한 것

김 하

우리들 가운데서 바다를 보지 못 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무더운 여름날 해변'가 바위 우에 앉아서 바다의 정경을 바라 본다는 것은 참으로 즐거운 일이다.

청춘처럼 약동하는 파도, 시원한 바람, 흰 구름—참으로 바다는 언제 봐도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언제나 우리에게 원만하고 완성된 만족감 (미학적 체험)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것이 아닐가!

그러나 아름다움은 결코 자연의 미, 거기에만 있지 않다.

우리가 말하는 아름다움, 그것은 사회와 인민을 위한 위대한 투쟁 속에 있다.

우리들에게 끝 없는 존경과 흥분을 불러 일으키는 것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혁명가들의 사색과 투쟁이다. 사회의 진보와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 목숨도 두려워 하지 않고 싸워서 승리하는 투사들의 모습이야말로 아름답고 숭고하다고 할 수 있다.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하는 항일 빨찌산들의 그 높은 정신 세계는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또한 우리는 로력 영웅 진 응원 동지의 로력적 위훈에 대해서 늘 감복한다.

그가 지침으로 한 위대한 사상, 그가 세운 로동에서의 위훈과 모범은 전국의 로동자들을 고무하였으며 천리마 작업반 운동이라는 위대한 사변을 일으키게 하였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일할 줄 알고 자기의 로동에서 열광적인 기쁨과 영예를 느낄 줄 알며 자기의 로동으로써 인민에게 행복을 가져 온다고 깊이 확신한 인간은 벌써 한 쪽 발을 공산주의에 들여 놓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인간들의 정신과 행동을 아름답고 고상하다고 말한다.

자연과 사회, 혹은 일상 생활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사실과 현상들을 허다하게 보며 느낀다. 5.1 절 시위 행렬, 붉은 기'발, 꽃다발, 화려한 옷차림, 각양 각색의 고무 풍선, 푸른 하늘—이 모든 것은 정말 아름답고 명랑한 인상을 준다. 이런 것을 본 다음 날 도화 시간에 아이들은 자기들이 보고 느낀 것을 종이에 묘사하려고 한다. 왜냐 하면 그들은 아름다운 것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사실 인간은 자기의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아름다운 것을 열망한다.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고 귀중하게 간직하는 것은 인간에게 고유하다. 우리가 집을 어떻게 짓는가? 바람이나 막고 비나 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가? 아니다. 우리의 집들은 견고하고 또 보기에도 아름다워야 하며 문명한 생활을 하기에 편리하여야 한다.

우리가 로동 생산에서 제품을 어떻게 만드는가? 그저 견고성과 실용 가치만을 보장하는 것인가? 이것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생활 필수품이건 공업 제품이건 매개 제품은 실용적인 측면과 미'적 측면을 동시에 구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례컨대 용접공이 철판을 되는 대로 땜질하거나 되는 대로 끊어 버려서 후에 많은 시정과 수리를 요구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하면 그의 제품은 다른 것은 고사하고 견고성과 실용적 가치도 보장하지 못한 것으로 된다. 《그는 조급히 서두르는 일이 없이 언제나 멋지고 우아하게 일을 한다. 그가 용접해 놓은 자리는 꼭 새까만 철피의 띠 같다.》, 《그의 로동에 매혹된 나는 명필가들이 자기의 놀라운 걸작에 휘필하는 것을 볼 영광을 가졌던 그 때와 마찬가지의 경건한 심정과 환희를 느꼈다.》고 한 작가는 썼는데 바로 그렇게 작업하는 사람이 제품의 질도 또한 량도 보장할 수 있으며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를 소유할 수 있으리라!

우리 로동자들이 만든 훌륭한 생활 필수품을 사용하면서 우리는 물질적 수요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정신적 쾌감을

느끼는 것이다. 아름답고 고상한 무늬가 박힌 식기와 견고하면서도 보기 좋고 편한 가구를 선택하면서 우리 자신이 정신적으로 아름다와지고 고상해지는 것이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저 몸이나 가리우기 위해서? 아니다. 우리는 같은 천을 가지고도 활동하기에 편리하게, 기후 조건을 고려하면서, 그리고 아름답게 입으려고 노력한다. 질 좋은 천으로 간편하게, 멥시 있게, 고상하게 옷을 지어 입고 나서면서 우리 매 개인은 즐거운 기분을 느낀다.

이와 같이 우리는 사회 생활과 로동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 아름다운 것, 고상한 것을 부단히 열망하고 또 그것을 찾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지향하면서도 그것을 그저 《고운 것》과 혼돈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실 고운 것은 언제나 아름답지 않는 경우가 있다. 례컨대 외면적으로 고운 것이 자기 본질에 있어서 불구적이고 추악하고 저렬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빛 좋은 개살구》라고 하며 인간의 경우에는 무의미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다. 진실로 아름다운 것은 내용의 풍부성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경우에 그의 아름다운 것은 그의 사업이며 고상한 행동이며 선량한 감정이며 높은 리상인 것이다. 심지어 외견 상 아름답지 못 한 인간도 정신적으로 아름답다고 하면 그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다.

아름다운 것은 그저 즐겁고 유쾌한 것과도 구별된다. 다시 말하면 단순한 생리적 자극을 주는 《쾌감》은 비미학적이며 감정의 기만이다. 례컨대 반복되는 잡음의 혼합에 불과한 퇴폐적인 형식주의 음악은 인간에게 쾌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정상적인 사람의 신경을 피로하게 할 뿐이다. 인간의 기분을 기만하거나 육체적 피로를 가져 오는 흡연이나 음주도 미학적 쾌감으로는 되지 않는다.

미학적으로 아름다운 감정은 어데까지나 인간의 정신적 부와 관련되여 있으며 사회적 의의를 동반하는 경우에만 생각할 수 있다.

아름다운 것은 언제나 계급적, 민족적 성격을 띤다. 천리마 기수의 위훈은 우리 로동 계급, 우리 당, 우리 인민의 높은 사상과 념원을 반영하는 것이며 동해안의 훌륭한 풍경이나 조선옷의 아름다운 멥시는 모두 우리 인민이 전통적으로 보존하고 있는 가장 우수한 감정을 표현하며 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이 미학적으로 아름다운 것은 인간의 높은 사상, 고상한 도덕—륜리적 측면과 결부되여 있다.

앞에서 우리는 인간의 미학적 (아름다운 것을 평가하고 사랑하는) 감정들이란 어떤 것이며 또 인간이 사회와 자연 및 일상 생활에서 체험하는 진정한 미학적 감정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풍부한가 하는 것을 보았다. 인간은 되는 대로 일하고, 되는 대로 입고, 되는 대로 쓰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살려고 노력한다.

인간은 생활하면서 앞을 내다 보고 목적 지향성 있게 계획적으로, 종합적으로 창조하며 또한 언제나 미'적 견지에서 느끼고, 사색하고, 행동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바로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측면이 있으며 인간의 우월성이 있는 것이다. 인간의 미학적 감정은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물건》이다. 그것은 인간의 생활과 분리된 감정이거나 《하찮은》 감정인 것이 아니라 바로 생활에 의해서 생겨 나며 또 생활과 밀접히 결부되여 있다. 인간의 미학적 감정에 대해서 말하면서 맑스, 엥겔스는 그것이 인간의 창조적 로동에 의해서, 인간의 물질적 부의 장성에 의해서 발생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맑스, 엥겔스는 인간의 미학적 능력이 인간의 실천적 활동에 의해서 생산되였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로동이 고도로 발전하면서 그의 미학적 감정, 미학적 견해를 다양하게, 풍부하게 발전시키면서 하나의 특수한 사회적 의식 형태—예술을 낳았다고 지적하였다. 오직 로동에 의해서만 인간의 손은 라파엘의 그림, 토르발센의 조각, 파가니니의 음악을 창조할 수 있었다고 엥겔스는 썼던 것이다.

예술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자연과 생활에서 인간이 체험하는 모든 아름다운 사색과 감정을 집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때문에 예술을 가리켜 인간의 미학적 활동의 최고 표현 형태라고 하며 우리는 아름답고 숭고한 것을 더 많이, 더 풍부하게 체험하기 위해서 예술을 찾아 가는 것이다. 예술을 통해서 우리는 사상적으로 풍부해지며 아름답고 숭고한 감정을 배우며 도덕적으로 《정화된다.》 때문에 예

술은 인간의 교사이며 충고자이며 벗이다.

예술에는 아름다운 것과 숭고한 것에 대한 높고 풍부한 리해가 있는 것이다.

예술에는 우리가 자연이나 사회 혹은 일상 생활에서 보고 느끼는 것이 반영된다. 미술 박물관에 걸려 있는 풍경화들은 우리의 아름다운 전야와 산천을 그렸으며 또 연극 《붉은 선동원》에서는 전국에 이름 난 리 신자가 형상되였다. 소설가나 시인도 역시 우리의 력사나 생활에 있는 사실들과 인물들을 자기들의 작품들에 묘사한다.

그런데 예술 작품들에 반영된 생활적 사실이나 인물들은 어쩐지 좀 《특별하고》 좀 더 비상하고 좀 더 《곱다》. 한 마디로 말해서 예술에서의 아름다운 것은 생활에서의 아름다운 것보다 더 원만하고 풍부하다고 할 수 있다. 왜 그럴가? 예술은 인간의 아름다운 사상과 감정을 부각시키고 일반화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오래오래 교양할 사명을 지니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술가는 생활에서의 아름다운 것을 그 대로 전달하고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특징적인 것을 포착하고 거기에 《있을 수 있는 것까지도》 보충하고 부각시키고 확대하는 것이다. 이것이 말하자면 예술적 창조의 고유한 특성의 하나인데 주지하는 바와 같이 그것을 예술적 전형화의 방법이라고 한다.

례를 들어 보자. 무대에서의 선동원 리 선자는 리현리의 선동원 리 신자이면서 또 그렇지 않다. 녀 주인공 리 선자의 많은 행동과 기본 사상은 원형에서도 있었다. 그러나 작품의 녀 주인공은 보다 전일적이고 보다 풍부하다. 례를 들면 연극에서는 선자의 정신적 면모를 더욱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서 홍수의 장면을 삽입하였으며 복선 아주머니와의 갈등을 예리하게 설정했다. 다른 인물들과 선자와의 복잡한 관계도 물론 실제 존재한 것보다는 다양하고 의의 있다.

어째서 연출가와 배우들은 그러한 것들을 《꾸며 내는가?》 사람들이 이미 생활에서 보았거나 들은 아름다운 사실에 대해서 더욱 격동되고 더욱 깊이 간직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꾸며 내는 것》이 불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러지 않아도 감동적인 사실인데—하고 의심을 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허구와 환상은 예술적 창조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고귀한 특성이여서 오직 그런 수법을 통해서만 하나의 형상을 통해서 많은 사실과 사상을 전달할 수 있으며 자그마한 글을 통해서 거대한 감정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이다.

예술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거기에 체현된 인간의 거대한 사상과 감정을 《보며》 느끼면서 생활의 의미를 인식하며 미학 정서적으로 풍부해지는 것이다. 바로 여기서 중요한 측면이 있다. 물론 생활에서의 인간의 아름다운 행동이나 아름다운 풍경은 우리를 격동시키고 깊은 인상을 자아낸다. 그러나 그것들은 예술 작품들과 비하면 《일시적》이며 분산적이며 단편적이다.

인간의 미학적 활동의 최고 표현으로서의 예술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묘사되는 대상의 본질적 사상에 의거하면서 모든 아름다운 것을 종합하며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며 부차적인 측면을 깎아 버리고 특징적인 것을 부각시키고 강조한다. 이것이 예술적 일반화와 개성화의 과정인 것이다. 작가가 한 사람의 천리마 기수를 묘사하기 위해서 수십 수백명의 로동자들을 연구하는 것이나, 영화 촬영가가 한 폭의 아름다운 풍경을 찍기 위해서 우리 나라의 방방곡곡을 돌아 다니게 되는 리유를 리해하면 충분하다.

그리하여 완성된 그 예술적 형상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사람들에게 가장 원만하고 완성된 미학적 체험을 불러 일으키며 가장 높은 미학적 평가를 주는 하나의 생활적 모범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술 작품들에서의 이러저러한 형상은 아름다운 사실이나 현상에 대한 우리의 리해와 척도를 가장 전일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례컨대 무대를 통해서 리 선자의 형상을 보면서 우리는 그처럼 협동 농장원들을 사랑하고 그처럼 성실하고 근면한 인간이 되고 싶어 한다. 서사시 《백두산》을 읽으면서 우리는 거기에 묘사된 주인공들처럼 열렬한 애국자—투사들로 되려고 노력한다.

이와 같이 예술 작품들은 우리를 사상적으로 고무하며 도덕—륜리적으로 고상하게 교양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술 작품을 가리켜 《생활의 교과서》라고 하는 것이다.

일기를 어떻게 쓸 것인가?



일기란 말 그 대로 그 날 그 날 생활한 내용을 적기 위하여 쓰는 글이다.

편지가 남에게 보내여 읽히는 글이라고 한다면 일기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쓰는 생활 기록이다.

생활 기록이라고 하여 그 날 있은 어떤 사건만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활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실천한 것 가운데서 가장 의의 있고 보람 있는 일들을 기록해야 한다. 하루일 가운데서 자기 생활을 반성할 자료들을 차근 차근 더듬어 쓰는 것도 중요하다.

일기는 그 내용이나 표현에서 특별히 례절을 갖춘다거나 일정한 격식을 갖추어야 할 필요는 없다.

남에게 보일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 만큼 솔직한 자기의 심정을 숨김 없이 적을 수 있다.

일기를 쓰는 목적과 의의는 크다.

첫째로, 그 날 그 날의 자기 생활을 기록한다는 것은 곧 그것을 통하여 자기의 하루 생활을 총화하게 되며 어느 날 어떤 일을 하였으며 어떤 사건이 있었던가를 뒤'날에 가서도 다 알 수 있는 자료로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일기는 자기의 사업과 생활의 총화라고도 할 수 있다.

둘째로, 일기를 쓴다는 것은 훌륭한 자기 수양이 된다.

우선 그 날 그 날 자기가 생각하고 느낀 점들을 기록하게 되는 만큼 하루의 자기의 생활, 행동, 작풍 등을 반성하게 되며 뒤'날에 펼쳐 볼 때에도 자기 사상, 자기 태도 등을 더듬어 보게 되여 자기 발전의 거울과도 같이 될 것인 만큼 수양의 좋은 자료로 되는 것이다.

세째로, 훌륭한 글'공부가 된다.

자기가 하루 동안 지낸 일, 생각한 내용을 자기 머리에서 체계를 세워 자기 말로 쓰게 되는 만큼 그것은 글을 쓰는 좋은 련습으로 되는 것이다.

글을 잘 쓰자면 사물을 구체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일기를 쓴다는 것은 다름 아닌 관찰력을 기르는 방도로도 된다.

옛날부터 우리 나라의 이름 난 학자들, 애국적인 명장들, 자기 수양을 쌓아 인민의 모범으로 된 걸출한 인물들은 거의 다 훌륭한 일기를 써서 그것을 자기 문집에 수록하고 있다.

다음에 리 순신 장군의 《란중 일기》 중에서와 한 인민군 전사의 일기문을 참고로 보인다.

△ 《란중 일기》 중에서—

《…아침에 떠나 바로 당포 앞 선창에 이르니 적선 20여 척이 벌려 있어서 둘러 싸고 전투를 개시하였다. 그 중의 큰 배 1 척은 크기가 우리 나라의 판옥선만 하고 배 우에 루다락을 지어 놓은 것이 높이 두 길이나 되였다. 그 안에는 왜장이 엄연히 앉아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편전 및 승자 총통의 큰 것과 중간것으로 비 오듯 어지럽게 쏘아서 왜장이 화살에 맞고 곤두박히니 그제야 모든 왜적이 와하고 놀라서 흩어졌다. 여러 장수와 군사들이 집중적으로 사격하여 활을 맞고 엎어지거

니 자빠지거니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웠으며 한 놈도 남김 없이 거의 모조리 섬멸하였다. 얼마 지나서 큰 왜선 20여 척이 부산으로 바다에 늘어 서서 들어 오다가 우리 배를 보고 도망을 쳐서 개도 (介島)로 들어 갔다.》

(1592년 6월 2일)

《날이 밝았다. 남해 사람이 또 와서 전하기를 광양, 순천의 두 고을은 벌써 결단이 났다고 한다.……이런 소식을 들으니 배'속까지 아파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를 않았다. 우수사 및 경상도 수사와 더불어 일을 의논하였다. 이 날 밤 바다 우의 달이 밝고 밝아서 하늘과 물은 한 빛갈이요, 먼지 한 점 일지 않고 서느름한 바람은 솔솔 불어 왔다. 혼자 배'전에 앉았자니 가지가지의 생각이 북받쳐 올랐다…》. (1593년 7월 9일)

《…국가의 화가 심하매 국토에 원수가 들여 덤비여서 사람은 원통해 하는 심정이 우로 하늘에 사무치고 아래로 땅에 맺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요피스러운 무리들을 깨끗이 소탕치 못 하니 모두를 한 하늘 밑에서 원수와 같이 살기를 원치 않는 마음이 간절하다. 무릇 피'줄이 흐르는 사람 치고 그 누가 팔을 부르걷으면서 원수의 살'점을 뜯어 먹고 싶지 않으랴…》. (1595년 7월 7일)

△ 다음에 인민군 한 전사의 일기를 소개한다.

1950년 10월 19일

나는 오늘 영광스러운 인민 군대에 입대하였다.

내가 조선 인민군에 복무함은 수령이 찾아 주신 인민의 생명, 행복을 지키고 조국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다.

내 나이 어려서 조국 없는 설음을 맛 보았고 모진 학대와 굶주림에서 살았기에 조국을 지키는 사명! 나에게 이보다 더 고귀한 것은 없다.

조국, 조국, 조국, …거듭 말한다.

조국은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 조국을 지키는 영광이 나에게 있다.

나는 조선 인민군의 전사이다.

1951년 12월 16일

오늘처럼 이렇게 기쁘고 뜻 깊은 날이 평생에 또 있을가!

나는 오늘 조선 로동당원이 되였다.

한 없이 영예롭고 떳떳한 로동당원으로…

…얼마나 보람찬 삶인가! 전우들이 모두 나를 축하해 주었다.

만약 어머니가 살아 계시고 아버지가 아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시랴!

나는 이 감격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원수들을 한 놈이라도 더 많이 잡기 위해, 한 대의 적기라도 더 많이 떨구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치리라!

이 일기들에는 한결같이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마음과 원수에 대한 증오가 뚜렷이 표현되여 있다.

일기에는 이와 같이 그 날 있은 사실을 기록만 하는 것보다 자기가 느끼고 생각하고 반성한 사실들을 적는 것이 자기 수양의 측면에서 볼 때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그러면 일기에는 어떤 형식들이 있는가?

우선 일기에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날의 자기 생활을 기록하는 이른바 《생활 일기》의 형식이 있다.

이 밖에 특수한 측면에 대해서만 쓰는 《관찰 일기》, 《영농 일기》, 《독서 일기》 등도 있다.

《사업 일기》는 자기 감정이나 느낀 바를 적는 생활 일기와는 달리 자기의 본신 사업 내용을 중심으로 적는 일기이다.

또한 《부서 일지》, 《초급 단체 일지》, 《학급 일지》, 《작업반 일지》, 《수직 일지》 등은 집단의 하루 사업 내용을 적는 일기이다.

그러면 《생활 일기》에는 어떤 이야기를 쓰는가?

일기의 내용에는 별 제한이 없다.

그 날 자기의 하루 생활 중에서;

① 자기 사업에서 특기할만 한 일,

② 보고 듣고 당한 일 중에서 특기할 일,

③ 책자나 신문, 영화, 연극 등을 읽거나 보고 느낀 점,

④ 자기 자신의 생활이나 행동에서 반성할 점,

⑤ 앞으로 해 나가려는 자기 결의…등을 적을 수 있다.

자기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일어 나거나 반복되는 평범한 이야기를 매일 적는 것은 무의미하다.

(례를 들면 아침에 일어 나서 세수하고, 청소하고, 밥을 먹고, 직장에 나가 일하였다는 등의 이야기.)

날씨나 천체 현상, 동식물의 사육, 재배 등을 관찰하고 적는 일기는 날'자, 시간, 벌어지는 자연 현상 등에 대해서만 자세히 적게 될 것이며 《독서 일기》는 읽은 책의 제목, 작자, 분량, 내용, 느낀 점 등을 중심적으로 적게 될 것이다.

부서나 단체의 일지는 자기가 책임 진 기간에 일어 난 중요한 일들에 대하여 사실 대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그러면 일기는 어떻게 쓰는가?

일정한 규칙이 없이 쓰는 생활 일기는 대략 다음과 같은 사항을 쓰는 것이 좋다.

① 날'자, 요일 〔1963년 월 일 (요일). 보통은 《월 일》만 쓴다〕.

② 날씨 〔개임 (흐림, 비, 눈, 눈보라, 폭풍우, 보슬비, 흐린 후 비, 바람)〕.

③ 일기의 기본 내용

* 서신 관계와 방문, 면회 등을 따로 쓸 수 있다.

일기의 글의 길이는 제한이 없다.

날'자를 적어 인쇄한 일기책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 페지를 하루 분으로 쓰는 것이 좋고 백지로 된 일기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두 줄만 쓰는 날도 있을 것이고 2~3 장씩 길게 쓰는 날도 있을 것이다.

또한 그 내용도 생활 내용에 따라 어떤 날 일기에서는 가족들에 대하여 자세히 쓸 수 있을 것이며 어떤 경우에는 소설을 읽고 느낀 사실에 대하여, 혹은 천리마 기수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읽은 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자기의 생각을 깊이 있게 쓸 수도 있을 것이다.

일기체의 글은 다른 글과 다른 약간의 문체상 특징을 가진다.

우선 일기는 자기 이야기를 쓰는 글인 만큼 《가 보았습니다.》, 《재미 있었소.》 등의 《존대》나 《하오》의 계칭을 쓸 필요가 없다.

동물원 구경을 가다.》, 《<동말강> 을 읽다.》, 《누님에게 편지를 씀.》 등과 같이 쓰는 것이 보통이다. (물론《…구경을 하였다.》, 《편지를 썼다.》라고도 쓸 수 있다.)

일기체에서는 《나》라는 말을 많이 생략할 수 있다.

일기 자체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쓰는 글인 만큼 특별히 다른 사람과 구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외에는 《나》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밤 11시까지 《명인전》을 다 읽음. 우리의 슬기롭고 선진적인 선조들의 훌륭한 업적을 깊이 느끼며 커다란 민족적 자부심을 갖게 됨.

(《나》를 쓰지 않은 례.)

다음에 일기문 례를 들어 보인다.

1963년 6월 10일. 개임.

오늘 동무들과 함께 15 일 간의 모내기 전투를 마치고 돌아 왔다.

이 번 15 일 동안에 많은 것을 배웠다. 논갈이, 모뜨기, 모내기, 고무래질—될수록 여러 가지 농사'일들을 손에 익혔다.

뜨락또르가 써레질을 하고 자동차가 모를 나르는 풍년가 넘치는 농장'벌도 좋았지만 하루에 500 평씩 모를 꽂던 농장 처녀들이며, 금년엔 580 공수를 수록하여 500만 톤 고지 점령의 선봉이 되겠다던 제대 군인 봉수 동무— 이런 청년들이야 말로 우리 농촌의 미더운 주인공들일 것이다.

이 번에 있은 보람찬 농촌 지원의 나날은 우리들로 하여금 더욱 많은 것을 느끼게 하였다. 우리 로동자들이 하루 빨리 더 좋은 농기계를 만들어 농촌에 보내 주어야 하겠구나. 그리하여 그들을 고된 로동에서 하루 속히 해방시키고 농촌의 기술 혁명을 촉진시켜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자꾸만 강하게 솟구쳐 올랐다. 그래서 직장으로 돌아 오면서도 우리 동무들은 어떻게 하면 농민들을 더 많이 도와 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열렬하게 토론하였다.

저녁을 먹은 후 로동 신문에 실렸던 기사 《회경 마을의 자랑스러운 아들》을 다시 한 번 읽었다. 남을 위하여 헌신하는 병모 동무의 고귀한 심정은 얼마나 훌륭한가!

일을 더 하자. 남을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병모 동무처럼 그렇게 훌륭한 민청원으로, 나라의 아들로 되자!

그 날 일기는 되도록 그 날 중으로 적어야 한다.

여러 날 밀리게 되면 기억이 희미해질 수도 있고 또 지나 간 일은 바쁜 김에 대강 적게 될 수도 있어 실'속이 없게 되기 때문이다.



학습 계획을 어떻게 세울것인가?

김 재 성

자체 학습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정확하고도 치밀한 학습 계획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학습 계획을 잘 세워야만 학습을 목적 지향성 있게 할 수 있으며 학습에서 선후차를 가리고 중심 고리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으며 또한 생활을 규칙적으로 조직하고 학습을 생활화할 수 있다.

그러면 학습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 것이 좋은가?

학습 계획은 대체로 년간 전망 계획과 월간 계획으로 구분하여 세우는 것이 통례이다.

년간 계획만 가진다면 계획이 구체적으로 될 수 없으며 반대로 월간 계획만으로써는 학습을 전망성 있게 할 수 없다. 통신 교육망에 망라된 동무들은 년간 계획 대신에 학기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편리하다.

월간 학습 계획은 주를 단위로 하여 수립할 수 있으며 월 계획을 세워 놓고 필요에 따라 주 단위의 집행 계획을 세울 수도 있다. 요는 학습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되 지나치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며 실천성 있고 간편하게 세우되 너무 간략하여 형식적 문건이 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학습 계획을 세우기 위한 준비

학습 계획을 옳게 세우기 위하여서는 그에 대한 준비를 잘 해야 한다.

학습 계획을 세우기 위한 준비는 우선 지난 기간의 학습을 총화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학습 총화에는 학습망에서의 총화를 비롯하여 통신 학습반에서의 학기 또는 졸업, 진급 시험, 각종 자격 검정 시험 총화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총화를 통하여 지난 기간의 학습 경험과 학습에서의 우결함, 자체 학습의 개선을 위하여 제기되는 과업을 밝힌다. 이는 새 학습 계획에서의 중심 방향으로 될 것이다.

다음으로 학습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시기 자기 앞에 제기된 학습 과제를 확인하여야 한다.

례를 들면 우리 당 제 4 기 7 차 전원 회의 문헌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는 현 시기 모든 청년들이 반드시 학습하여야 할 과제로 된다. 또한 일하면서 학습하는 교육 체계에 망라된 학습 과제의 기본은 그 과정안에 포함된 학과목들이다.

이 밖에 그 누구를 불문하고 학습 계획에는 《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학습과 정치 시사 학습도 예견하여야 하며 사로청 조직에서 지정한 서적과 자체의 문화성을 높이기 위한 문예 서적의 독서도 예견하여야 한다.

학습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준비로써 다음에는 학습하여야 할 교과서, 필독 문헌, 참고 문헌 등의 내용과 분량을 조사하고 그에 소요되는 시간을 확정하여야 한다.

1 년 동안 학습할 내용들을 다 조사 장악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이는 구체적이며 실천성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학습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학습 강사, 교원, 도서관과의 련계 밑에 필요한 도서가 있는 곳을 장악하고 필독 문헌과 참고 문헌의 장, 절, 페지 수까지 밝혀야 한다.

이렇게 조사 장악된 학습 자료의 분량에 따라 그 학습에 필요한 시간을 배정한다. 이리하여 년간에 학습하여야 할 일체 학습 자료와 그 분량 및 학습 총 시간 수가 나온다.

학습 계획의 작성

학습 계획을 수립할 때에 중요한 것은 자신의 학습 목표와 준비 정도, 학습 시간과 학습 자료를 비롯한 학습 조건, 학습에 대한 지도자의 방조 등을 세밀하게 타산하면서 수립하는 것이다.

사업과 생활 및 학습 조건 등에 대한 과학적인 타산이 없이 주관적 욕망이나 일시적 충동에 의하여 세운 과대한 계획은 실천될 수 없다. 다른 편으로 너무 소심하여 지나치게 적게 세운 계획은 도리어 학습에서 안일성을 가져 오게 하며 따라서 학습의 성과를 저해한다. 문제는 자기 생활을 잘 조직하고 최대한의 학습 시간을 얻어내여 긴장한 노력으로 달성할 수 있는 규모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학습 계획의 양식은 다양하다. 학습 계획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편리한 양식으로 세운다. 그러나 만일 조직에서 통일적으로 제시한 것이 있으면 이에 의거하여야 한다.

보통 전망 계획서에는 첫머리에 중심 방향을 밝히는 것이 좋다. 중심 방향에는 계획 기간에 달성하여야 할 학습 목표와 력량을 집중하여야 할 학습 내용 및 학습 성과를 높이기 위한 대책들을 밝힌다.

실례로 통신 고등 기술 학교 기계 제작과 2 학년에서 모범적으로 학습하고 있는 동무가 세운 년간 학습 계획서의 일부를 들어 보자.

1964 학년도 학습 계획서(일부)

중심 방향;

1. 당 정책을 깊이 연구하며 맑스-레닌주의 원리 학습과 반수정주의 학습에 주력한다.
2. 고등 기술 학교 졸업 시험 응시 준비를 충분히 한다.
3. 시간 예비를 동원하여 문예 작품을 비롯한 독서를 더 많이 하여 넓고 깊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노력한다.

부문	학습 내용	시간	학습 기간	학습 방법	참고문헌	집행정형
당 정책	—김 일성 선집 1 권(1963년판), 2 권(1964년판)	60	1964. 4~12	읽고 발취하고 카드 작성		
및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	18	1964. 4.	〃	(생략)	
정치학습	—우리 당의 공업 정책과 우리 나라 기계 제작 공업	20	1964. 6	〃		
	—사회주의 진영을 옹호하자	12	1964. 7	읽고 발취하고 토론한다.		
	—민족 해방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자	12	1964. 8	〃		
	—수시로 제기되는 당 정책	매일	계속	읽고 발취한다.		
	—《로동 신문》, 《로동 청년》사설, 론설 및 시사 학습	1 시간	계속	중요한 것 발취한다.		
맑스-	—맑스, 엥겔스 《공산당 선언》	8		읽고 발취하고 카드를 작성한다.		
레닌주의	—엥겔스 《공산주의 원리》	4				
원리학습	—레닌 《청년 동맹의 과업》		1965. 1~3			
	《국가와 혁명》	30				
	《맑스주의와 수정주의》					
	—수정주의의 본질과 그 해독성	6	1964. 4	참고 문헌 읽으면서 필기한다.		
	—계급 투쟁과 프로레타리아 독재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리론	10	1964. 5	〃		
	—사회주의 혁명과 그 수행 방도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리론	10	1964. 6	참고 문헌 읽고 발취하면서 필기한다.	(생략)	
	—국가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리론	6	1964. 7	〃		
	—당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리론	8	1964. 8	〃		
	—제국주의의 본성과 현 시대에 대한 평가	4	1964. 9	〃		
	—전쟁과 평화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리론	8	1964. 10	〃		
	—식민지 민족 해방 투쟁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리론	8	1964. 11	〃		
	—사회주의 건설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리론	10	1964. 12	〃		
회 상 기 학습	—회상기 8 권 —인민들 속에서 4 권 그 외 새로 발표된 회상기	매주 월요일, 목요일 1 시간	1964. 4~1965. 3	읽고 학습장에 기록하며 그 내용에 비추어 자체 생활 검토한다.		

부 문	학 습 내 용	시 간	학습 기간	학습 방법	참고문헌	집행정형
문예작품	—고등 기술 학교 교재 —두만강 1, 2 부 —대하는 흐른다 —청별 저위 상, 하 —고전 문학; 사씨 남정기, 량반전 —세계 문학; 레 미제라블 1, 2 청춘의 노래	휴식 시간 및 일요일 기타 짬시간 리용	1964. 4～1965. 3	독서 일지에 작품의 구성과 감상을 기록한다.		
물 리	—력학	30	1964. 4	교재를 읽고 필요한 실험 실습을 하며 문제를 보충한다.		
	—분자 물리학 및 열학	40	〃			
	—전기학	45	〃			
	—광학	30	〃			
	—원자 물리학	20	1964. 5			
화 학	—화학의 법칙	10	1964. 5	〃		
	—원자 분자설 그 기본 명제	6	〃			
	—물, 수소, 산소 용액	8	〃			
	—원소와 무기 화합물	8	〃			
	—전리, 할로겐	10	〃			
	—원소의 주기 법칙과 주기계	4	〃			
	—류황과 그 화합물	7	〃			
	—질소, 린 및 그 화합물	8	1964. 6			
	—탄소와 규소, 그의 화합물	10	〃			
	—금속	12	〃			
	—유기 화학	30	〃			
	—화학 생산	20	〃			
기계공학	—기계 제작 공업 발전을 위한 우리 당의 정책과 과업	4	1964. 7	교재 읽고 필기 보충한다.		
	—주물, 단조에 의한 소재 생산	6	〃			
	—금속의 용접	4	〃			
	—공기 및 수력 기계 (펌프, 압축기 및 수력 타빈)	10	1964. 7			
	—보이라 및 증기 원동기 (보이라, 증기 타빈)	8	〃			
	—가스 타빈 및 반작용 기관	7	〃			
	—내연 기관	20	〃			
	⋮	⋮	⋮			

년간 학습 계획이 작성되면 이에 근거하여 보다 구체적인 월간 학습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한다. 년간 계획에 비한 월간 계획의 특성은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것이다. 월간 학습 계획은 년간 학습 계획에 의거하는 동시에 전 달 학습 총화에 기초하여 수립하며 새로 제기된 당 정책과 조직과 상부에서 제시한 학습 과제를 포괄하여 작성한다.

월간 학습 계획도 중심 방향을 내세우는 것이 좋다. 월간 학습 계획은 주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이 편리하다.

월간 학습 계획 양식도 다양한 바 그 중 2 종의 례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 양식은 47 페지에 있음

(양식 1)

월간 학습 계획서

중심 방향;

주별	부문 또는 과목명	학습 내용	시간	학습 자료		실천 정형
				필독문헌	참고문헌	
제 1 주 (2～8)		1. 2. 3.				
제 2 주 (9～15)						
제 3 주 (16～22)						
제 4 주 (23～29)						

비고: 학습 내용 및 학습 자료에는 해당 제목의 문헌 장, 절, 페지를 밝힌다.

월간 학습 계획서

(양식 2)

중심 방향:

부문별 / 주별	당 정책 및 정치 학습	맑스-레닌주의 원리 학습 및 반수정주의 학습	과정안 과목 또는 전공 학습	회상기 학습 및 문예 독서
1 주 (2～8)	1. 2. 3. ⋮	1. 2. 3. ⋮	1. 2. 3. ⋮	1. 2. 3. ⋮
2 주 (9～15)				
3 주 (16～22)				
4 주 (23～29)				

매개 부문 학습 내용에 해당 문헌의 장, 절, 페지 수, 시간 수를 밝힌다.

학습 계획의 수립과 집행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

학습 계획은 정치 학습과 실무 학습, 일반 과목과 전공 기술 과목이 잘 배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학습 계획을 세울 때에 정치 학습을 소홀히 하면 정치 사상적으로 뒤떨어지며 실무 학습을 경시하면 전공 기술 과목의 발전과 경제 과업 수행에서 저해를 받는다. 일반 과목과 전공 과목 간에도 호상 유기적 관계가 지어져 있다. 그러므로 학습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정치 과목을 앞세우면서 실무 학습을 옳게 배합하며 일반 과목을 충실히 배우면서 그와의 유기적 련계 밑에 전공 학습을 따라 세우도록 하여야 한다.

학습 계획은 제기된 학습 목표에 부합되고 자기 실정과 수준에 알맞게 수립하여야 한다.

학습 계획은 자신의 사업과 생활 조건에 적합하며 자신의 준비 정도와 주어진 학습 조건에 맞도록 학습 내용의 범위와 수준 및 분량을 조절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학습 계획은 실천성 있는 과학적인 계획으로 된다.

통신 학습망에 망라된 동무들은 그 과정안에 의거한 학습 내용과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는 방향에서 수립하여야 한다. 특히 그들은 동교 수업, 시험 응시 등 모든 문제들을 학습 계획에 예견하여야 한다. 검정 시험에 응시하려는 동무들도 제기된 과목과 문헌들을 다 학습하며 제때에 응시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중심 고리에 력량을 집중하면서도 문화성을 제고하며 전면적으로 발전된 인재가 되기 위한 방향에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어떠한 부문, 또는 일부 과목에만 편중된 학습 계획은 그를 편협한 인간으로 만들 수 있다. 계획에는 될수록 시간의 예비를 얻어 내여 문예 작품도 읽고 과학 문화의 최신 성과도 습득하도록 예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습 계획은 독서와 문헌 작업에만 국한하지 말고 학습의 다양한 형식과 방법이 배합되도록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례를 들어 견학, 답사, 실험, 실습 등을 예견할 수 있다. 이것은 학습 생활을 다양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학습과 생산 로동을 결합시키며 실천에 적용할 수 있는 지식과 기능을 습득할 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이 수립된 학습 계획은 철저히 집행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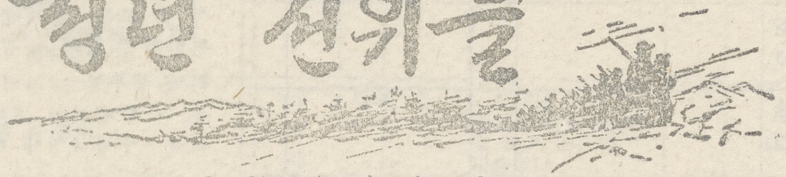
학습 계획의 수립은 학습을 잘 하기 위한 설계이며 작전 계획이다. 아무리 잘 세워진 학습 계획도 집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지혜와 노력을 기울여 세운 학습 계획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생활 조직을 잘 하여 최대한으로 학습 시간을 얻어 내며 학습 능률을 높이고 학습 방법을 부단히 개선하여야 한다.

그리고 일별, 주별, 월별, 학기 별 및 년간으로 학습 계획 집행 정형을 총화하고 학습의 개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서평

폭풍속에서 자란 청년 전위들



《청년 전위》(하)에 대하여

김 재 하

《청년 전위》(하)는 주인공 류 삼손이와 그의 전우들이 공청 생활을 거쳐 영예로운 공산 당원으로, 유격대의 믿음직한 지휘관으로 성장 발전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하발령 남쪽에서 적의 군용 렬차를 습격하는 유격대의 영웅성과 대담성을 보여 주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는 작품은 항일 무장 투쟁에서 의의 있는 전투들과 사변들을 배경으로 하여 젊은 공산주의자들의 정신적 풍모를 폭넓고 심오하게 보여 준다.

빨찌산 부대는 장백에 진출하고 간삼봉 전투를 비롯한 허다한 전투에서 불멸의 위훈을 세우며 삼손이를 비롯한 세 공작원들은 국내 공작의 영예로운 임무를 빛나게 수행하고 마침내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님을 모시고 조국에로 개선하는 장면에서 작품은 끝난다.

항일 무장 투쟁의 일대 서사시적 화폭을 보여 주는 이 작품의 중심에는 항일 빨찌산의 영웅들—청년 공산주의자들의 불굴의 혁명 정신이 그려져 있다. 자기의 청춘과 미래를 오직 혁명에 바치는 혁명 전위—청년 전위들의 고결한 혁명 정신을 밝혀 내는 데 작품의 초점이 돌려지고 있다.

이리하여 작품은 1930 년대 공산주의자들의 혁명 정신—혁명 위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불굴의 투쟁 정신, 혁명적 동지애, 혁명적 락관주의,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사상을 천명하고 있다.

이 작품은 력사적 사실에 대한 충실성과 진실성과 사실성에 의하여 우리의 마음을 틀어 잡는다.

작품은 력사적 사실에 충실하였다. 따라서 작품에 그려진 매개의 전투나 사변들은 그 자체로서도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산주의자들의 정신 세계를 예술적으로 재현하는 데 복종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투나 사변들은 청년 전위들의 성격을 해명하고 작품의 주제를 선명히 하며 사상을 힘 있게 전달하는 목적에 따라 그려지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의 혁명 정신은 투쟁에서 표현된다. 그 투쟁은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기 위한 투쟁이며 조선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투쟁이다. 그 투쟁은 모든 불평등과 온갖 착취를 송두리채 뿌리 빼고 인민의 나라를 건설하며 인민의 행복을 마련하기 위한 싸움을 의미한다. 《청년 전위》(하)의 긍정적 주인공들도 바로 이 투쟁 속에서 공산주의자들의 고매한 혁명 정신을 뚜렷이 보여 주고 있다.

주인공 류 삼손의 형상에서 주요한 것은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이다. 혁명은 끊임없이 새로운 과업을 내세웠고 그는 이 과업을 기꺼이 받아 들이고 이악하게 수행하여 나간다. 그는 조선의 맑은 물처럼 영원히 조국의 넋을 간직하고 순회를 고무하며 동지들을 이끌어 수령의 전사답게 굳건히 싸운다.

억천만 번 죽더라도 원쑤를 치자! 이것은 그의 생활과 투쟁의 신조로서 그것은 그 대로 혁명에 대한 그의 무한한 충실성을 말하여 준다.

처창즈에서 모진 곤난을 이겨 내면서 일제 침략군과 싸우는 것은 실로 힘에 겨운 일이였다. 그러나 혁명 대오에 튼튼히 서서 불굴의 투지로 싸워 적을 무찌르며 인민들의 생명을 지켜 낸다.

문제는 곤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대하는 사람의 사상에 달려 있다. 삼손의 앞에는 일시도 곤난이 가실 때란 없다. 그러나 그는 혁명 투지로써 곤난을 이겨 나간다. 처창즈로부터 내두산으로 가는 길에는 무수한 난관이 가로놓여 있었다. 먹을 것이 떨어진 데다가 일제《토벌대》들이 곳곳에서 유격대의 앞길을 가로막아 나섰다. 동지들을 원쑤들에게 잃는 비통한 체험을 겪어야 하였고 주리고 지쳐서 제 한 몸조차 가누기 어려울 때도 있었다.

내두산 근거지를 쳐 들어 온 원쑤들을 반대하는 싸움은 힘겹고 어려운 투쟁이였다. 그러나 그는 춘일이, 김 충진, 성숙, 경희 등 유격대원들, 그리고 유격대를 도와 나선 박 포수, 김 로인 등 내두산 인민들과 함께 원쑤들을 무찌르고야 말았다.

삼손이는 우수한 군사 간부일 뿐만 아니라 높은 정치적 식견을 가진 일'군으로 묘사되였다. 그것은 원쑤에게 체포되여 다소 동요했지만 혁명 조직에 손실을 주지 않은 박 재생을 믿고 혁명에 이바지하게끔 이끌어 간 데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식견은 대원들과 인민 대중 속에서 언제나 힘 있는 고무자로 되게 하였다.

그가 영예로운 당원으로 되는 날 다진 결의는 그의 혁명가다운 풍모를 뚜렷이 밝혀 준다.

《나는 영광스러운 공산당원으로서 조선 혁명을 위하여, 전 세계 피압박 민족과 근로 대중의 해방을 위하여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다 바쳐 싸우겠습니다.》

그는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였고 자기의 결의를 그 대로 실천에 옮겼다.

동강 회의에서 제시한 김 일성 원수의 전략 전술적 방침을 실천하기 위하여 삼손이는 정철이 룡택이와 함께 지방 당 공작 위원회 특파원으로 임명되였다. 그는 헐벗고 굶주리는 동포들의 가슴 속에 혁명의 불씨를 심어 주기 위한 일념으로 가슴을 태웠다. 그는 조급성에 사로잡힌 자신을 발견하자 자신을 꾸짖을 줄 알았으며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았다. 그런 것 만큼 혁명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려는 결의도 높았다.

그는 인민들을 믿었고 인민 대중 앞에서 책임질 줄 알았으며 또한 인민들을 반일 투쟁에 고무할 줄 알았다. 주 로인과 창권의 가슴 속에 혁명의 불씨를 지펴 주고 농조에 농민 청년들을 묶어 세웠다. 작품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김 일성 원수에 대한 조선 인민의 다함없는 흠모의 감정을 예술적으로 일반화하였고 청년 전위 삼손이의 혁명가적 풍모를 설득력 있게 보여 주고 있다.

영희의 원쑤를 갚으려고 투쟁하다가 희생된 자기 아들 때문에 수심에 잠겨 있는 시골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삼손이는 그에 깃든 사연을 알아 내고야 말며 그 어머니의 소원을 끝내 풀어 주고야 만다. 이것은 바로 인민에 대한 삼손이의 참된 립장을 말하여 주며 유격대원들의 인민적 립장을 뚜렷이 한다.

삼손이와 그의 전우들의 청년 전위다운 특징은 그들에 의하여 교양되고 지도를 받는 농민 청년들의 사상에서 일어 난 커다란 변화를 통하여 뚜렷이 밝혀지고 있다.

주철, 룡만, 주창이, 그리고 리 순철, 김 영국 등 농민 청년들은 삼손이와 그의 동지들의 지도 하에 혁명 청년 전위로 자라게 된다. 그들은 유격대원들의 일깨움을 받고 눈이 번쩍 띄였고 투쟁의 길에 나선다. 그들은 지난날 농조 운동에서 체험한 쓰라린 실패의 원인도 진실로 알게 되였고 혁명 투쟁이란 어떠한 것이며 바로 그것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도 리해하게 된다. 유격대는 말과 실천으로 혁명 투쟁이란 어떠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었고 농민들은 그들의 혁명 정신, 혁명적 실천을 본받아 투쟁의 길에 힘차게 나선다. 이러한 묘사 속에서 삼손의 혁명가다운 특징이 두드러지고 있다.

혁명가는 언제나 침착성과 함께 대담성도 있어야 하지만 어느 때나 준비된 태세에 있어야 하며 높은 경각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열흘이나 치렬한 전투를 계속한 유격대는 안도현 로진창에서 휴식하게 되였다. 대원들은 지칠 대로 지친 몸이여서 깊은 잠에 들었다. 삼손이는 《보초를 강화해야지, 그냥 두면 보초까지 잠들고 말 게야》하며 자꾸만 내려 덮이는 눈을 비비며 보초 구역을 돌아 보았다. 이럴즈음에 러 도산 《토벌대》가 쳐 들어 왔다. 치렬한 전투 끝에 유격대는 승리하였다. 작품은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 만일의 위험을 방지하는 혁명 투사들의 높은 각성과 영웅주의의 특징을 지극히 명료하게 보여 준다.

간삼봉 전투, 모령 습격 전투에서 삼손이가 발휘한 영웅성과 완강성에는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깊이 깨닫고 자기의 력사적 임무를 자

착하고 그 임무를 끝까지 관철하고야 마는 혁명 투사들의 고매한 정신 세계가 자리 잡고 있다. 이 고매한 혁명 정신은 화전련 푸르허 근방 전투에서도 완강성과 영웅성을 낳게 하였다. 우리는 여기서 참된 애국자, 혁명 투사는 진정한 국제주의 전사라는 것을 보게 된다. 일제 침략군이 쏘련을 침략하기 위하여 장고봉과 할힌골에서 전쟁을 일으켰을 때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김 일성 원수의 가르침을 받들어 어떻게 싸웠는가를 통하여 작품은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혁명 정신을 더욱 폭 넓고 심도 있게 보여 준다.

강철은 불 속에서 단련되며 투사는 혁명 투쟁에서 단련된다. 혁명 투쟁에서 위대한 수령은 정확한 방침을 세우고 혁명 전사들을 인민의 자유, 해방을 위한 투쟁에로 힘차게 고무한다.

작품은 김 일성 원수께서 혁명 발전의 매 단계에서 제시한 전략 전술적 방침의 정당성을 뚜렷이 보여 준다. 그것은 현실의 발전을 맑스-레닌주의적 립장에서 깊이 통찰하시고 가장 정당한 방침을 수립하는 것을 통하여, 또한 그 방침 대로 투쟁하여 언제나 승리하는 유격대원들의 투쟁의 행로를 통하여 밝혀지고 있다.

삼손이를 비롯한 유격대원들에게 무한한 힘과 용기를 준 것은 김 일성 원수이시다. 작품은 이것을 곳곳에서 보여 주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특별히 무송, 동강에서 삼손을 어버이 심정으로 맞이하는 원수님의 모습에서 보게 된다. 작품은 대원들을 아끼고 고무하는 원수님의 고상한 덕성을 삼손이, 정철이, 성숙이, 순희 등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보여 주고 있다.

아동단원들을 걱정하시고 대원들에 대하여 항상 깊은 배려를 돌리시는 원수님의 모습은 다면적으로 그려졌다. 춘일이와 같은 청년 전위를 잃은 것을 비통해 하시는 원수님의 고매한 덕성 앞에서 대원들은 감격을 참지 못한다.

대원들의 심정을 알아 차리시고 화제를 바꾸며 친히 병영으로 들어 가시여 대원들의 잠'자리까지 일일이 보살펴 주셨을 때 삼손은 많은 것을 생각하였다. 그는 과연 내가 매개 대원들의 잠'자리며 일상 생활에 대하여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를 돌이켜 보았다.

당 조직 파장 김 홍범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좌경 관료주의적 오유를 범했을 때 원수님이 그 오유의 원인이 어디 있으며 그를 어떻게 시정하여 주시였는가를 이야기한 것은 매우 특징적이다. 이러한 묘사를 통하여 원수님께서 어떻게 대원들을 혁명가로 길러 냈는가를 뚜렷이 볼 수 있다. 그러기에 삼손이가 영명한 지도자를 모시고 있는 무한한 긍지와 기쁨으로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낀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유격대 공작원이 이르는 곳마다에서 인민들이 김 일성 원수님을 참된 마음으로 흠모하고 그이께서 지도하시는 유격대원들의 지도를 받는 것을 긍지로 여기고 있는 힘을 다하여 반일 혁명의 길에 나서는 것을 통하여 인민의 수령 탁월한 혁명가의 모습이 폭 넓고 감동 깊게 안겨 온다.

작품은 김 일성 원수에 의하여 교양되고 자라 난 항일 유격대원들의 불굴의 혁명 정신, 영웅주의와 완강성을 일관하여 감동 깊은 화폭을 통하여 보여 준다. 이러한 의미에서 작품은 항일 유격대의 불굴의 혁명 정신에 대한 감동적인 서사시적 화폭이기도 하다. 이러한 특징은 현외와 인삼 아바이 그리고 영준이의 투쟁에서도 볼 수 있다. 현외는 놈들에게 잡힌 몸이였지만 결심하였다. 《혁명이란 혁명 대오 속에 있을 때만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환경과 조건을 옳게만 리용한다면 혁명 사업은 계속할 수 있지 않는가!》그는 결심한 대로 실천하였다. 대지주의 종으로 살면서도 종들을 일깨워 항일의 길에 나서게 하였다. 그는 뜻에 맞지 않는 결혼을 강제 당하였건만 일제 기관에 근무하는 남편 성태를 교양하여 혁명의 편에 서게 하였다.

원쑤들이 비록 생명을 빼앗을 수 있어도 공산주의자들의 혁명 사상은 결코 없앨 수 없다.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푸르허의 8 명의 용사들의 죽음도 이것을 설득력 있게 보여 준다.

인민들은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동요할 줄 몰랐고 혁명의 지조를 지켰다.

작품은 이와 반대로 김 중빈, 최 봉문, 리성환 등 혁명의 변절자들의 추악한 행동의 본질을 낱낱이 폭로하며 침략자, 계급적 원쑤들의 악랄한 행위를 낱낱이 드러냈다.

용감 무쌍한 영웅 혁명군의 사랑과 신임, 존경을 받은 청년 전위 추 춘일은 자기의 비

망록에 이렇게 썼다.

《제국주의가 이 세상에 남아 있는 한 동지들, 손에서 총을 놓지 말라! 우리의 무장은 조국 인민과 전 세계 로동 계급의 해방을 가져 오며 진정한 인민의 자유를 보위하는 무장이기 때문이다.》

작품은 그를 다만 맹세하는 것으로 보여 주지 않았다. 그 맹세를 실천하는 투사로 보여 주었다. 그리하여 주인공들의 성격은 투쟁 속에서 생동하게 드러난다. 그 성격에서 주도적인 것은 혁명을 끝낼 때까지는 무기를 틀어 잡고 싸우겠다는 투쟁 정신이다. 이 불굴의 혁명 정신이 영웅성과 완강성을 낳게 하였다. 이 정신이 작품의 주도적 사상이며 우리들이 본 받아야 할 혁명 사상이다.

작품에서 감명 깊게 묘사된 것의 하나는 항일 유격대원들의 혁명적 동지애이다.

삼손이와 순희, 정철이와 경희, 관규와 성숙이는 부부 간이다. 그들은 투쟁 속에서 사랑이 맺어 지고 투쟁 속에서 서로 고무하면서 투사로 단련되는 혁명 부부이다. 그들은 저창즈의 어려운 생활도 같이 이겨내고 가렬한 전투에서 함께 싸웠다. 어려운 임무를 맡고 헤여질 때도 서로 고무했다. 남편을 전투에서 잃은 쓰라린 체험을 겪으면서도 그들은 혁명 부부의 참다운 미덕을 보였다.

특히 동양툰 전투에서 발휘한 동지애는 우리의 심금을 울린다. 성숙이는 자기의 주변에 콕콕 박히는 적탄은 아랑곳하지 않고 적을 쏘아 대면서 택만이와 강철이를 후퇴시키고, 위기 일발의 순간 나는듯이 뛰여 와 삼손이를 자기 몸으로 막았다. 자기 몸을 희생시켜 동지를, 지휘관을 구원한 성숙이의 불타는 동지애, 그의 붉은 넋은 그 대로 항일 빨찌산 누구에게서나 볼 수 있다.

적을 앞에 두고는 사자와 같이 용맹한 그들, 그러나 동지들을 생각하는 데서는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고 눈물이 많은 그들의 아름다운 정신 세계는 작품을 일관하여 맥맥히 흐르고 있다. 동지들을 위한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여 드는 관규의 뜨거운 동지애는 실로 감동 깊게 그려졌다. 작렬하는 포탄 속을 뚫고 들어 가 동지를 제 몸으로 덮어 구원한 관규, 터지는 파편에 대장까지 비록이 나왔으나 끝내 동지를 업고 죽을 고비를 헤여 난 관규, 동지들의 행군로를 열기 위해 수십 리 눈 속에 빠져 들어 간 관규, 그를 구원하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하여 떨쳐 나선 혁명 전우들, 동지들을 위해 초막을 지어 세찬 눈보라 속에서도 하루'밤을 편히 지낼 수 있게 한 유격대원들의 동지애는 뜨겁고 감동 깊게 안겨 온다. 작품은 이러한 동지애가 항일 무장 대오를 불패의 힘으로 되게 한 요인의 하나라는 것을 뚜렷이 보여 준다.

이 작품의 사상 예술적 특징을 말하여 주는 다른 하나의 특징은 혁명적 랑만성에 대한 문제이다.

작품에서 혁명적 랑만성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승리에 대한 확신, 우리의 조국 땅 우에 인민의 나라를 건설하고야 말리라는 열렬한 지향, 그를 위한 불굴의 투쟁 정신에 대한 생동한 묘사를 통하여 나타난다. 삼손이를 비롯한 주인공들은 어떤 역경에서도 혁명적 락관을 가지고 투쟁의 길을 굳건히 걸어 나간다. 비관과 실망은 그들과는 인연이 없다. 순희와 그의 전우들은 사랑하는 아들 《곰》이에게서 언제나 혁명의 래일을 바라 보았다. 그들은 난관 앞에서 실망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승리의 서광을 찾았고 조국 해방의 날을 앞당기기 위해 싸우고 싸워 이겼다. 그러기에 우리는 작품을 읽으면서 공산주의자들의 혁명 정신을 한없이 빛나게 하는 혁명적 락관주의를 본받으려는 충동에 사로잡히게 된다.

장편 소설《청년 전위》에는 1930 년대 청년 전위—젊은 공산주의자들의 혁명 정신과 불멸의 위훈을 오늘 이 땅 우에서 행복하게 자라는 새 세대들에게 전하려는 작자의 간절한 소망이 힘 있게 깃들어 있다. 그것은 주인공들의 공산주의자다운 성격을 밝히고 작품의 사상을 힘 있게 드러 내는 작자의 열정을 통하여 힘차게 안겨 온다.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하여 오늘의 보람찬 생활이 1930 년대 공산주의자들의 불멸의 투쟁으로 하여 이룩되였다는 높은 긍지와 자랑과 행복감을 다시금 느끼면서 그들처럼 혁명 위업에 충실하리라는 새로운 결의를 굳게 다지게 된다.

평양성과 자모산성

우리 나라 산성의 력사

—김 유 방—



우리 나라에는 이르는 곳마다에 산성이 많다. 이것은 예로부터 우리 나라가 외적의 침입을 많이 받았음을 말해 준다. 더우기 기원 7 세기 경부터 약 천 년 동안은 외적의 피묻은 침략이 거의 끊치지 않았다.

우리는 오늘도 옛 산성들에서 외적의 침략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운 우리 선조들의 애국심과 높은 기개를 력력히 엿볼 수 있다.

우리 나라 산성들의 축조 방법과 규모, 그 산성의 래력들은 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 각이하다.

생산력과 기술이 아직 덜 발전한 고대 사회에서는 손 쉽게 쌓을 수 있는 토성(土城—흙으로 쌓은 성)을 많이 쌓았고 그 규모도 매우 작았다. 이러한 토성은 높이 쌓아 올리기도 곤난하였고 그 수명도 길지 못 했다.

그래서 다음에는 돌과 흙으로 성을 쌓는 방법이 적용되였고 차츰 생산력과 기술이 발전해 감에 따라 석성(石城—돌로 쌓은 성)을 쌓게 되였다.

석성도 처음에는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았고 훨씬 후에 와서야 넙적하게 다듬은 돌로 정연하게 쌓아 올렸다.

이런 석성은 우리 나라 도처에서 볼 수 있다. 그러면 먼저 1,500여 년 전부터 외적의 침입을 반대함에 있어서 커다란 역할을 논 평양성과 자모산성에 대하여 보기로 하자!

평 양 성

평양은 실로 유구한 력사를 가진 고대 문화의 도시이다. 이 지방에서 발굴되는 출토품과 문헌 기록에 의하면 평양 지방에는 일찌기 원시 시대부터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벌써 3 세기 중엽부터는 고구려가 평양을 군사 상 요새지로 정하고 견고한 석성을 쌓기 시작하였다. 고구려 때의 평양에는 세 개의 성이 있었는데 대성산성, 청암리 토성, 그리고 오늘의 평양성이 그것이다.

대성산성은 대성산 마루로부터 약 20 리 길이로 뻗어 있는 산성으로서 우리 나라에서 가장 오랜 산성 중의 하나이다.

고구려가 평양에 처음으로 도읍을 정한 곳이 바로 이 대성산성이였다.

지금 대성산 밑에 있는 《안학궁》 터가 바로 고구려 때에 왕궁이 있던 곳이다.

그러나 대성산성은 동방의 강국이였던 고구려의 수도로서는 너무 좁았다. 그러므로 고구려는 36 년 동안 막대한 로력과 물자를 들여 평양성(당시의 장안성)을 새로 구축하고 586 년에 이곳으로 수도를 옮겼다.

그 주위가 40 리나 되는 평양성은 대동강과 보통강의 자연적인 성호(성 주위에 도랑을 파서 적들이 건너 오지 못 하게 한 연못)로서 둘러 싸인 견고하고 웅대한 난공 불락의 요새였다.

견고한 돌을 미끈하게 다듬어서 높이 쌓아 올린 성벽들은 1,500 년의 비'바람 속에서도 굳건하게 유지되여 지금도 그 성터의 일부를 찾아 볼 수 있다.

우리 선조들은 이 성에 의거하여 외적의 침입을 물리치고 조국의 영예를 고수하였다.

고구려 시기에 수 나라의 300만 대군이 우리 나라를 침입하여 왔을 때에도 이 성은 오만 무례한 침략자들을 격멸 소탕하는 일대 결전장으로 되였었다.

그 때 적의 해군은 대동강 하구에 도착하여 자기들의 륙군이 평양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원래 적들은 륙군과 해군이 동시에 평양성을 공격하기로 약속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료동 지방에서 우리 고구려 군사들의 용감무쌍한 방어전에 조우하여 적의 륙군은 계획대로 평양으로 올 수 없었다.

륙군이 도착하기를 오래 동안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식량이 떨어지고 날이 갈수록 군사들의 사기가 저락되게 되자 적 해군 사령관 래 호아는 단독적으로 평양성을 공격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적들은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와서 평양성 밖 60 리 지점까지 도달하였다.

이 곳을 지키던 고 건무 장군은 탁월한 명장 을지 문덕 장군의 지도 하에 적군과 싸우다가 패배하여 도망 치는 척하면서 적들을 평양성으로 유인하였다.

적장 래 호아는 이것이 고구려군의 전술인 줄은 모르고 자기 해군만으로서도 능히 평양성을 함락시킬 수 있다고 오산하고 4만 명의 정예 부대를 선발하여 고구려군을 《추격》하였다.

고구려군은 적들을 유인하여 평양성 안의 한 모퉁이로(오늘의 외성 구역 쪽) 끌어 들였다.

적군이 성안에 들어 와 보니 민가는 비였고 집집마다 소 다리, 돼지 고기 등 고기 반찬이 푸짐하게 걸려 있었으며 부엌에는 독마다 술이 가득차 있었다. 방 안에는 또한 비단이 필로 널려 있었다.

굶주리고 지친 적 병졸들은 이것을 보자 입안에 군침이 저절로 돌았고 눈은 희귀한 물품에 대한 야욕으로 불탔다.

적장 래 호아은 오만하게도 평양성이 함락된 것으로 생각하고 군사를 풀어 략탈에로 내몰았다. 적병은 미칠듯이 마시며 먹으며 훔치기 시작하였다. 얼마 후 적병들은 술에 만취되여 고주망태가 되였다.

바로 이러한 때에 고 건무 장군은 미리 절'간에 매복시켰던 병사들에게 총공격 명령을 내렸다. 우리 습격조원들은 일시에 함성을 지르며 비호 같이 달려 들어 적병들을 닥치는 대로 무찔렀다.

불의의 습격에 당황한 적군은 아우성을 치며 쓰러졌다. 이리하여 4만 명의 적군 중에서 평양성을 빠져 나간 자는 겨우 수천 명에 지나지 않았다.

이 전투에서 주력이 붕괴되였으므로 소위 적의 수륙 병진 작전은 완전히 파탄되고 말았다. 평양성 방어에서 거둔 승리는 전쟁 정세를 결정적으로 전환시키는 계기로 되였다.

평양성 안에서 높은 곳은 모란봉에 있는 을밀대이다. 그러므로 을밀대는 평양성을 지키는 싸움마다에서 대체로 우리 군대의 지휘처가 되였다.

을밀대라는 이름은 고구려의 명장 을지 문덕의 아들 《을밀》이 여기서 전투를 지휘하였다는 전설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한다.

임진 조국 전쟁 시기에 평양성으로 기여 드는 왜적을 막아 싸우던 고 언백 부대는 을밀대에 진을 치고 그 주변 나무'가지에 흰 옷을 걸어 병사가 많은 것으로 가장함으로써 불과 수십 명의 인원으로 2만여 명의 적군의 전진을 6 일 간이나 지연시키고 우리 군사들의 전략적 후퇴를 성과적으로 보장하였다.

이렇듯 을밀대는 전쟁 풍파를 많이 겪은 곳으로서 그 기둥에 남아 있는 많은 탄알 구멍은 지난날의 력사를 잘 말해 주는 것이다.

그 밖에도 유구한 력사를 지니고 있는 평양성에는 외적을 방어하는 투쟁에서 이 나라 인민들이 발휘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영웅적인 이야기들과 애국의 넋이 깃들어 있다.

자 모 산 성

자모산성은 평안 남도 순안군 자모산에 있는 성이다.

이름 높은 석암 저수지에서 동북쪽으로 약 40 리 가량 되는 곳에 있는 자모산은 예로부터 자애로운 어머니산으로 불리여 왔다.

우거진 소나무 사이를 헤치며 강파로운 산'길을 올라 가 산정에 다달으면 둘레가 15 리 가량 되는 자그마한 분지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마치 커다란 세수'대야 안을 방불케 한다. 자모산성은 바로 이 분지의 주위에 빙 둘러 구축되여 있다.

이 산성의 축성 년대에 대해서는 옛날 책들에도 자세한 기록이 없으나 부근에 있는 고구려 시기의 고분들과 산성들 그리고 성'돌과 성의 구조 등으로 미루어 보아 고구려 시기에 평양성을 방위하기 위한 외성(外城)으로 쌓은 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산성은 해발 약 600 메터의 견고한 자연 요새를 리용하여 돌로 쌓은 것으로서 주위 약 6 키로 메터, 높이 약 4 메터나 되는 견고한 성이다.

이 산성은 위치 상으로 보아 순안, 자산, 숙천, 증산, 개천, 성천, 강동 등 평안도 13 개 군의 중심지로서 평양과 개성 방면으로 남침하려는 북방의 외적들을 방어하기 위한 중요한 요새였었다.

그러므로 적들은 우리 나라에 침략의 마수를 뻗칠 때마다 이 산성을 공격하군 하였다. 만약 이 성을 점령 못 한 채 남으로 침입한다면 후방이 차단되고 포위 당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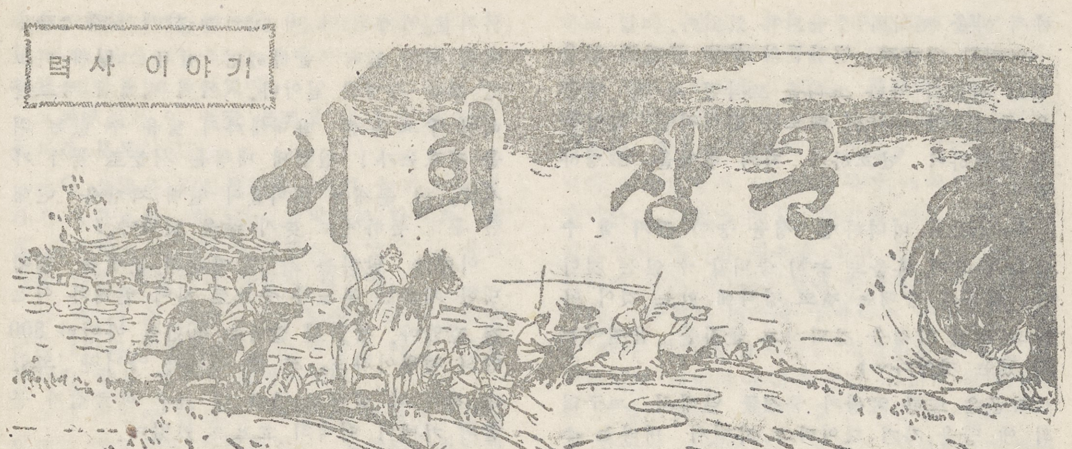
지금으로부터 약 1,000여 년 전의 먼 옛날인 10 세기 말 11 세기 초에 고려 땅에 수차에 걸쳐 침입해 온 거란군들이 이 산성을 여러 번 공격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 성내 인민들과 군사들은 이 견고한 산성에 의거하면서 원수들이 쳐들어 올 때마다 그들에게 무리죽음을 안겼다.

1231년에는 원 나라의 수십만 대군이 압록강을 건너 구주성을 공격하다가 실패하고 다시 남진하여 이 자모산성을 여덟 겹으로 포위했었다. 이 때에도 성안 군사들과 인민들은 최 춘명 장군의 지휘 밑에 영웅적인 항쟁을 계속하였다. 그들은 적들이 성벽에 기여 오를 때는 성 우에서 바위를 굴리고 끓는 물을 퍼부어 원수들에게 무리죽음을 안겼다. 그래서 천하 무적이라고 호언 장담하던 원 나라 군사도 끝내 성을 빼앗지 못한 채 그 대로 남침하여 수도 개경(오늘의 개성)을 공격하였다. 그런데 이에 겁을 먹은 고려의 왕실은 원 나라와 화친한다는 구실 밑에 용감한 자모산성 방어자들에게 항복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국가의 운명이 위태로운 시기에 최 춘명 장군은 위험을 무릅쓰고 단신으로라도 적장을 만나 원수들의 흉악한 침략 기도를 규탄하려고 결연히 적진으로 찾아 갔다. 그런데 거만한 적장은 최 장군을 체포하고 무조건 투항하라고 강요하였다. 그러나 우국 충정에 불타는 최 장군은 조금도 이에 굴하지 않고 원수들의 오만 무례한 행동에 대하여 추상 같이 꾸짖었다. 간악한 적장도 최 장군의 높은 절개와 애국심에 탄복하여 《그는 비록 우리에게는 적이지만 고려에는 훌륭한 충신이다.》라고 하면서 진수 성찬을 차려 장군에게 대접하고 끝 석방하였다. 그 후 성에 돌아 온 장군은 성내 인민들과 함께 끝까지 성을 지켰고 원 나라 군대를 물리쳤다.

그 밖에도 17 세기에 수십만의 녀진족이 쳐들어 왔을 때에도 이 산성은 끝내 정복되지 않았다.

우리는 이러한 자모산성의 력사에서 외래 침략자를 반대하여 영용하게 싸운 선조들의 슬기로운 모습을 여실히 찾아 볼 수 있다.



력사 이야기

서 희 장 군

김 용 중

서 희 장군은 942년에 고려의 고관인 내의령(內議令) 서 필의 아들로 개경(오늘의 개성)에서 태여 났다.

장군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모두 소박하고 강직한 성미에 나라를 사랑하는 티 없이 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였다.

이러한 가정에서 자라 난 서 희 장군은 어린 시절부터 글'공부에 매우 부지런하였고 무술도 련마하여 성장함에 따라 더욱 문무의 자질을 겸비하게 되였다. 장군은 성격이 겸손하고 청렴했으며 사생활이 검박하였다. 또한 의협심과 대담성이 강하고 옳은 일을 위해서는 굽힐 줄 모르는 강직한 성격을 지닌 사람이였다.

장군은 벌써 18 세 때에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들어 섰고 30 전에 내의시랑(內議侍郞)이라는 높은 벼슬을 했으며 40 고개에 들어서면서부터는 국왕의 지극한 사랑을 받는 고관으로 되였다. 이리하여 장군은 벌써 청년 시절부터 안으로는 나라 정사를 보살피는 정치 활동가로서, 밖으로는 외적을 물리친 우수한 군사 지휘관으로서 그의 명성이 자못 높았다.

서 희 장군의 조국과 인민에 대한 높은 사랑과 원수에 대한 불붙는 증오와 불굴의 투지, 강인한 의지와 결단성 등 고귀한 품성들은 거란 침략자와의 전쟁에서 집중적으로 발현되였다.

호시탐탐 고려를 노려 오던 거란 침략자들은 993년에 소 손녕의 지휘 밑에 80만 대군을 몰아 제 1 차로 고려에 쳐 들어 왔다.

고려 조정에서는 이에 대처하여 서 희 장군을 중군사로 임명하여 그에게 조국 방어의 중책을 맡겼다. 그리고 국왕인 성종 자신은 방어군의 총지휘를 담당하고 장차 안북부(오늘의 안주)까지 나아갈 계획 밑에 서경(오늘의 평양)에 진출하였다.

불의에 대규모적인 침입을 감행한 적군은 일시적으로 전쟁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청천강 계선에까지 남침해 왔다. 그러나 적군은 청천강 계선이 천연의 요새일 뿐만 아니라 수십만의 우리 군사들이 방어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감히 공세를 서둘지 못 하면서 《통첩》을 보내 왔다. 즉 그 통첩의 내용인즉 거란은 이미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여 항복을 받은 강국이니 감히 대항할 념을 말고 고려가 차지한 옛 고구려의 땅을 내놓되 만일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일거에 소탕하겠다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이였다.

이 황당한 《통첩》을 받은 서 희 장군은 이것은 결코 적이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위력 앞에 겁을 먹고 있는 단'적인 증거라고 명철하게 판단하였다. 장군은 적정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더 퐁진을 적진에 파하였는데 그가 돌아 와서 하는 말이 적군의 형편은 과연 장군의 판단과 다름 없다는 것이였다.

이 때 조정에서는 적과의 강화 체결 문제를 가지고 중신들 속에서 매우 의견이 구구하던 때였다. 일부 비겁한 대신들은 적의 위협에 겁을 집어 먹은 나머지 항복하자고 했고 또 어떤 대신은 평양 이북 지방을 적에게 떼여 주고 황주 절령선으로 국경을 삼자는 반역적인 제의까지 들고 나왔다. 이런 형편에서 국왕 자신도 심한 동요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전선에 있는 우리 인민과 군사들은 조국 수호를 위한 멸적의 투지를 다지면서 끝

까지 싸울 결의에 충만되여 있었다.

이러한 애국적 인민들의 무궁 무진한 힘을 믿고 적군의 약한 고리를 포착한 서 희 장군은 중신들의 나약한 태도와 반역적인 발언들을 반대하여 단호하게 자기 립장을 표명하였다.

《…군량이 넉넉하면 성을 능히 지켜 낼 수 있을 뿐더러 싸움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싸움의 승패는 결코 강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적의 약점을 간파하고 군사를 움직이는 데 있는 것이다…》

장군은 또한 국왕과 중신들 앞에서 고구려의 옛 땅을 자기 것이라고 하면서 내라는 소 손녕의 불손한 태도에 대하여 날카롭게 분석하였다.

《원래 거란의 동경(거란의 서울, 오늘의 동북)으로부터 우리 안북부(오늘의 안주)에 이르는 넓은 지역은 녀진인들이 웅거하고 있던 곳으로서 일찌기 광종이 이 곳을 개척하였는데 지금 적들이 이를 빼앗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심히 어리석은 수작이다. 만약 이 위협 앞에 눌리여 고구려의 옛 땅인 서경(평양) 이북을 내여 준다면 삼각산 이북도 옛 고구려 땅이거늘 여기도 다 내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적의 위협 앞에 굴복하면 결국 그렇게 되고 말 것은 자명한 일이다. 어찌 적에게 국토를 떼여 주고 후손 만대에까지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겠는가! 원컨대 대왕은 서울로 돌아 가시라.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일대 격전을 단행한 후에 론하여도 늦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서 희 장군의 눈에는 적에 대한 치솟는 분노와 증오로 하여 번개가 이는 것 같았다. 장군의 말에는 80만이 아니라 800만의 적병이라도, 또 강 건너가 아니라 코앞에 적이 와 있어도 당해 낼 높은 애국심과 불굴의 기백이 맥맥히 흐르고 있었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항복을 주장하던 중신들도 심한 자책을 느끼고 용기를 얻어 항전을 결의하게 되였다.

한편 적장 소 손녕은 《통첩》을 보낸 지 며칠이 지났으나 대답을 받지 못하여 초조하던 나머지 이 번에는 《군사적 압력》으로 고려를 굴복시킬 목적 밑에 안융진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이 때 안융진에 있던 군사들과 인민들은 불굴의 투지와 영웅적인 항전으로 적군의 공격을 물리쳤다. 무모하게 떠보려다가 무리



죽음을 당한 적군은 더는 남하할 생각을 하지 못 하고 다시 《항복》을 재촉하면서 고려 대신과의 면담을 요구하였다.

고려에서는 이 담판 문제를 둘러 싸고 다시 론의가 분분하였다.

국왕 성종은 군신들에게 《누가 능히 적진에 가서 담판으로 대군을 물리치고 만대의 공을 세우겠는가?》라고 하였으나 누구 한 사람 선뜻 이에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 때 서 희 장군이 《제가 왕명을 받들겠습니다.》라고 대답하면서 한 목숨을 바쳐 적을 물리칠 굳은 결의를 표명하였다.

그가 적진에 이르자 적장 소 손녕은 주제넘게도 승리자로 자처하면서 임금과 신하의 례의로 자기를 대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서 희 장군은 적장의 오만 무례한 태도에 굴함이 없이 한 나라를 대표한 외교관으로서 자기 립장을 떳떳하게 지켰다.

서 희 장군은 두 나라 대신의 담판에서 상하가 있을 수 있겠는가. 일 대 일의 담판을 해야 응하겠다고 강경하게 주장하였다.

소 손녕은 처음 주장을 쉽사리 철회하지 않았음으로 담판은 쉽게 성립되지 않았다.

적의 부당한 처사와 고집에 분개한 서 희 장군은 자기 숙소에 누워서 일어 나지도 않으면서 그런 불공평한 담판을 강경히 거절하였다.

그의 이러한 행동이 바로 80만 대군이 우글거리는 적진 속에서 취해졌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가 얼마나 대담한 장군이였던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80만의 적 대군을 능히 한 눈에 눌러 보는 고려 사람으로서의 높은 자부심과 긍지, 그리고 천재적인 지략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되자 마침내 적장은 장군의 주장에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었으며 동서로 마주 앉아 일 대 일의 담판을 하게 되였다.

담판에서 적장 소 손녕은 고구려의 옛 령토를 내라는 진부한 《주장》을 되풀이하였다.

또 그는 고려가 거란과 접경하고 있으면서도 거란을 무시하고 바다 건너 송나라와 가까이 지내는 것을 시비하여 나섰다.

이는 터무니 없는 략탈자들의 《주장》이며 남의 나라의 내정에 대한 횡포한 간섭이였다.

이에 대답하여 서 희 장군은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로서 나라 이름까지 고려라 하였고 도읍을 고구려의 수도인 평양에도 정하고 있다. 만일 지경을 론할진대 당신들의 동경이 우리 국경선 안에 있다. 어떻게 우리를 보고 당신들의 땅을 침범했다고 말할 수 있는겠가?》라고 소 손녕의 말문을 막아 버렸다. 또한 침략자들이 저들을 섬기라는 문제에 언급하면서 《물론 압록강 내외는 우리의 땅이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녀진족이 살고 있으면서 우리의 길목을 막고 있기에 거란과 통하지 않고 바다를 건너 송나라와 통하는 것이다. 우리가 녀진을 구축하고 우리의 옛 땅을 찾아 여기에 요새들을 건설하고 도로를 개척한다면 거란과 통하지 않을 까닭이 없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와 같이 장군은 서북 개척을 완강히 계속하려는 고려의 강경한 태도를 명백히 표시하면서도 적의 《위신》을 적당히 세워 주는 탁월한 외교관으로서의 능숙한 솜씨를 보여 주었다.

서 희 장군의 름름한 품격과 도도한 기상, 사리 정연하고 강경한 론거에는 오만 무례한 적장도 위압 당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궁지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싸움에 지고 담판에 진 적장—소 손녕은 《화친》했다는 구실 밑에 황급히 군사를 거두어 가지고 되돌아 가지 않을 수 없었다.

서 희 장군이 일 주일 간의 담판에서 승리하고 돌아 오려 할 때 소 손녕은 담판 초기 거만 무도한 태도와는 달리 서 희 장군을 위하여 대연회를 베풀었고 그에게 락타 10 필, 말 100 필, 양 1,000 두, 비단 500 필에 달하는 막대한 선물까지 하였다.

전체 군인들과 인민들은 개선 장군 서 희에 대한 무한한 존경과 사랑을 가지고 또 승리자의 높은 긍지를 가지고 그를 열렬히 환영하였다.

서 희 장군은 그 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군사를 거느리고 서북 지방의 축성 사업을 직접 조직 지도하였다. 장군의 지휘 하에 진행된 이러한 사업들은 후일 수 차례에 걸치는 거란군의 침입을 격퇴하고 능히 나라의 영예와 독립을 고수할 수 있었던 중요한 담보로 되였다.

고려 초기의 북방 정세를 바로 잡으면서 일심 정력 나라의 륭성 발전을 위하여 분투한 서 희 장군은 998년 57 세를 일기로 빛나는 자기의 생애를 마치였다.

그러나 그가 남긴 불멸의 애국주의는 오늘날에도 인민들의 심장 속에 길이 살아 있으며 찬란한 빛을 뿌리고 있다.

열성자들을 위하여

초급 단체 사업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로 홍 재

초급 단체(분초급 단체)가 자기 앞에 나선 모든 사업을 원만히 수행하자면 반드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사업하여야 한다.

초급 단체들에서는 월 사업 계획을 세운다. 그러나 김 일성 동지의 현지 교시, 중요한 당 결정과 상급 동맹의 결정 등 비교적 오랜 기간을 두고 집행하여야 할 과업이 제기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전망 계획을 가질 수 있다.

초급 단체들의 사업 계획은 사람과의 사업을 위주로 하여 자기 앞에 제기된 모든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수립되여야 한다.

초급 단체(분초급 단체) 사업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선 당 정책과 김 일성 동지의 교시에 철저히 의거하여 사업 계획을 세워야 한다.

당 정책과 김 일성 동지의 교시는 우리의 모든 사업에서 방향을 가리켜 주는 행동의 지침이다. 그러므로 초급 단체들은 반드시 제시된 당 정책과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철저히 연구 파악하고 거기에서 사업을 집행할 방향과 방도를 찾아 내여 구체적으로 계획에 예견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상급 동맹 단체들의 결정 지시들과 사업 계획을 깊이 연구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대중의 집체적 지혜에 의거하여 계획을 세워야 한다.

계획은 대중의 집체적 지혜에 의거하여 작성될 때만이 보다 현실적이고 힘에 맞는 것으로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초급 단체들에서는 위원들, 분조장들, 그리고 사로청원들과 광범히 협의하여 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한 계획은 초급 단체 위원장이 직접 세워야 한다.

초급 단체 위원장들은 당과 상급 동맹의 결정, 지시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알며 해당 단위의 실정을 정확히 료해 장악하고 있다. 그러므로 초급 단체 위원장들이 계획을 직접 수립해야만 당 정책과 해당 단체의 구체적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초급 단체(분초급 단체)들의 사업 계획을 어떠한 내용과 형식으로 수립하여야 하는가?

초급 단체 사업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아야 한다.

우선 총회 및 위원회 운영 계획이 반영되여야 한다.

총회 계획에는 총회에서 취급할 문제들과 총회 날자, 준비자와 보고자, 총회의 진행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여야 한다.

총회는 월 1 회 정도 예견하여야 한다.

위원회 계획에는 위원회에서 토의할 문제들과 회의 날자 및 준비자가 명백히 지적되여야 한다.

계획에는 또한 해당 월간에 진행할 조직 정치 사업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여야 한다.

우선 사로청원들에 대한 교양 사업 즉 당의 결정, 지시들과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침투시키기 위한 사업, 공산주의 교양과 혁명 전통 교양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자기 단체의 실정을 가지고 사로청원들을 교양할 데 대한 사업 등이 반영되여야 한다.

또한 사로청원들 속에서 규약 학습의 조직, 사로청원들의 동맹 생활 총화, 개별적 사로청원들에 대한 지도, 방조 사업 등 동맹 생활을 강화할 데 대한 문제가 반영되여야 한다. 그리고 가맹 대상자들에 대한 교양과 사로청 대렬에 받아 들이기 위한 사업, 조선 로동당 입당 보충 대상자들에 대한 지도 방조 대책을 예견하여야 한다.

계획에는 이 밖에도 사로청원들과 청년들을 혁명 과업 수행에 적극 조직 동원하기 위한 문제가 반영되여야 한다.

초급 단체 사업 계획에는 이상과 같은 기본 내용과 함께 그를 집행하기 위한 방법들과 분공 조직, 집행 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예견되여야 한다.

초급 단체의 사업 계획은 그가 처한 구체적 실정과 해당 계획 월간에 제기되는 사업들이 각이하기 때문에 고정된 틀에 맞추어 세울 수 없으므로 자체의 구체적 실정에 적합한 형식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그러나 어떠한 형식으로 세우든지 간에 계획은 반드시 초급 단체가 해결하여야 할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기간과 책임 한계가 명확히 규정되여야 한다.

사업 계획을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수립할 것인가?

중요한 것은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준비 사업을 철저히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해당 시기에 제시된 당 정책과 김 일성 동지의 교시들을 자기 앞에 제기된 과업과 결부시켜 철저히 연구 파악하며 상급 동맹 단체의 결정과 지시를 잘 연구하여야 한다.

또한 중요한 것은 자체의 실정을 정확히 료해 장악하여야 한다. 즉 초급 단체들은 그 달에 할 사업은 무엇인데 사로청원들의 동맹 생활 정형과 사상 동태는 어떠한가를 구체적으로 료해 장악하여야 한다. 자체의 실정을 구체적으로 료해 장악하기 위하여서는 항상 사로청원들 속에 깊이 침투하여 그들의 의견을 광범히 청취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지난 달 사업 계획 실행 정형을 정확히 분석 총화하여야 한다.

초급 단체들은 이상과 같은 준비에 기초하여 자기 앞에 제기된 복잡한 사업들 가운데서 선후차를 가리고 중심 고리를 정확히 포착하여 그 달의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은 고정 불변하지는 않으나 대체로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좋다.

우선 초급 단체 위원장들이 월 사업의 중심 방향과 그의 실행 방도들에 대한 자체의 결심을 채택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자기가 세운 중심 방향과 그의 실행 방도를 위원회에 제기하여 집체적으로 협의한 후 직접 사업 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된 계획서 초안은 광범한 핵심들이 참가한 위원회에서 토의하고 완성시킨 다음에는 반드시 해당 당 세포 위원회의 지도를 받아 더욱 보충 완성하여 총회에서 비준하여야 한다. 총회에서는 계획서 초안을 조목 별로 따져 가면서 토의 비준하는 것이 좋다.

비준된 월 사업 계획에 근거하여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들은 월 사업 계획 집행을 조직하기 위한 개별 행동 계획을 주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사업 계획 집행을 위한 조직과 총화 사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초급 단체들은 계획을 세운 다음에는 그것이 철저히 집행되도록 조직 사업을 따라 세워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수립된 계획의 내용을 대중들에게 알려 주는 것이다. 동시에 계획 집행에로 맹원들을 발동시키기 위한 위원장, 부위원장들의 행동 계획을 세워야 한다. 행동 계획은 주 별로 세우되 수첩이나 사업 일지에 세우는 것이 좋다.

다음으로 계획 집행 정형을 일상적으로 료해 장악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리하여 계획 실행 과정에서 걸리고 있는 문제를 풀어 주며 모르는 문제는 가르쳐 주는 등 분공 받은 동무들이 자기 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사업 계획 집행 정형에 대한 총화 사업을 잘 하여야 한다.

초급 단체들은 매주 월 사업 계획 집행 정형을 위원회에서 총화하고 미진된 부문을 추진시키기 위한 대책을 세우며 월말에 가서 계획 집행 정형을 전반적으로 총화하고 다음 달 사업 계획을 비준하여야 한다.

세계지식

라오스 문제

김 능 억

인도지나 반도의 《지붕》

라오스는 인도지나 반도에 위치한 왕국으로서 중국, 월남, 버마, 타이, 캄보쟈 등 여러 나라들과 접하고 있다.

면적은 23만 6천여 평방 키로 메터이며 인구는 약 300만이고 수도는 비엔티안이다. 국토의 80%가 높은 산악 지대로서 흔히 사람들은 라오스를 인도지나 반도의 《지붕》이라고 부른다. 이 나라에는 아직 철도가 없다.

라오스에서는 쌀, 옥수수, 면화, 담배, 커피 등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며 주석, 연, 동, 철, 금, 텅그스텐, 백금, 무연탄, 갈탄 등 지하 자원들도 풍부하다.

라오스는 749년에 형성된 이래 점차 강대하여져서 14 세기에는 동남 아세아에서 가장 번성한 나라들 중의 하나였다.

오랜 독립 국가로서 번영해 오던 라오스는 1893년에 불란서 식민주의자들에 의하여 강점되였고 그 때부터 라오스 인민은 외래 침략자들의 헤아릴 수 없는 억압과 착취에 신음하게 되였다.

제 2 차 세계 대전 시기에 일시 일본 군국주의자들에게 식민주의의 자리를 빼앗겼던 불란서는 대전이 끝나자 다시 옛 지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침략의 마수를 뻐치였다.

라오스 인민은 외래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의 마수가 뻐치는 첫 날부터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투쟁을 과감히 전개하여 왔다. 외래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라오스 인민의 투쟁은 2차 대전 후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였다.

불란서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의 불'길 속에서 1949년 1월 20일에 라오스 인민의 무장력인 파테트 라오 전투 부대가 창건되였다. (<파테트>라는 것은 라오스 말로 인민이라는 뜻이며 <라오>라는 것은 라오스라는 뜻이다. 따라서 파테트 라오 전투 부대라는 것은 라오스 인민 군대라는 뜻이다.)

파테트 라오 전투 부대는 창건 당시 25 명에 불과하던 것이 투쟁 과정에서 무적의 전투 대오로 급속히 장성 강화되였다.

1954년에 이르러 파테트 라오 전투 부대는 1만 7천여 명의 불란서 침략군을 살상 포로하고 2만여 정의 각종 무기를 로획하였으며 전국 령토의 2분의 1과 인구의 3분의 1을 해방하였다.

이와 같이 날로 장성 강화되는 라오스 인민의 강력한 항쟁과 라오스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항의에 부딪친 불란서 제국주의자들은 라오스 인민 앞에 무릎을 꿇게 되였고 1954년 7월 20일 라오스의 평화와 중립, 독립을 보장할 데 관한 제네바 협정에 조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라오스 인민은 오직 제국주의와의 투쟁을 통하여 피흘려 싸운 대'가로 독립과 평화, 중립의 길을 개척하였던 것이다.

라오스의 독립과 중립의 파괴자

라오스 인민이 쟁취한 독립과 평화, 중립의 길은 불란서 제국주의를 대신하여 기여든 미제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다시 짓밟히게 되였다.

미제는 제네바 협정이 조인된 첫 날부터 국제 협정을 란폭하게 유린하면서 라오스에 대한 침략 책동을 서슴 없이 감행해 나섰다. 놈들의 침략 책동은 특히 왕국 정부와 파테트 라오 전투 부대 간에 협상이 이루어져 수반나 푸마를 수상으로 하는 련립 정부가 수립되였던 1957년부터 더욱 악랄하여졌다.

1958년 7월 미제는 친미 주구 사나니코네 도당을 사촉하여 라오스 련립 정부를 전복하고 친미 괴뢰 정부를 조작하였다. 그러나 미제의 이러한 책동도 파테트 라오 전투 부대와 애국 력량의 완강한 항거에 부딪쳐 여지 없이 파탄되고 말았다.

미제는 또 1960년 4월에 보다 철저한 친미 주구 솜사니트를 내세워 군사 독재 정권을 조작하였으나 이것 역시 군사 쿠데타에 의하여 전복되고 1960년 8월에 수반나 푸마를 수위로 한 련립 정부가 수립되였다. 이것은 라오스에 대한 내정 간섭을 마음대로 하려던 미제의 기도를 좌절시켰으며 라오스 사태를 정상화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이러한 사태 발전에 당황한 미제는 전복된 솜사니트 정부의 국방상이였던 노사방을 내세워 재차 국내 전쟁을 도발하는 죄행을 감행하였다.

이에 대처하여 파테트 라오 전투 부대와 왕국 정부군은 긴밀한 협동 작전으로 놈들의 공격을 격파하였다.

미제 역시 불란서 침략자와 마찬가지로 라오스 인민들의 강력한 항쟁에 부딪쳐 종국적인 참패를 면치 못 하게 되였고 1961년 5월에는 무릎을 꿇고 정화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화 후 제네바에서 라오스 문제에 관한 14 개국 국제 회의가 열렸으며 한편으로는 파테트 라오 전투 부대, 중립 세력, 노사방을 두목으로 하는 우익 세력 간에 통일을 위한 협상이 개시되였다.

통일을 위한 세 관계측 간의 협상에 의하여 1962년 6월 11일 라오스에서는 파테트 라오와 중립 세력 및 사반나케트 집단 등 세 관계측 대표들로 되는 림시 민족 통일 정부가 수립되였다. 7월 23일에는 라오스에 관한 제네바 협정이 성립되였다.

제네바 협정은 라오스에 대한 어떠한 내정 간섭도 허용하지 않으며, 라오스를 어떠한 군사적 동맹에도 끌어 들이지 않으며, 라오스에서의 일체 외국 군대 주둔 및 군사 기지 설치를 허용하지 않으며, 라오스의 중립, 독립을 국제적으로 보장할 데 대하여 규정하였다.

상습적인 국제 공약 위반자의 가증스러운 책동

제네바 협정이 조인되고 라오스 민족 통일 정부가 수립된 후에도 상습적인 국제 공약 위반자 미제는 민족 통일 정부를 전복하기 위하여 가진 범죄적 책동을 다하였다.

민족 통일 정부 수립 초기 미제는 우익 반동들을 사촉하여 정부 기관을 비엔티안에 설치케 함으로써 정부를 미국 특무들과 사반나케트 도당의 《국가 안전국》의 통제 하에 몰아 넣었다. 미제는 또한 정권이 민족 통일 정부에 이관된 후에도 사반나케트 도당 정부의 각료들이 계속 종전 직위에 남아 있게 함으로써 애국 전선당 출신 각료들과 중립파 출신 각료들이 자기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하였다.

1963년 4월에는 중립파 출신인 민족 통일 정부 외상을 암살하였으며 우익 군대를 자르 평원에 투입하여 또다시 내전을 도발케 하였다. 이러한 정세 하에서 애국 전선당 출신 각료들과 중립파 출신 각료들은 신변의 안전을 위하여 비엔티안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미제는 자기의 군사 인원들을 라오스에서 철수시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증원 부대까지 파견하였으며 작전 물자와 군수 물자들을 계속 반입하였다. 미제는 사반나케트 도당이 군대를 확장하도록 사촉하였으며 놈들을 해방 지역들에 대한 공격에로 내 몰았다.

작년 4월에 미제는 중립파 군대 내의 반동들까지 사촉하여 자르 평원 일대에서 무장 충돌을 도발시키고는 사반나케트 도당 군대 6천 명을 이 지역에 투입하였다. 이에 뒤'이여 5월에는 해방 지역들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에로 사반나케트 도당 군대들을 내 몰면서 히엥 쾅—자르 평원 등 중요한 전략상 거점들을 탈취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미제의 이와 같은 모든 음모 책동은 애국 전선당과 애국적 라오스 인민의 한결 같은 항의와 반격에 부딪

쳐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하였다. 미제는 라오스 인민들로부터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민들로부터 더욱더 고립되게 되였다.

미제는 저들의 이런 불리한 정세를 역전시켜 보려고 발악하면서 금년 4월 19일 친미주구인 우익군 제 5군관구 사령관 쿠프라시트 아브하이와 부사령관 겸 경찰 총감 탐푸타를 시코를 사촉하여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다.

미제는 쿠데타 초기 수반나 푸마에게 압력을 가하여 그를 사직케하고 친미 우익 정부를 수립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라오스 인민과 전세계 사회계의 항의에 봉착하게 되자 그를 명목상 수상 자리에 두어 두고 이른바 《확대》되고 《개조》된 정부를 조직하여 우익 세력에 실권을 넘겨 주는 교활한 수'법을 택하였다.

그리고 애국 전선당과 중립파 출신 각료들을 친미 반동들로써 교체하고 중립파 군대를 노사방 군대에 《통합》시켰으며 수도 주둔 군대를 저들의 영향하에 있는 경찰로 교체하였다.

한편 미제는 반역 도당 군대를 사촉하여 해방 지역들에 대한 도발 행동을 계속 감행하고 있다.

미제의 이와 같은 모든 범죄 행위들과 침략 책동들은 라오스 인민들의 단호한 조치들에 의하여 분쇄 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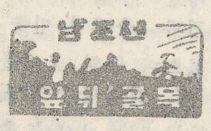
놈들은 지난 6월 16일 히엥 광주의 주요 도시 타 돔에서 쫓겨 났으며 29일에 후에이 사이주, 무옹싱 지방에 침입하였던 적들은 이 지방 인민 무장대의 반격을 받고 많은 시체를 남긴 채 도주하였다.

이러한 사태 발전에 당황 망조한 미제는 가면을 벗고 공개적인 무력 간섭에 매달리고 있다.

지난 6월 14일 미제는 《티—28형》 비행기 6대와 기타 분사식 비행기들을 타고 보와 자르 평원의 해방 지역에 파견하여 중립파 군대와 주민들을 폭격하고 기총 사격을 가하였으며 지어 비행기로써 해방 지역에 독약까지 살포하여 인민들을 살해하는 만행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한편 미제는 《타이와 라오스 국경에 제 7합대 해병대를 공중 투하》하겠다고 하면서 라오스 인민들을 위협 공갈하고 있다.

그러나 미제는 그 어떤 범죄적이며 기만적 술책으로써도 결코 라오스의 애국적 역량과 인민들을 놀래울 수 없으며 미제의 그 어떤 가증스러운 책동도 결코 참패를 면치 못할 것이다.



관람자 없는 체육 경기

《대한 체육회》에서는 최근《계엄 사령부》를 찾아 가 아무 날 아무 시에 모모한 제 3 국과 국제 경기를 하겠으니 승인해 달라고 경기 허가 신청서를 냈다.

이에 대해 《계엄 사령부》는 포고령 1,2,3,4호를 내 저으면서 《일체 집회는 허가할 수 없》으나 《군중을 모으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라면 허가한다고 도장을 찍었다.

그들은 군중들, 특히 학생들이 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볼보다도 더 두려워 하는 나머지 이러한 기발한 방법도 고안해 낸 것이 분명한데 그렇게도 군중이 무렵거런 지금 서울 장안 요소요소에 걸어 놓은 소구경 박격포나 기관총을 경기장 한 복판에 옮겨다 놓고 경기를 해 보는 것이 어떠할가?

뒤숭숭하기는 해도 관람자 없는 체육 행사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그 편이 훨씬 낳을 것이다.

관람객 없는 체육 행사란 마치 손님 없는 결혼식과도 같은 것이여서 고금동서에 그 류례를 찾아 볼 수 없는 해괴망칙한 노릇이기 때문이다.

굿판에서의 무당 푸념

새로 속개된 남조선의 43회 림시 괴뢰 국회에서 국회 의장 안 모는 3.24 이후의 《학생들의 행동은 완전히 국회와 정치인을 무시한 것》이라고 불평인지 비난인지 알고도 모를 알송달송한 푸념을 늘어 놓았다.

이것이야 말로 얼럼뚱땅하는 굿판에서의 무당 푸념이 아니겠는가?

외사당 안에서 소위 국사를 론한다는 정객들은 현재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보고 이런 푸념도 늘어 놓은 것이 좋지 않을가?

남조선 국회란 것이 남조선에서 실시되고 있는 파쑈 테로 통치를 허울 좋은 《대의 정치》의 보자기로 감싸기 위해 꾸며낸 위장물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쯤은 삼척동자에게도 비밀이 아니다.

그 자리에 틀을 차리고 있는 자칭 정객들이 백성이야 죽건 말건 아랑곳 없이 세상이 가는지 오는지도 모를 지경으로 감투 싸움과 더런 잿탈에만 몰두하고 있는 판국에 누구에게 무시 당했다느니 뭐니 하고 새삼스럽게 불평할 여지조차 있는가.

그들은 학생들이 알아 주지 않는다고 푸념을 늘어 놓을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서 무시 당한 것이 억울하거던 괴뢰 의원 자리를 내여 놓는 것이 오히려 낳을 것이다.

사실에 있어서 박 정희의 《민정》이란 군사 파쑈 분자들의 총칼의 민무장으로 화하여 국회란 명실공히 유명무실하니 말이다.

여름철 위생

일사병과 열사병

일사병은 무더운 여름철에 태양 광선을 오래 동안 받았을 때 일어 나는 병이다.

뜨거운 태양 광선을 오래 동안 쬐이면 뇌혈관이 확장되고 뇌에 혈액이 가득 차면서 염증을 일으키게 된다.

이 병은 흔히 살진 사람, 굶주린 사람, 영양이 부족한 사람,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에게 잘 걸린다.

일사병에 걸리면 초기에는 얼굴이 붉어지며 심한 두통이 일어 난다. 그리고 숨이 가빠지면서 어지럼'증이 나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된다.

열사병은 사람의 몸이 과열되였을 때에 생기는 병이다.

이 병은 무더운 여름에 두터운 옷을 입고 일하거나 무덥고 답답한 장소에서 심한 육체로동을 할 때 일어 난다.

열사병에 걸리면 온 몸의 피부가 벌개지며 숨이 차고 머리가 아프며 체온은 40 도까지 오른다. 그러다가 마침내 환자는 정신을 잃어 버리며 맥박은 빠르게 된다.

일사병과 열사병을 예방하기 위하여서는 태양이 몹시 쬐이는 무더운 여름 날엔 반드시 모자를 써야 하며 먼 길을 행군할 때에는 적당한 시간에 그늘진 곳에서 휴식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분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다.

만일 일사병과 열사병에 걸리게 되면 즉시 서늘한 곳으로 환자를 옮기여 눕히거나 편하게 앉힌 다음 의복을 벗기고 숨 쉬기 편하게 하여 주며 머리와 심장에는 랭수 찜질을 하며 찬 물을 많이 마시게 해야 한다. 만약 병세가 중한 경우에는 목욕을 시켜야 하며 숨까지 못 쉴 때에는 인공 호흡을 실시하며 숨이 돌아 서면 즉시로 의료 기관에 보내야 한다.

무 좀

무좀은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전염성 피부병이다. 이 병은 대개 만성적인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한 번 걸리면 해마다 봄과 여름에 재발하기가 쉽다.

뿐만 아니라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몹시 아프기 때문에 잠을 못 자며 건강에 해를 끼치게 된다.

무좀을 일으키는 것은 주로 실오리 모양으로 생긴 작은 병균(표피 사상균)이다.

무좀은 발에 땀이 많이 나는 사람이나 손발을 자주 물에 적시는 사람, 또는 고무 장화나 작은 신발을 늘 신는 사람, 혹은 발'가락 사이가 좁은 사람들이 걸리기 쉽다.

이 밖에 무좀 환자와 접촉하였을 때 전염된다. 즉 환자의 수건이나 물건 등을 함께 쓰거나 또 환자와 함께 목욕하든가 혹은 환자의 신발, 양말 등을 신었을 때 무좀에 걸리게 된다.

무좀을 예방하자면 우선 발을 자주 씻으며 특히 여름에는 발을 매일 씻은 후 마른 수건으로 문대고 말리울 것이며 분'가루를 바르는 것이 좋다.

또한 신발, 양말 등을 항상 깨끗하게 신어야 하며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을 신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발의 발육에도 나쁠 뿐만 아니

타 《티눈》, 《무좀》 등을 일으키게 하는 요인으로 된다.

무좀에 걸린 환자의 수건, 신발, 양말 기타 물건을 함께 쓰지 말며 또 환자와 함께 목욕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손이나 발이 가려울 때에는 곧 옥도정기를 바르든가 살절산 알콜을 바르면 대개는 예방할 수 있다.

한 번 무좀에 걸렸던 사람은 항상 발을 깨끗이 하고 될수록 땀이 나지 않고 건조하게 하는 것이 좋다. 발을 무좀약으로 1 주일에 2~3 회 정도 깨끗이 씻은 후 과망간산카리 용액을 바르는 것도 효과적이다.

또한 마늘 즙을 바르는 것도 좋다. 즉 마늘을 깨끗한 식기나 사발에 넣고 잘 이겨서 죽같이 만든 후 30% 정도 증류수를 가하여 무좀이 먹는 곳에 붙인다.

이 밖에 알콜에다 호르마린을 5~10% 정도로 타서 사용해도 좋다. 이것은 발에 몹시 땀이 나는 사람에게는 효과가 크다.

또한 붕산연고, 징크유, 와세린 등도 사용할 수 있다.

식 중 독

식중독은 상한 음식물이나 원래 독이 있는 음식물을 먹었을 때 생기는 것이다.

이 병은 음식물이 잘 변하기 쉬운 여름철에 많이 걸린다.

식중독에 걸린 사람은 갑자기 높은 열이 나면서 메스꺼우며 토하고 설사를 하게 된다. 또한 배가 아프고 머리가 쑤시며 심할 때에는 갑자기 쓰러지거나 풍을 일으키기도 한다.

식중독을 예방하자면 우선 음식물을 변하지 않게 잘 보관하여야 한다. 실험에 의하면 섭씨 45 도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와 섭씨 3 도 이하의 낮은 온도, 그리고 습기가 없는 곳에서는 미생물이 번식하지 못하고 죽고 만다. 그러므로 음식물을 끓는 물로 소독한 그릇에 담아서 뚜껑을 덮어 습기가 없는 서늘한 곳이나 랭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오래 두고 먹을 음식물은 소금에 저려야 하며, 한 번 끓여서 소독한 음식물도 3 시간 이상 지나면 다시 끓여 먹어야 한다.

식중독을 예방하자면 또한 식중독 균을 전파하는 파리나 쥐가 음식물을 먹지 못하게 잘 보관하며 이러한 것을 철저히 잡아 없애야 한다.

그리고 잘 익지 않았거나 변한 음식물을 먹지 말아야 한다. 소나 돼지의 내장으로 만든 생회, 잘 모르는 산나물이나 버섯, 잘 익지 않은 과실 특히 설익은 살구 같은 것을 먹지 말아야 한다.

만일 부주의하여 식중독에 걸렸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의사에게 보여야 하며 의사를 만나기 전에도 가정에서 빨리 손을 써야 한다. 가정에서의 구급 처치는 환자가 먹은 것을 빨리 토하게 하는 것이다. 토하게 하자면 토제를 사용하거나 그것이 없으면 깨끗이 씻은 손'가락을 입안에 넣어 완전히 토하게 하여야 한다. 미지근한 소금물을 많이 마시고 토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식중독에 걸리면 장에서 출혈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설사약을 되는 대로 사용하면 출혈이 더욱 심하여질 수 있다. 그러므로 설사약은 꼭 의사의 처방대로 써야 한다.

청년 생활 제 7 호 (루계 178 호)

편집 위원회

발행소 조선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 출판사
주 소 평양시 동대원 구역 문신동
인쇄소 동평양 인쇄 공장

인 쇄 1964년 7월 4일 발행 1964년 7월 9일

ㄱ—430384 값 45 전

영화 소개

민청 제 5 차 대회에 드리는 선물로 제작 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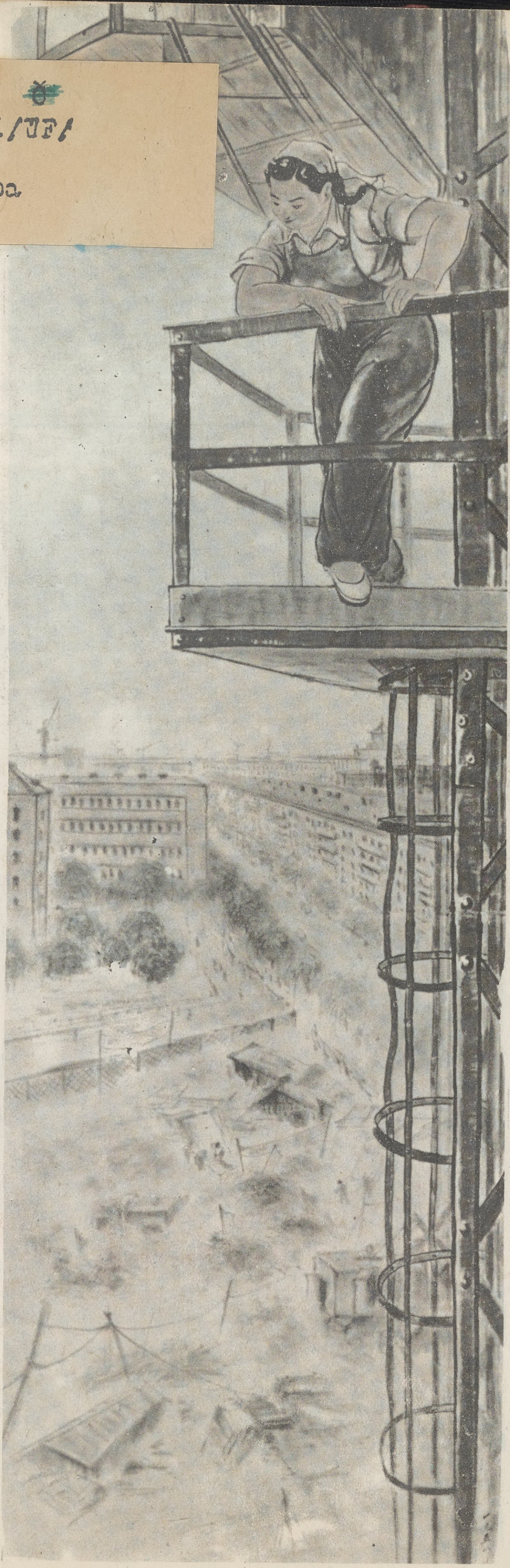
예술 영화 《공청원의 노래》

오늘 우리 시대 청년 운동의 뿌리는 어떻게 이루워졌는가?

참된 청춘이란 무엇이며 사람들은 청춘 시절을 어떻게 값 높게 보내야 하는가?

이 영화는 주인공 삼선이를 비롯하여 순이, 창구 등 소박한 조선의 청년들이 항일 무장 투쟁 대오에 참가하여 원쑤와 용감히 투쟁하는 절실한 문제들을 감명 깊게 보여 주고 있다.





(조선화) 처녀 기중기공 리 동춘 작